

국립국어원 2014-01-08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512-01

#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연구 책임자  
원성옥

 국립국어원

 사단  
법인 한국농아인협회  
KOREA ASSOCIATION OF THE DEAF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의 국고 보조금으로 수행한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연구’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기간 : 2013년 09월 ~ 2014년 03월

2014년 3월 31일

연구책임자 : 원성옥(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보조사업자명	(사)한국농아인협회
연구책임자	원성옥
공동연구원	권순우, 김지숙
연구보조원	김선영



##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연구

보청기와 인공와우 등 의료 공학기기의 발달로 인해 청각 결손을 줄인다하더라도 여전히 시각 언어인 수화로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수화 사용 농인이 많아지므로 인해 수화통역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수화 보급과 수화 교육, 그리고 수화 연구 등 수화 발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한국수화 보급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왔으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는 수화통역센터의 설립 및 수화통역제도의 확립 등 수화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소수의 언어인 수화 사용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여 농인들의 교육은 물론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농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의 언어적 권리를 보장하고 수화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정책과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화 사용 환경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수화 환경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그 방안을 기초로 하여 수화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수화 지위, 농인과 수화교육, 농인과 수화환경, 수화연구, 농인과 정보접근으로 나누어 국·내외 문헌과 현황을 고찰·분석한 후에, 전문가의 자문과 농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 한국 수화 환경 실태 및 요구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실태와 요구를 바탕으로 수화발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그 방안을 기초로 하여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안은 공청회를 거쳐 농인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정 보완되었다. 수정 보완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 인터뷰를 거쳐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안을 작성한 후에 다시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완성하였다.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안에서는 ‘농인의 평등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라는 이상 실현을 위해 장기 비전과 추진 목표를 설정하였다. 즉, ‘농인들이 편안하게 수화로 의사소

통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사회 실현'이라는 장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화 사용 환경의 개선', '수화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보급', '수화 연구의 활성화'라는 추진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추진 과제와 그에 따른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한 후에 각 세부 과제에 대한 추진 방향과 내용을 기술하였다. 5대 추진 과제와 각 추진 과제에 따른 세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원활한 언어 생활을 위한 농인의 수화 능력 향상**
  - 1-1 농유아를 위한 수화교육
  - 1-2 농학생을 위한 수화교육
  - 1-3 농인을 위한 수화교육 및 수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
2. **수화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정비**
  - 2-1 수화 사용 실태 조사
  - 2-2 수화 능력 평가제도 마련
  - 2-3 수화 교원 양성 제도 마련
  - 2-4 수화 통역사 제도 개선
3. **수화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 개선**
  - 3-1 청인을 위한 수화교육 지원
  - 3-2 수화관련 서적 및 사전 편찬 사업 지원
  - 3-3 수화 및 농문화 보존 및 홍보 사업 지원
4. **수화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4-1 수화연구소 설립 및 수화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4-2 농인 수화 연구자 양성
  - 4-3 수화 연구 지원 사업
5. **수화를 통한 정보화 사업**
  - 5-1 수화코퍼스 구축 사업 전개
  - 5-2 수화 정보 동영상 자료 구축 및 DB화
  - 5-3 수화 기반 웹접근성 사업 전개
  - 5-4 수화문자 개발 및 보급 사업 지원

주요어 : 한국수화, 발전 기본계획, 수화연구, 수화교육, 수화환경, 수화발전, 수화정보화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Korea Sign Language development plan

There are still lots of people who communicate in sign language which is visual language in spite of reduction of **hearing impairment due** to medical equipments such as hearing aids and cochlear implants.

Moreover, needs for sign language development such as sign language spread, education and research are strong since deaf people using sign language who are highly educated and engage in professional jobs are increasing.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 diverse projects for sign language spread and development have been conducted with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as the center. And various projects for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center and interpretation system have been made with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ut services of sign language as a minority language is still in poor, which caused difficulties in deaf education as well a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Systematic plan for sign language policy and research is needed to assure the linguistic rights of Korean sign language and to improve the environments of sign language use.

In this study, actual condition of Korean sign language and demands for improvements are investigated and domestic and foreign references are analyzed. And then long term vision and goal are set to realize the ideal, “equal and complete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of the deaf.”

Five top priority projects and its details were selected to achieve the vision and goal. There are as follows.

1. **Improvement of Sign Language ability for the deaf to have language life without difficulty**
  - 1-1 Sign Language Education for the deaf children
  - 1-2 Sign Language Education for the deaf student
  - 1-3 Sign Language Education and Korean language for the deaf adults
2. **System building and reorganization for sign language use environment improvement**
  - 2-1 Investigation of sign language use
  - 2-2 Establishment of sign language ability evaluation system
  - 2-3 System building for training sign language teacher
  - 2-4 Improvement of Sign Language interpreting system
3. **Awareness improvement for increasing Sign Language status**
  - 3-1 Support of Sign Language Education for hearing people
  - 3-2 Support for publication Sign Language books and dictionary
  - 3-3 Support for project of Sign Language and Deaf culture
4.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Sign Language research**
  - 4-1 Set up of Sign Language research institute and Sign Language committee
  - 4-2 Training of Deaf Sign Language researcher
  - 4-3 Assistance for Sign Language research
5. **Information project for Sign Language**
  - 5-1 Sign Language corpus project building
  - 5-2 Database build-up of Sign Language video clips
  - 5-3 Project building of Sign Language based web accessibility
  - 5-4 Assistance of project for the Sign Language alphabet development

*Key words : Korea Sign Language, sign language studies, sign language education, sign language environments, sign language development, information project for sign language*

Project Director: Won, Seong Ok

(Department of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Welfare)

<b>I. 서론</b> .....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5
1) 연구 내용 .....	5
2) 연구 방법 .....	6
<b>II. 국내·외 수화 현황 분석</b> .....	13
1. 수화 지위 .....	15
2. 농인과 수화환경 .....	18
3. 농인과 수화교육 .....	19
4. 수화 연구 .....	22
5. 농인과 수화기반 정보 접근 .....	25
<b>III. 한국 수화 환경 실태 및 요구</b> .....	29
1. 전문가 자문 .....	31
2. 포커스집단인터뷰 .....	38
3. 공청회 .....	63

<b>IV. 한국 수화 환경 개선 방향</b> .....	67
1. 수화 지위 .....	69
2. 농인과 수화환경 .....	69
3. 농인과 수화교육 .....	70
4. 수화 연구 .....	70
5. 농인과 수화기반 정보 접근 .....	71
<b>V.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안</b> .....	73
1. 이상과 추진 목표 .....	75
2. 추진 조직 체계 .....	76
3. 추진 과제 및 세부 과제 .....	76
4.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 장·중·단기 계획 .....	134
5.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의 예산(안) .....	140
<b>참고문헌</b> .....	145

## 표 목차

<표 I-1> 연구 절차 .....	6
<표 I-2> 초점 집단 인터뷰 질문 내용 .....	9
<표 V-1>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의 중장기 추진 목표 및 세부과제 .....	77
<표 V-2>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의 장·중·단기 계획 .....	135
<표 V-3>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의 총예산(안) .....	140
<표 V-4>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의 단기예산(안) .....	141
<표 V-5>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의 중기예산(안) .....	142
<표 V-6>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의 장기예산(안) .....	143

## 그림 목차

<그림 1> 「이상과 추진 목표」 .....	75
<그림 2> 「추진 조직 체계」 .....	76
<그림 3> 「한국어교원자격심사체계」 .....	97



# I

---

##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5
1) 연구 내용 .....	5
2) 연구 방법 .....	6



# I. 서 론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960년대 초 William C. Stokoe의 연구 이후 수화가 언어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언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으며, 아무도 이에 더 이상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최근 청각장애를 보는 관점이 병리적 관점에서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수화(이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수화’는 수어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수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임)를 시각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사람들의 언어로 인정하고, 농인(청각장애인)을 수화를 사용하는 언어공동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여전히 수화는 보조적인 의사소통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즉, 인공와우 시술과 언어치료라는 재활 과정이 청각장애를 없앨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많은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며, 수화와 관련된 지원은 성공적으로 청각재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농학생들이 줄어가고 있는 농학교의 위기이다.

Krausneker (2000, p.42)가 지적했듯이 많은 나라에서 언어 권리들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농학생이 학교수업에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으며 사회생활이나 미디어, 정책 등의 참여는 더 어려워진다. 실제적으로 사회적·정치적 분야에서 농과 관련된 문제들은 장애의 영역과 관련지어 다룬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언어적 질문인 수화의 언어적 지위와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아이러니한 사실은 인공와우 등 의료 공학 기기의 발달로 청각 결손을 줄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화로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고등교육을 받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수화 사용 농인들이 많아지면서 수화통역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수화 보급과 수화 교육, 수화 연구 등 수화 발전을 위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수화의 사용은 대안이 아닌 권리라는 것이다.

수화는 농아동의 언어적 잠재력과 인지적 잠재력을 적절하게 발달시킬 수 있는 단일 언어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화에 대한 완전한 언어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Trovato, 2013). 건청아동의 경우 제1언어습득이 제2언어습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Cummins, 1979; Krashen, 1982), 수화(ASL)의 견고한 습득은 영어 학습에 영향을 준다(Mayberry, Lock & Kazmi, 2002).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의 체계적인 수화 교육은 농인의 교육적 제한과 어려움을 줄일 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과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화 지위와 수화사용자의 권리문제에 관심을 갖고 수화와 관련된 언어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있다. Reagan(2010)은 언어정책을 지위계획(status planning), 자료계획(corpus planning), 습득계획(acquisition planning), 태도계획(attitude planning)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위계획(status planning)이란 한 언어 공동체 내에서 특정한 언어를 결정하기 위한 정부 또는 제도에 대한 노력과 관계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사용해야 하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표지판에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결정 등 한 나라의 공식적 언어의 확인이 지위계획에 해당된다. 따라서 수화의 언어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계획이 필요하다. 자료계획(corpus planning)이란 지위계획의 결과라고 종종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한 언어 공동체 내에서 사용하는 언어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들의 표준화, 정교화, 순화에 대한 노력과 관계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습득계획(acquisition planning)은 많은 언어 사용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는데, Spolsky(2004, p46, 재인용)는 습득계획이 언어교육정책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수 매체는 무엇인가?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부가적인 언어는 무엇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주제와 관련된 계획들이다. 태도 계획(Attitude Planning)은 특정 언어를 향한 개인 또는 집단의 태도 변화에 대한 노력과 관련된 것으로 Reagan(2010)은 태도가 자연스러운 상황이나 의도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인들의 교육과 사회 참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한국수화 사용자의 권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수화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동안 수화통역센터의 설립과 더불어 수화 사용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 또한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 수화통역과가

만들어지므로 수화통역사의 양성 및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와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는 2000년 7월 이후 소외계층의 언어권 보장 및 언어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여 한국수화 발전과 보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으며, 2005년에 발간되어 2007년에 개정된 한국수화 사전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다양한 수화 사전도 발간하였다. 그러나 단일민족과 단일언어를 강조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 수화 사용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필요에 의해 단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수화 발전과 보급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에서의 수화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계획들에 대한 동향을 고찰하고 한국수화 사용 환경의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수화 환경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수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그 개선 방안들을 기초로 하여 한국수화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안을 수립함으로써 한국수화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언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내용

이를 위한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수화 환경 현황을 분석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수화 정책의 특성과 과제를 분석한다.

둘째, 한국수화 중장기 발전 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농 사회 환경 변화를 전망해 보고, 외국의 수화정책동향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수화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자문위원 회의를 실시하고, 관련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하여 정리 분석한다.

넷째, 한국 수화 발전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과제를 개발한다.

다섯째, 농 전문가,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1차 마련한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 과제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여섯째, 정책 사업에 대한 재정 소요액을 추정한다.

## 2) 연구 방법

###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수화 환경 현황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연구자 및 전문가 회의, 초점집단 인터뷰 및 공청회를 통해 분석 내용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1>과 같다.

<표 I-1> 연구 절차

계획	실행계획 수립	· 수화 환경 현황 항목 선정
	문헌 조사	· 국내외 수화 환경 문헌 자료 수집
	전문가 자문 위원 구성 및 포커스 집단 구성	· 농인 전문가와 청인 전문가 섭외 및 구성
자료 수집 및 분석	문헌 분석	· 연구 방법 논의 · 수집된 자료 분석
	자문 회의	· 중점 과제 구성을 위한 기본 요소 추출 · 초점 집단 인터뷰에 반영할 질문 내용 구성
	초점집단인터뷰	· 중점 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농인당사자와 관련된 전문가 및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공청회	· 농인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공청회 의견 반영 및 추가 인터뷰 진행	·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추가하기 위한 인터뷰 실시
결과 보고	보고서 초안 작성	· 중점 과제별 항목에 대한 내용 수정 및 보완
	외부 전문가 심의	· 심의 내용 검토 및 반영
	연구 보고서 인쇄 및 발간	· 최종 연구 보고서 확정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국내·외 수화 환경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가. 자료 수집

가) 문헌조사

연구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행된 국내·외 수화 환경 현황 및 실태를 주제로 다룬 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즉 수화 지위, 농인과 수화 환경, 농인과 수화 교육, 농인과 정보 접근 및 수화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나) 자문회의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특수교육과 교수 1명, 국어국문학과 교수 1명, 인간재활학과 교수 1명, 수화통역과 교수 2명, 국립국어원 어문 연구실장 1명, 청각장애 특수학교 농인 교사 1명, 농인단체 소속 농인 2명 등 총 9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1차 자문회의에서는 연구의 방향, 연구의 수행 가능 여부, 초점집단 인터뷰 내용구성의 타당도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으며, 2차 자문회의에서는 초안 보고서의 내용을 심의하고 검토하였다.

다) 포커스 집단 인터뷰

최근 한국 수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즉 청각장애인의 언어사용 실태연구, 수화통역 실태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농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이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상자의 규모가 커서 양적 방법을 적용하여 포괄적인 정보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은 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어 농 당사자들의 심층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특히 정책의 방향을 제안한 연구들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필요로 하므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보다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포커스 집단 인터뷰 방법을 활용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포커스 집단 인터뷰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을 얻기 위한 토론 방식으로 비형식적인 소집단 인터뷰와는 달리 진행이 훨씬 조직적이고 형식적이며, 포커스 집단 인터뷰 연구자는 적어도 3~4개의 집단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비교대조 할 수 있기 때문에 질적 수준이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이성숙, 김애화, 2008). 즉 그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이론을 구축할 수 있다(최현선 등, 2011).

또한 포커스 집단 인터뷰는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확장시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심층면접에 비하여 참여자가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농당사자들의 의견을 도출하는데 긍정적인 방법이다.

#### (가) 초점 집단 인터뷰 대상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위해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농인 2명과 청인 3명,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농인 5명과 청인 5명을 초청하였으며 서울, 경기 지역 2집단과 대구 경북지역 1집단으로 구분하여 2013년 12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각 집단의 구성원에는 농 당사자의 의견을 가장 잘 대표하는 현장 전문가로 농인과 청인이 포함되었다. 이 경우 연령과 성별은 제한하지 않았다. 세 집단을 1차 인터뷰를 실시한 후 주제들에 대해 더 이상 의견이 없다는 전문가를 제외하고 5인을 선정하여 2차, 3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나)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이수희 등(2009)이 사용한 Krueger(1998)의 지침사항을 준수하여 분석하였다. 즉 연구시작시기, 포커스 그룹 도중, 포커스 그룹 직후, 전체 포커스 그룹 종료 후 등 4단계 지침 사항을 준수하였다. 그 구체적 단계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1단계(연구시작시기)

각 참여자에게는 미리 전화나 메일로 개별적으로 의뢰를 하고, 인터뷰 2주일 전에 인터뷰와 관련된 안내 메일을 보냈으며, 인터뷰 하루 전에 전화로 참석 여부를 재확인 하였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안내문에 크게 9개 문항의 내용을 사전에 생각해보고 오도록 안내하였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질문들을 함께 제공하였다. 2013년 12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분석을 염두에 두고 준비했으며, 농민들을 고려해 속기사와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였다. 모든 내용은 녹화된 영상, 전사한 녹취록, 현장노트 등을 기초로 분석하였다. 질문 개발은 포커스 그룹 리서치(Greenbaum, 2001)의 절차에 따라 질문의 원칙을 숙고하고, 연구문제를 명확히 한 후, 공동 연구원들 간 질문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질문의 초안을 만들었으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여러 차례 질문을 검토한 후 최종 질문을 개발했다. 인터뷰 질문 내용은 <표 I-2>와 같다. 포커스 인터뷰의 진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질문의 순서는 매회 조금씩 수정되었다.

〈표 I-2〉 초점 집단 인터뷰 질문 내용과 진행 절차

구분	질문 내용	목표
도입 질문	1) 한국 수화의 현재의 지위와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의 필요성 인식	현황 파악
세부 내용 질문	2) 수화 사용 환경 구축 3) 수화의 인식 개선 및 보급 4) 수화연구의 현황 및 필요성	현황 조사
장애요인	5) 법적 그리고 제도적 장애요인 6) 문화적, 사회적, 조직적 장애요인 7)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도출
활성화 방안	8) 세부 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정책방안
마치는 질문	9)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 수립에 필요한 다른 방안	기타 안

(2) 2단계(포커스 그룹 진행 중)

인터뷰 진행은 미리 계획된 인터뷰 계획에 따라 진행하였고,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ㄷ’자 형태로 의자를 배치하여 물리적 환경을 수정하였다. 농인들을 고려하여 수화통역사와 속기사를 배치하였으며, 인터뷰에 대한 개괄적 안내 및 모임에 대한 감사 인사, 연구원 소개, 인터뷰를 하게 된 연구 배경과 인터뷰 진행 지침 안내를 하였다. 즉 농인들이 편안하게 수화로 의사소통하고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사회 구현을 위해서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문과 인터뷰 내용을 녹화 및 속기록으로 작성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또한 속기 자료 및 녹화된 정보는 연구를 위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었고, 모든 내용은 녹화되었다. 농인의 평등하고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서로 공감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커스 집단 인터뷰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책임자는 사회자 및 중재자(mediator) 역할을 담당하였고, 공동 연구자는 필요에 따라 토론내용과 관련된 추가 질문을 추가하거나 참여자 의견에 대해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또한 사회자는 제시된 질문을 하여 참여자들이 질문에 응답하도록 진행하였고 연구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진술하도록 격려했다.

(3) 3단계(포커스 그룹 직후)

포커스 그룹 종료 직후에는 토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와 아이디어, 기대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 다른 포커스 그룹과 다른 내용, 보고에 포함될 내용, 보고서에 포함할 중요한 인용문,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 다음 포커스 그룹에서 변경해야할 내용, 기타 토의 중 모호했던 부분이나 다른 해석이 가능한 부분, 준비나 진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디브리핑(debriefing) 노트를 정리했으며, 속기록 및 녹화가 잘 되었는지 점검하였다. 매 회 끝나면 속기록 및 현장노트(포커스 그룹 진행 중의 기록), 녹화 동영상상을 이용하여 포커스 그룹 시행 중 내용 및 직후의 디브리핑 내용 등을 전사(transcription)하고, 의미 있는 진술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그 자료는 다음 인터뷰에 반영하였다.

(4) 4단계(전체 포커스 종료 후)

전체 포커스 종료 후 분석과정에서는 다양한 포커스 그룹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과 형태 즉 참여자가 사용한 용어의 의미, 맥락, 내적 일관성, 의견의 빈도, 의견의 규모, 의견의 강도, 반응의 특이성 등을 찾고자 하였다. 즉, 자료 분석의 첫 단계에서는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자료를 코딩했으며, 다음 단계에서는 연구자들 간의 지속적인 비교과정을 통해 비슷하게 명명한 개념들을 모아 범주화하고 더 큰 범주로 통합하면서 속성에 따라 분류했다. 범주화 작업을 할 때는 연구 시작시기에 계획한 연구 목적에 비추어 해석을 시도하고 결과를 정리하였다.



# II

---

## 국내·외 수화 현황 분석

1. 수화 지위 .....	15
2. 농인과 수화환경 .....	18
3. 농인과 수화교육 .....	19
4. 수화 연구 .....	22
5. 농인과 수화기반 정보 접근 .....	25



## II. 국내·외 수화 환경 현황 분석

### 1. 수화 지위

- 청인들의 수화 지위에 대한 인식은 일반인들과 전문가들 간 의견 차이를 보임. 즉 대부분의 청인응답자들(82.2%)은 수화를 언어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으나(권재일 등, 2009), 자문위원들의 경우 지금까지 수화는 언어로서 보다는 서비스의 하나로서 인식되어왔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에서 수화의 지위가 예전 보다는 높아졌지만 한국어, 제2외국어(예, 영어, 독일어, 일본어 등)와 같은 지위는 아니라고 함.
- 이에 청인들의 수화 지위 인식 개선을 위해 농인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농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화교육이 확대되어야 함. 즉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수화를 제2외국어 교과로 인정하는 경향이 확장되고 있음(Rosen, 2010).
  - 미국에서는 교육과정에 제2언어로 수화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음. 실제로 10% 미만의 교사가 ASL 교과를 사용하며 중학교 교과에 수화가 제2외국어 교과로 포함됨(Rosen, 2010).
  - 대학교 교과과정 중, 봉사학습과 수화지도를 연계시켜 ASL 교과를 진행한 결과, 청인참여자들의 농문화 이해가 높아졌으며 수화기술도 증진되었음(Reading & Padgett, 2011).
-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화 지위와 수화사용자의 권리문제에 관심을 갖고 수화언어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있음(Reagan, 2010).

예를 들어, Krausneker (2000, p.42)의 저서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음.

“많은 나라에서 언어 권리들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농아동들은 여전히 학교수업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일반적 교육수준은 낮고,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은 제공받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생활, 미디어, 정책 등의 참여는 더 어렵다. ~ (중략) 이에 통역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적이고 정치적 분야에서, 농

과 관련된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장애의 영역에 관련지어 다룬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언어적 질문인 수화언어의 지위와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 Reagan(2010)은 언어정책을 지위계획(status planning), 자료계획(corpus planning), 습득계획(acquisition planning), 태도계획(attitude planning)으로 분류하였음.
  - 지위계획은 한 언어 공동체 내에서 특정한 언어를 결정하기 위한 정부 또는 체도에 대한 노력과 관계됨. 예를 들어, 학교에서 사용해야 하는 언어가 무엇 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표지에 대한 결정 등 한 나라의 공식적 언어의 확인이 지위계획에 해당됨.
  - 자료계획은 위상계획의 결과라고 종종 이야기함. 이것은 한 언어 공동체 내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의 표준화, 정교화, 순화에 대한 노력과 관계됨. 지위계획이 언어외적인 것(문화, 인구, 경제 등)과 관련된다면, 자료계획은 목표단어의 언어적 특성에 초점을 두는 언어 본질과 관련됨.
  - 습득계획은 많은 언어 사용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는데, Spolsky(2004, p46, 재인용)는 습득계획이 언어교육정책과 관련된다고 하였음.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수 매체는 무엇인가?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부가적인 언어는 무엇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인가? 등
  - 태도 계획(Attitude Planning)은 특정 언어를 향한 개인 또는 집단의 태도 변화에 대한 노력과 관련됨. 태도는 Reagan(2010)이 언어계획 활동에 참가하였는데, 자연스러운 상황이나 의도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임.
  
- 수화는 농아동들의 언어적 잠재력과 인지적 잠재력을 적절하게 발달시킬 수 있는 단일 언어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화 언어에 대해 완전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Trovato, 2013).
  - 건청아동의 경우 제1언어습득이 제2언어습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 (Cummins, 1979; Krashen, 1982), 수화(ASL)의 견고한 습득은 영어 학습에 영향을 줌(Mayberry, Lock & Kazmi, 2002).

- 한국수화사용자의 권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수화언어정책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000년 이래로 언어 소외계층의 언어권 보장 및 언어 복지 실현을 위하여 한국 수화 연구 및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옴.
- 한국수화사전은 2005년에 초판이 발간되었고, 2007년에 개정판이 발간되었으나, 연령층 및 지역범위를 고려한 재개정이 요구됨(김아영, 2013).
- 기존 한국어-수화 사전의 문제점은 한국어 단어에 대응하는 수화 단어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마다 계층마다 서로 다른 수화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수화사용농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충분하게 담겨 있지 않고, 다양한 수화 사용 공동체의 참여가 부족했음(윤점룡 등, 2008).
- 독일의 경우, 함부르크의 ‘수화와 농인의 의사소통 연구소’에서 만든 수화 전문 용어 사전은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독일어 한 단어에 대해 수화 하나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화 기호들을 보여줌(홍성은, 2013).
- 수화언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농사회와 청인사회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함.
- 이에 단순히 교육과 의사소통 수준에서 환경개선이 아니라 문화적인 수준까지 개선되어야 하며 다양한 홍보전략(예, 대중교통 버스 및 지하철 광고, TV를 통한 수화 관련 공익 광고, 온라인 광고, 홈페이지 제작 등)이 요구됨.
- 요약하면, 청인들의 수화 지위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긍정적이거나 제1언어로서 수화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화도 하나의 언어라는 인식 개선이 시급함. 이를 위해 한국수화언어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다양한 홍보

전략이 필요함.

## 2. 농인과 수화 환경

- 수화통역센터에서 제공되는 수화통역서비스는 상당히 많음. 즉 청각장애인이 요청한 수화통역 요청건수는 연평균 4,401회로 나타났으며, 실제 수화통역 제공건수는 연평균 2,642회로 나타남. 대상기관이 요청한 수화통역 요청건수는 연평균 256회로, 제공건수는 연평균 143회로 나타남(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 그런데 지역별 수화통역서비스의 편차가 크며, 현재 수화통역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청각장애인의 경우, 자신이 선호하는 수화통역사를 지속적으로 대동할 수 없는 점, 수화통역서비스의 질, 해당지역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점(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자신의 수화통역이 제공되는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점(권재일 등, 2009) 등에 대한 불편을 호소함.
- 특히 전문수화통역의 수요는 증가하나 수화통역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며(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현재 수화통역의 수준이 농인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함(김연신, 이준우, 2013). 이에 전문수화통역과 관련된 해결방안으로 수화통역사의 체계적 양성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권재일 등, 2009; 김연신 등 2013;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화통역사 자격증 제도는 단일 종류의 자격증으로 전문 통역 영역이나 통역 수준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농인들의 수화통역 수요는 많지만 실제 수화통역사들이 제공하는 수화통역의 질이 낮은 것으로 보고됨(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이에 농인들이 보다 질 높은 수화통역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화 능력 평가 제도의 필요성 제기됨.
- 따라서 전문적인 수화통역사의 양성을 위해 현재 한국수화능력시험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기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수화기본법을 바탕

으로 한국수화교원자격제도 관련 법규(시행령, 시행규칙 등)가 마련되어야 함.

- 요약하면, 농인들이 수화통역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으나, 전문적인 수화통역서비스의 제공이 원활하지 못함. 이에 따른 수화통역사 제도의 개선과 수화능력 시험 제도 마련이 필요함.

### 3. 농인과 수화교육

- 농 유아가 수화를 습득해 나가는 환경은 열악한 실정임. 농아동의 90%가 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므로 부모로부터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지 못하며, 농자녀와 청인 부모간의 의사소통의 곤란은 농자녀의 정서적 교감과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갖게 함. 즉 농자녀를 둔 청인부모의 수화교육이 필요하나, 현재 이들이 수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농 유아가 농정체감을 가진 문화의 주체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발달초기에 가족들 간 자연 수화 의사소통이 촉진되어야 하고, 이중언어교육이 접목되어야 하며,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교육기간 내내 양질의 통역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야 함(Pribanikj & Milkkovkj, 2009).
- 이에 농아동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방법 등 효과적인 언어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영아부터 체계적인 이중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농으로 진단을 받은 후 보청기나 인공와우 시술 외에 다른 선택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임. 이에 농자녀의 양육 및 수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요구됨.
- 수화의 효과성을 주제로 다룬 선행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음.
  - 태어날 때부터 수화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수화를 익힌 농인은 사춘기 이후에 수화를 배운 농인보다 언어 기억과제 수행력이 더 높았음(Pribanikj &

Milkkovkj, 2009).

- 농부모가 그들의 농자녀와 수화로 의사소통하면서 양육한 사례를 생후 3년에 걸쳐 종단 조사한 결과, 농부모-농자녀 간 상호작용 시 부모는 아동중심수화(child-directed signing)를 직관적으로 활용하여 언어지식과 문화지식을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는 건청또래와 유사하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Bailes, Erting, Erting & Thumann-Prezioso, 2009). 즉 일찍부터 농유아에게 수화로 언어 자원과 인지 자원을 제공하여 자연 수화 환경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함.
  - 인공와우를 시술받은 농아동을 대상으로 음성산출-단어와 수화 처리 간 관계성을 조사한 결과, 두 언어모듈 간 정적 상관성이 나타났고, 음성을 수화로 지원하는 것이 음성단어처리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에서 일부 대상아동은 수화와 음성단어를 동시에 지각하는 것이 음성단어 지각이나 학습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음(Giezen, Baker & Escudero, 2014). 즉 수화 의사소통이 인공와우를 시술받은 모든 농아동의 음성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농 가족에게는 일반적인 발달 정보뿐만 아니라 청력손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농아동 및 농성인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인공와우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수화의 효과성을 주제로 다룬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수화와 관련된 정보도 동시에 알려 주어야 할 것임.
- 외국의 경우, 농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Mom and Dad, Your Deaf Child is OK!’ DVD와 같은 청각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해 영상자료 및 책자를 제작하고, 정보를 지원하고 있음.
- 농아동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방법 등 효과적인 언어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함.
- 농영유아를 대상으로 그들이 제1언어에 능숙할 때 제2언어로 더 효과적인 전

이가 나타난다는 것에 대한 성공사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덴마크 Kastelsvej 농학교에서 이루어진 성공적인 이중언어교육에 관한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2차 언어인 덴마크어의 지도에서 수화를 덴마크어 지도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였음. 즉 알지 못하는 덴마크어 단어와 표현, 문법적 관계에 대한 설명, 과제의 지시 등에서 수화를 사용하였음 (최성희 역).
  - 농인 55명의 이중 언어능력을 조사한 결과, ASL능력과 영어기술 간 정적 관계성이 확인되었음(Freel, Clark, Anderson, Gilbert, Musyoka, & Hauser, 2011).
  - 31명의 농인 수화자를 대상으로 ASL 구문능력과 담화이해 수준을 조사한 결과, 수화와 문자노출 간 상호관계성이 입증됨(Chamberlain & Mayberry, 2008). 즉 능숙한 농인 독자들이 그렇지 못한 농인 독자보다 수화구문능력 수준과 담화이해 수준이 더 높았음.
- 현재 농학교에서는 농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수화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농학교는 일반학교와 동일한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청각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역별 내용 체계에서 언어 관련 과목인 국어와 영어교과에서만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 농학교 교사들의 수화 능력이 교과지도를 할 만큼 충분하지 않으며, 농학교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은 농학생의 특성 이해와 수화능력이었음(김경진 등, 2013).
- 농학교 교사와 농학생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완전히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농학생들은 수화도 매우 부분적으로 접하게 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접하게 되어 1차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수화언어 습득에 어려움을 갖게 됨. 또한 교사와 학생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교육과정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함으로 인해 농학생들은 문해능력과 학업 성취가 낮음.

- 따라서 농학교에서는 농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수화교육이 필요하며, 수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방안으로 교사의 수화능력향상, 현실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과 보급을 강조함(권재일, 2009).
- 농성인들도 직장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대부분의 농인은 수화를 할 수는 있지만 수화에 대한 이해가 제약적이었는데 대부분의 농인들은 수화를 배우는 것이 한국어 습득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음(권재일 등, 2009). 이에 농성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수화교육체제도 마련되어야 함.
- 요약하면, 농인들의 언어생활을 위하여 수화능력의 향상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농영유아기부터 농성인까지 수화교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4. 수화 연구

- 수화연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체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수화연구는 단기연구보다 장기연구들이 많을 수 있으므로 국가 및 대학 등 재정지원과 관련된 연구도 선행되어야 함. 이에 수어연구소(가칭)를 세워 수어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팀을 만들어 조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다양한 언어학분야의 연구 주제들은 주로 유럽과 미국에 있는 여러 수화연구소에서 주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짐(홍성은, 2013).
  - 수화를 연구하는 기관은 열거한 것보다 많지만 세계 우수 수화언어학연구소들을 나라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독일(함부르크 대학교 수화와 농인의 의사소통 연구소), 영국(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농 인지와 언어 연구소, 맨체스터 대학교), 네덜란드(네이메헌 라드바우드 대학교, 암스테르담 대학교, 네이메헌 막스플랑크 심리 언어학 연구소), 오스트리아(클라겐푸르트 대학교, 그라츠 칼프란첸 대학교), 스위스(바젤 수화 연구 센터), 프랑스(파리 8대학교), 스웨덴(스톡홀름 대학교), 미국(워싱턴 겔러멧 대학교, 인디애나 퍼듀 대학교,

코네티컷 대학교, 뉴멕시코 대학교, 텍사스오스틴 대학교,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주립 대학교, 호주(매쿼리 대학교), 이스라엘(하이파 대학교), 홍콩(홍콩 중문 대학교), 브라질(산타카타리나 대학교)

- 위에 열거한 기관들은 수화의 구조를 분석할 때 기술적 방법을 제공하며, 이 기관들에서는 언어학자가 수화의 구조, 규칙, 패턴을 실제 사용자가 쓰는 대로 기술함. 또한 다양한 방언과 변이형에서 볼 수 있는 언어의 다양성은 그 자체로 기록함(예, 독일 함부르크의 ‘수화와 농인의 의사소통연구소’에서 만든 수화전문용어사전).
  
- 수화는 널리 통용되는 문자체계가 없어서 농 사회의 규모가 작아지면 다음 세대로 수화를 전하는 것이 힘들어지며, 수화에 대한 연구는 구어 연구에 비해 역사가 짧기 때문에, 수화 어휘와 수화의 문법화에 관련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수화코퍼스 구축을 통해 국가의 수화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의 농인과 청인들을 위해 수화 자료를 저장하는 것이 필요함(홍성은, 2013).
- 수화 코퍼스는 영국 수화, 네덜란드 수화, 독일 수화, 스웨덴 수화, 아일랜드 수화, 호주 수화, 미국 수화, 프랑스 수화, 폴란드 수화, 스위스독일 수화, 뉴질랜드 수화에서 찾아볼 수 있음. 유럽에서 코퍼스에 대한 요구는 수화 언어학자 간의 과학적 토론과 협동의 필요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09년에는 수화 코퍼스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지식을 수집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화코퍼스네트워크(SLCN, A Sign Linguistics Corpora Network)가 설립되었음.
  
- 한국수화 및 관련 연구는 1983년에 처음으로 1편이 발표되었으며, 그 후 2009년 2월말까지 122편, 2009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61편이 발표됨.
- 122편중에는 석·박사학위 논문이 72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50편이었음. 수화문법에 관한 논문 23편(한국수화 단어의 구성 등에 관한 연구, 한국 수화의 비수지 신호에 관한 연구, 한글식 수화 표준화 연구, 한국수화 문형 연구), 수화습득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12편(대체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수화 습

특), 수화통신 등에 관한 연구 47편, 수화와 관련된 비교 연구 9편, 수화통역 및 관련 연구 1편, 수화에 대한 태도 연구 2편, 기타 수화 관련 연구 9편이 포함됨(한국청각장애교육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9).

- 61편중에는 석·박사학위 논문이 28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33편이었음. 61편의 논문은 수화문법에 관한 논문 15편, 수화습득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15편, 수화통신 등에 관한 연구 6편, 수화와 관련된 비교 연구 12편, 수화통역 및 관련 연구 1편, 수화에 대한 태도 연구 1편, 이중 언어와 관련된 연구 3편, 기타 수화 관련 연구 4편이 포함됨. 최근에는 수화의 언어학적 측면과 이중 언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수화는 지역적, 계층적으로 다양하므로 한국수화의 원형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농인의 수화를 수집하고 축적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 수화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임. 이에 수화 코퍼스 구축 및 한국 수화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가 필요함.

○ 홍성은(2013)은 수화 언어학의 최근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수화 언어학에는 아직 연구되지 않은 영역이 많으나 최근 다양한 주제를 다룬 수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짐.
- 미국이나 유럽, 호주의 초기 수화 연구들은 소위 분류사나 일치동사 등 형태론적 주제에 대한 기술이 많았음.
- 최근 ‘수화 연구의 이론적 이슈(Theoretical Issues in Sign Language Research, TISLR)’라는 국제 학술 대회에서는 사회 언어학, 운율학, 비수지 신호, 심리 언어학, 토착 수화와 이중 언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
  - 사회 언어학자들은 수화의 변이를 연구 분석함(Schembri & Johnston, 2013): 영국 수화(BSL) 연구(Fenlon, et al., 2013), 미국 수화(ASL)연구(McCaskill, et al., 2001).
  - 시각 언어인 수화의 운율 체계는 구어의 운율 요소인 강세(prominence cues)나 억양(intonation)(Wilbur, 2000; Sandler, 2012)과 유사한 자질들을 연구됨.

- 비수지 기호 분야에서는 시선 추적 기술(eye tracking technology)이 수화에 서 시선과 눈의 움직임을 연구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음(cf. Thompson, Emmorey & Kluender, 2009).
  - 심리 언어학에서는 fMRI와 같은 기술의 사용이 수화 정보 처리 과정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함(Newman et al., 2010).
  - 많은 수화 언어학자들은 전 세계 곳곳의 토착 수화를 기록함: 알리푸르 (Alipur) 수화(Sibaji 2012), 이스라엘 내 알제리 유대인 수화(Lanesman & Meir, 2012), 카타 콜록(Kata Kolok, 인도네시아 발리 수화(de Vos, 2012)
  - 이중 언어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는 코드 블렌딩(code-blending)이 문어 (written language)의 인지에 주는 영향뿐만 아니라 이중 언어 구사의 발달 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함(Morford et al., 2011).
- 요약하면, 한국수화 및 관련 연구는 1983년에 처음으로 1편이 발표되었으며, 그 후 2009년 2월말까지 122편, 2009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61편이 발표됨. 최근에는 수화의 언어학적 측면과 이중 언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수화코퍼스 구축을 통한 수화언어학적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5. 농인과 수화기반 정보 접근

- 농인의 정보 접근권이라는 것은 어떠한 정보에 접근하든지 불편을 겪지 않는 것임.
- 언어기반이 부족하고, 청각정보의 수용이 제약적이며, 사전경험과 언어 또는 사전지식과 언어 간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읽기에 어려움이 있음(Moores, 1987; McAnally, Rose, Quigley, 1994).
- 현재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 스마트폰 등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음. 이에 장애인들은 PC기반의 정보접근은 좋아졌으나 역량과 활용 면에서 일반국

민 대비 낮은 수준임(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 농인들도 PC기반 정보접근이 원활해져서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으며 범세계통신망(World Wide Web)의 대중화와 보편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음. 그러나 농인들은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즉 동영상에 자막만을 넣는다고 해서 농인들이 모든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움.
  - 수화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SMILE, ShowSounds SigningWeb ATBG SignOn History of the Deaf 등과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으며(예, Debevc, Kosec & Holzinger, 2011), 웹 페이지 인터페이스 장치의 일례로 signlinking이 개발되었음(예, Fels, Richards, & Lee, 2006). 또한 수화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수화해설자의 설명을 비디오로 보여주는 방법(Sign-language-videos with human interpreters) 또는 아바타가 번역해 주는 방법(Avatar-based sign language translations)등이 활용되고 있음(Möbus, 2010). 이러한 정보 제공은 농 사용자들이 웹을 통해 자료를 읽어낼 때 자료 내용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임.
  - 이에 농인들이 웹에서 제공되는 문자정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제1언어인 수화로 제공해 주어야 함(Debevc, Kosec & Holzinger 2011; Fels, Richards, & Lee, 2006; Möbus, 2010). 따라서 수화 해설 모듈을 개발하여 농인들의 웹 접근성을 증진시켜 주어야 하며, 다양한 자료들을 수화로 번역하는 작업 및 수화동영상 자료 개발이 수반되어야 함.
- 특히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농인들이 일상생활, 교육, 고용, 사회 참여, 문화 경험의 확장을 위해 지식 정보접근이 중요하다면 현재 수화영상 도서가 대상(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분야(요리, 요가, 음악, 미술, 응급처치 등) 등 수화기반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함.
  - 미국 내쉬빌 도서관에는 농문화, 농정체성, 요리, 요가, 응급처치 등 생활에 필수적인 도서 및 자료들을 수화로 번역하여 도서 및 DVD로 제공하고 있음([www.library.nashville.org](http://www.library.nashville.org)).
  - 한국 국립 장애인 도서관은 2007년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로 시작되어 2012년 개정 도서관법의 시행과 더불어 설립됨(nlid.nlid.go.kr). 2012년 현재 수

화영상 도서 169권을 보유하고 있음.

- 더욱이 중요한 것은 다양한 정보를 집대성 할 수 있고, 수화동영상자료들을 농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초점집단인터뷰 결과와 같이, 수화 관련 서적이 협회, 종교단체 또는 개인(교수, 연구자) 중심으로 소량으로 출판되고, 시중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개인적으로 수소문해서 구입해야 하므로 불편함을 호소함.
  - 이에 수화기반 자료들이 국립장애인도서관과 같은 DB화 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수화 관련 서적 출판 시 전자출판도 동시 출판하는 것이 필요함.
  - 수화에 대한 자료, 농인들이 전국의 시도에 수화통역센터들이 있지만 종합적인 정보를 받는데 한계가 있음. 생활 전반에 관련된 정보를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한다면 농사회 관련된 사람들 외에 다른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임. 즉 하나의 홈페이지 안에 범주를 만들어 현재 개발된 사이트들을 링크해서 집대성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위에서 말했듯이 농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음. 현재 농인을 위한 정보접근 사업들은 정보화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능력은 매우 좋아졌음. 그러나 웹 접근성이 낮은 것이 문제임.
  - 자막기반의 웹 콘텐츠들은 많으나 수화기반의 웹 콘텐츠들이 상당히 부족하여 문해 능력이 낮은 농인들의 경우 충분한 정보를 받기 어려움.
  - 이에 수화기반의 웹 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되며 한국 웹 콘텐츠 평가원에서 웹 접근성 수준을 구분하여 웹사이트를 평가하고 있는데, 농인들을 고려하여 수화 기반 웹 접근성이 강화되도록 평가지표의 개발이 요구됨.
  
- 또한 수화는 널리 통용되는 문자체계가 없어서 농 사회의 규모가 작아지면 다음 세대로 수화를 전하는 것이 힘들어짐. 수화 코퍼스 구축과 수화문자개발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음.
  - 특히 코퍼스구축은 국가의 수화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의 농인과 청인들을 위

- 해 수화 자료를 저장하는 것에 도움이 되며, 코퍼스는 특정 언어의 말들을 모아서 과학적으로 편집한 것(말뭉치)으로 현존하는 수화의 다양한 변이들, 지역 수화와 수화 방언의 지리적 분포를 지도로 작성할 수 있음(홍성은, 2013).
- 농인의 문해 능력 향상을 위한 한 방법으로 수화문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현재 자연수화를 표상할 수 있는 문자 상징체계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음(Flood, 2002). 수화문자란 수화의 쓰기 체계로 수화를 손모양, 동작, 얼굴표정으로 나타내는 시각적 상징으로([www.SignWriting.org](http://www.SignWriting.org)), 현재 한국 수화는 자연수화를 표상할 수 있는 쓰기체계가 없으므로 수화문자 개발이 필요함.
  - 요약하면,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농인들이 일상생활, 교육, 고용, 사회 참여, 문화 경험의 확장을 위해 정보접근이 매우 중요함. 농인들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음. 수화 기반 정보접근을 통해 농인들이 보다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나아가야 할 것임.

# Ⅲ

---

## 한국 수화 환경 실태 및 요구

1. 전문가 자문 .....	31
2. 포커스집단인터뷰 .....	38
3. 공청회 .....	63



### Ⅲ. 한국 수화 환경 실태 및 요구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농당사자와 수화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초점집단인터뷰,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됨. 각 과정을 통해 얻어진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 전문가 자문회의

##### 1) 연구 절차

전문가의 자문은 3회를 실시. 1회에는 연구의 방향과 초점집단인터뷰 참가자들의 질문을 선정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2회는 공청회 후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안)의 중점 추진 과제와 세부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되었고, 3회는 보고서 작성 후 예산 및 내용 심의를 위해 수행되었음.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9명의 자문위원을 선정하였음. 1회 자문회의를 위해 선정된 6개 문항(세부문항포함 전체13개)을 자문위원들에게 사전에 제공하여 충분히 생각하고 올 수 있도록 한 후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음. 2회와 3회 자문회의는 내용이 많아 서면으로 의견을 받음.

##### 2) 의견 결과 정리

전문가 9명에게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답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1) 수화의 지위와 수화의 지위 향상을 위한 방법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 수화 지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한국에서 수화의 지위는 낮다고 본다. 지금까지 수화는 언어로서 보다는 서비스의 하나로서 인식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건축 전문가 A, B)

우리나라에서 수화의 지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예전에 비하여 급속도로 그 위상이 높아졌지만,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농 전문가)

수어를 언어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단일민족으로 단일 언어를 사용해 온 국가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어 이외의 언어에 대한 수용성이 낮기 때문에 수화 지위가 낮다.(농 전문가)

수화 지위 향상을 위해 전문가들은 국가차원에서 수화를 공식 언어로 그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누구나 수화를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화접근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즉 농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함.

수화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농학교 교육에서 수화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하고, 수화교재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에서는 농인교사 배치 의무화, 수화를 교육과정에 포함, 수화 교과용 도서 제작 및 보급,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수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건청 전문가)

수화를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는 수어기본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화를 보급하여 일반 사람들이 수화를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 모든 일에서 수화통역이 당연히 즉시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공서, 은행, 대학병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등 사회 다방면에 수화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법규와 같은 국가적 지원이 요구된다.(농 전문가)

각 기관의 안내 멘트를 수화로 제공하고, 문자정보제공서비스 의무화해야 하며, 관공서의 웹정보 서비스 실시를 확대 및 수화통역지원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건청 전문가)

현재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있는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수화통역 및 빠른 워드작업이나 속기지원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부모들의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농인의 특성에 맞는 학습 교재를 제작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농 전문가)

(2) 농인들의 수화 사용 환경 구축과 환경 구축 방안은?

모든 전문가들은 농인들을 위한 수화 사용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음에 동의하였고, 한국어 사용자가 주류화된 사회에서 농인의 언어인 수어가 배제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부모와 주요 정책입안자 및 전문가들의 농인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거의 없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하며, 농인당사자들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가 매우 부족하고, 수어 관련 연구가 미비하여 환경구축이 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재활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인한 수어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인 것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농 전문가)

수화환경은 농인들끼리 있을 때를 제외하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 수화를 할 수 있는 대화자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화사용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건청 전문가)

전문가들은 농인들을 위한 수화사용 환경 구축 및 개선을 위해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정보접근, 수화통역 및 문자통역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농인들의 문해교육 지원과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부모 및 사회 인식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함.

수화사용 환경 구축을 위해 한국수어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인 수어사용자에 대한 지원, 수어 전문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설립, 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수어 교과목 신설, 수어 관련 연구 지원 및 중장기계획 수립, 전문 인력 양성, 의사소통 접근성 센터 운영, 농인 교육 지원 센터 운영 등이 필요하다. 특히 수어를 기반으로 제1언어를 습득하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어 문해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농 전문가)

일부 정책에서 수화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나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 수화통역사의 국가공인 지원 등이 있기는 하지만, 수화에 대한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 통합교육 환경에 따른 수화습득 시기가 늦어지는 점, 일반인의 수화에 대한 인

식이 개선되지 못한 점, 수화가 국가의 언어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건청 전문가)

청각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수화에 대한 거부감 역시 학생들이 수화를 배우는데 방해요소가 된다. 전보다 자녀교육에 관심과 열정이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청각장애임에도 청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처럼 키우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자녀들이 구화만 쓰기를 바라고 수화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농인 집단 속에서 키우기 보다는 일반학생과의 통합적 환경에서 교육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청각장애학생 스스로가 자신에게 맞는 언어를 선택하여 소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지, 교사나 부모가 선택하여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부모의 고집으로 인해 청각장애 학생들은 건청인처럼 자라나도록 끌려 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수화가 대중화되고 일상적이 되어 그 위상이 높아진다면 부모들의 인식도 변할 것이다. 수화의 대중화를 위한 보급 운동과 함께 청각장애 자녀를 둔 건청인 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사업도 필요하다.(농전문가)

앞으로 수화사용 환경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문자언어 중심의 사회가 몸짓 언어 중심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농인들의 문해 교육은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수화기본법을 계기로 수화와 농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이를 계기로 농인들의 사회 진출도 확

대될 수 있을 것인데, 농인의 문해력이 그 원동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청인-농인' 모두에게 '수화능력-국어능력(문해능력)' 은 동시에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해교육 기관 마련, 농인 맞춤형 교육 및 교재 편찬, 농인 문해력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의 지원 및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건청 전문가)

### (3) 일반인들의 수화인식과 이를 위한 수화 인식 개선 및 보급 방법은?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의 수화인식이 수화지위와 관련된다고 하였으며, 현재 수화지위의 낮음이 수화인식의 낮음과 관련이 깊다고 하였음. 즉 전문가들은 현재 일반인들의 수화인식이 매우 낮다고 하였음. 이에 이를 위한 수화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수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농사회와 청인사회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확장되어야 함. 예를 들어 한글날을 활용하여 소통의 맥락에서

수화언어 이슈화하여 홍보, 신문기고 활용, 만화 및 동영상 제작보급, 교과서, 공익광고, 국립국어원 사이트 및 지식채널 등의 매체 활용 등을 제안하였음.

일반인들은 수화를 미화하거나 비하하는 경향이 강하다.(농 전문가)

수화인식은 수화의 지위 향상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수화의 보급이 가능할 것이다. 청인의 수화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장소에서 수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중요 알림 내용의 경우 키워드 중심으로 수화 표현을 덧붙이거나, 공익 광고 등에서 수화 사용을 늘리고, TV 드라마에서 수화를 사용하는 등장인물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등의 방법이 있겠다. 사람들의 인식 개선에 대중매체가 가장 큰 역할을 하므로 대중매체를 통한 수화 노출이 중요하다.(건축 전문가)

특히 일반인들의 수화인식 및 농인의 수화인식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특히 조기 수화교육의 이득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으며, 자연스럽게 수화언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빈번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사람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교육이고 시기적으로 어린 시기에 접한 보고 듣고 배운 내용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인식과 사고방식을 결정해 준다. 일반인들에게 수화가 더 이상 신기한 관심거리나 특별한 대상이 아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대상으로 인식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수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치원, 초등학교의 교육 과정 안에 수화관련 내용을 넣어서 교육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아직 편견이 형성되지 않은 백지 상태의 어린 아이들은 수화를 신기하다든가 이상하다든가 특별하다는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대상으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지 않을까?(농 전문가)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의 수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요구된다고 하였음.

일반인들의 수화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화교육을 하나의 과정으로 넣어 보급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청인의 경우는 <청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이다. ~(중략) 청인 문화와 농인문화 모두를 존중하고, 두 문화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청인사회(농인사회)에 대한 배타적 감정 없이 청인(농인)과 어울리는 이중문화를 지향하는 사고를 길러야 한다. 그렇다고 농인문화와 청인문화의 차이점을 있는 그대로 고집하며 평행선을 그어 나가기만 하기보다는 문화 차이의 정도를 줄여나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양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농 전문가)

국민에게 수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공무원 시험 등에 제2외국어의 하나로서도 채택하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 또한 농인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농사회의 문화예술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건축 전문가)

농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부나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문화관광부의 장애인 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재정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가장 우선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장애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다. 일반 예술인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청각장애 예술인의 경우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여 농인들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문화예술진흥법에 예술적 능력을 구비한 장애인도 일반인처럼 문화예술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문화예술 강사를 꼭 일반인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중에 예술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농 전문가)

#### (4) 수화 연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및 지원은?

전문가들은 현재 수화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수화언어에 관한 연구가 신뢰롭고 타당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영역(언어, 국어, 일반 교육, 농교육 등)을 융합시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수화의 언어적 측면에 대한 연구에 특히 많은 부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국내에서 수화에 대한 연구는 특수교육이나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어서 언어적 차원의 수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수화연구를 통해 수화의 특성을 규명함과 동시에 음성 국어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농인의 소통 능력 향상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건청 전문가)

또한 수화의 보급, 교육, 연구, 정책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수화연구소를 설립함과 동시에 농언어학자 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함.

정부 산하기관 한국수어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며, 민간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수어연구의 지원이 필요하다. 위원회 구성은 한국수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식견이 있는 농인 당사자 및 전문가,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농 전문가)

수화연구소는 앞으로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전 국민의 수화생활을 위한 수화연구소가 필요할 것이다. 그 구성은 수화의 보급, 교육, 연구, 정책 기능 지원 등 다양한 부분으로 나뉘어야 할 것이다. 수화 연구소는 수화를 특성화하는 연구도 수행해야 하지만 다른 인접 학문 특히 언어학적 기반 아래 이루어진 성과들을 활용하는 데에도 주력해야 한다. 따라서 언어 및 사회 관련 연구소들도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건청 전문가)

수화 사용이 가능하고 언어학적 지식을 갖춘 연구자 양성이 필요하다. 기존에 수화를 다뤄왔던 분야는 물론이고 인문학까지도 그 저변을 확대하여 수화 연구자에 대한 장학제도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수화 연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건청 전문가)

수화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당사자인 농인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와 연구자로 양성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건청 전문가)

전문성있는 농인들에게 우선 기회를 부여하면서 농인과 청인이 적절하게 어울려 함께 하는 작업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농 전문가)

소수의견으로 자연수화를 중심으로 수화어휘사전 편찬,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수화 연구, 수화코퍼스 구축 등에 대한 사업이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함.

증장기적인 계획으로 한국수어코퍼스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수어 기반 한국 수어 대사전 편찬이 필요하다.(농 전문가)

자연수화를 중심으로 수화어휘사전 편찬, 남북한 수화 연구를 통해 통일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건축 전문가)

(5) 수화 지위 향상, 농인들의 수화습득 및 교육, 수화 인식 개선 및 보급을 위한 지원 이외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전문가들은 3가지 주제외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으로 농인들이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한 연구와 청각장애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인성, 생활, 학습 측면에서 포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및 제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함.

(6) 가장 우선해서 수행해야 할 과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수화연구측면을 가장 우선해서 수행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수화통역 지원의 확대 및 의무화 방안 등 수화 환경 구축 및 지원 과제였음.

## 2. 포커스 집단 인터뷰

### 1) 연구 절차

포커스 집단 인터뷰는 농인 7명과 청인 8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음.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으로부터 개방형 질문을 제작하여, 인터뷰의 질문내용으로 사용하였음. 인터뷰 질문은 수화 사용 환경, 수화의 인식 개선 및 보급, 수화연구 활성화, 기타 영역을 포함하여 총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됨.

## 2) 의견 결과 정리

개방형 질문으로부터 산출된 응답 내용을 네 가지 영역별로 구분지어 다음과 같이 정리함.

### (1) 농아동 및 농학생을 위한 수화교육 방안

#### 가. 농아동 및 농학생을 위한 수화교육 방안

교육과정에 수화 교과를 신설하고 농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 학년별 일정 시간 이상 수화를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수정해야 함.

농아동 및 농학생을 위한 수화교육 방안은 우선 교육과정에 수화 교과를 신설하고 농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학년별 일정 시간 이상 수화를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수정해야 해야 합니다.(청인 H)

예를 들어서 서울 농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유치원 교육을 시작할 때 언어교육(구화교육)에 집중해요,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익숙하다면 일반학교로 전학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니다, 일반학교에 입학해서 수업을 하고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놀다 보면 한계가 오죠,,,,,,,지금 어린이집에서 교육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미국처럼 수화교육을 그 안에 삽입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농인 B)

수화 및 수화통역학과 관련 전공을 이수한 농교사 배치가 필요함. 수화교육 담당자는 자연언어 소유자이거나 기본적인 수어학 과정을 이수한 농인이어야 함.

수화구연가 교육(양성)과정을 수료한 수화 구연가를 배치해야 해요, 수화 및 수화통역학과 관련 전공을 이수한 농인을 농학교의 교사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되어야겠쇼, 수화교육을 할 강사는 자연언어 소유자이거나 기본적인 수어학 과정을 이수한 농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수화강사를 농학교에 파견하는 것과 그에 따른 농학교내에서의 지위 보장에 관한 차후 논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수화 구연가는 보조교사의 직급으로, 관련 전공 이수 농인, 수어강사는

교사와 같은 직급 보장에 관한 방안이 필요하겠죠, 또한 '소리를 보는 사람들'과 같은 대안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소보사'는 훗날 수화교육에 있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농인 E)

농아동 및 농학생의 수화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농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청인 교사들에게 강제적인 수화교육 필요도 필요하겠죠, 무엇보다 농교사 우선적 채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농인 F)

'수화교사'라고 표현된 부분이 농인이어야 합니다, 청인 중에서는 수화를 익숙하게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제스처부터 사용해 가면서 수화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농선생님이 계셔야 팀 티칭이 가능하죠,,,,,,그 과정 안에서 유치부부터 초등, 중등, 고등부까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청인 A)

농아동 및 농학생을 대상으로 수어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2Bi를 통한 수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 있고 책임감 큰 농강사를 농아동 및 농학생이 있는 장소에 파견하거나 농아인협회에서 농아동 및 농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수어교실이 있어야 해요, 또 농선배와의 만남을 통해서 멘토를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수어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야죠, 또한 농아동 및 농학생이 수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어교육을 실시할 때 오로지 수어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어를 통해서 농정체성, 농역사, 농문화, 교양 그리고 인성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농인 G)

특수학교의 기존 교사를 대상으로 의무 수화 교육의 기회 제공해야 함.

특수학교의 기존교사는 강제적으로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각장애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순환근무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순환근무를 하더라도 청각장애학교에 자원하는 교사가 우선 배치되게 말이죠,(청인 F)

전국 농학교에 교원 외 수화통역사 배치 및 농학교 교사의 수화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수 제공이 필요함.

전국 농학교에 교원 외에 수화통역사를 1명 이상 배치하면 좋겠어요, 또 전국 농학교 교사의 수화능력 향상을 위해 수화통역사반 수준의 연수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전국 청각장애 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 주기적인 수화도, 농문화 연수도 제공되어야 하는데,,,,,,최소 연 1회 이상 전문 수화통역사 이상의 강사를 초빙한 수화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봐요.(청인 H)

청각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일반학교에 FM증폭기 장착과 필기통역, 수화통역이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청각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일반학교에 FM증폭기 장착과 필기통역, 수화통역이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필요가 있어요, 수화기본법 제정 시 병원과 학교(유치원)에서 동시에 청능훈련과 수화교육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되는 것도 필요해요, 특히 청각장애인들이 언어의 선택권(수화, 구화 등)을 가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합니다.(청인 F)

병원 및 학교에서 동시에 청능훈련과 수화교육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수화교육환경을 어렸을 때부터 제공해서 어떻게 키우고, 수화를 한 아이의 언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부모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언어고 인정되지 못합니다. 현재 부모입장에서는 일반 청인의 음성언어를 언어치료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수화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수화를 언어발달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청인 A)

인공와우수술을 하기 이전에 이점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부작용, 후유증, 다른 차선책으로 수화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농특수학교 교사도 참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꼭 이 방법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청인 B)

의사말만 듣고 농인에 대한 기능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조금 답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 정보도 없이 인공와우 수술할 수 있다고 그 길만 안내한다면 수화교육에 대한 정보는 없이 인공와우 쪽으로만 길러지고 나중에 수술이후에 수화를 배우는 방법도 있었구나 뒤늦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태어나서 청력검사 한 후에 처음 시작부터 2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넷에 '수화' 라고 쳤을 때 농인, 청각장애인,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농인 C)

조기교육을 할 때 시청능훈련, 언어치료 같은 거 말고도 수화교육도 병행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조기에 수화교육이 언어치료, 청능훈련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인공와우 수술 후 법적으로 수화와 함께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부모의 수화교육도 중요한데, 청각장애학생을 둔 부모에 대한 수화 인식 교육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청인 G)

이중언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함.

심적 환경이 필요한데요, 인식 부족 및 욕심으로 학생이 어릴수록 농학교 안에서조차 수화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부모교육, 공익광고 등으로 인식개선을 통해 학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화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적 환경도 바뀌어야죠, 농학교 교사의 인사교류 시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수화가 언어인 만큼 익숙하게 사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국공립 농학교 및 일부 사립 농학교에서는 수화가 익숙할 즈음에 인사교류가 있어, 수화가 익숙한 교사가 떠나고 수화를 모르는 교사가 발령받아와 수화의 공백이 커요, 그만큼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이니까 일괄적인 인사이동 대신 융통성 있는 인사 정책의 제도적 뒷받침 및 학교장의 권한이 주어졌으면 해요.(청인 H)

지금 농학교에서 구화학생들, 아니면 일반학교 특수반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언어치료하는 방법을 보면 구화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인들이 처음부터 구화교육을 하는 것보다, 수화교육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수화교육중심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국어는 한국어 교육을 말하는 건데요, 구화교육을 먼저 시키기보다 수화교육을 먼저 시키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농인 B)

일반아이를 낳으면 6개월 이후에 웅얼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농아동은 그런 표시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인지적으로 수화를, '인지적 수화(=공간적 수화)'를 노출시키는게 필요한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인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습득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해서 일반아들과 뒤쳐지지 않게 동등하게 발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림, 사진을 보여 주고, 시각적으로 습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농인은 시각중심이기 때문에, 한국사회는 청력 중심인데, 시각적으로 집중해서 물건, 콘텐츠가 많이 노출되고, 이것을 통해서 뇌발달에 자극을 주는게 제일 중요한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농인 D)

나. 농성인을 위한 수화교육 및 수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 방안  
전문 강사와 교재, 교육과정 등이 없기 때문에 방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기본적으로 200개의 지부가 있으니까 지부 중심으로 회원들이나 교육,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방법을 잘 몰라요. **전문 강사도 없고, 교재도 없고**, 다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드웨어적으로 그냥 기관을 세우기 보다는 뒤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지원기관이 세워 지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커리큘럼, 교재, 교수방법, 여러 가지 연구해서 발표하고 양성하고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뒤에서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뒤에서 지원하는 기관이 세워지면 그 곳을 중심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훈련시키고, 연수, 연구하고 지원해서 책을 발간하고 지방에 있는 200개의 지부들에게 지원해서 그것이 하나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견도 하고**,.....(청인 A)

문화적 수준으로 전환하여 수화교육을 실시해야 함.

수화교육은 단순한 어학 차원이 아니라 문화적 수준으로 전환하여 접근하여야 하고, 수화교육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수화도 잘 하고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이 있는 농인에게 한국수화로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수화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농 어르신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런 분들에게는 한국수화와 그와 관련된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곳에서 한국수화와 한국어를 모르는 농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없고, 단순한 흉내내기에 불과하죠, 따라서 교육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농인 E)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수화교육이 필요함.

협회 차원에서 농성인을 위한 수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수화 환경은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니다. 예를 들어 5·60대와 2·30대의 수화사용에 있어서 단어뿐만 아니라 문법 등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수화교육이 필요하고 수화와 한국어가 능통한 강사 배출이 필요합니다. 이는 장기간 투자가 필요합니다.(청인 G)

수화와 한국어가 능통한 강사 배출되어야 하며, 농 성인을 가르치는 자는 수화교육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요구됨.

지금 수화통역사 자격이 있어도 수화문제가 있는 것은 결국은 교육의 문제입니다. 수화교육이 전국이 다 국어 가르치듯이, 단어만 가르치고, 수화에 대한 이해, 농인에 대한 이해 없이 수화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만 잘 움직이는 것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수화교육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사회에서 농인강사가 한다고 하면 다 거부하죠, 그런데 현재 자격증은 없습니다.(청인 C)

현재 서울의 경우 문해교육이 비전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임. 이에 농아인 협회 산하 각 지부에서 일관성 있고 알찬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서울에서는 25개중에서 문해교육반은 하는 곳이 3군데~4군데 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수화는 잘하는데 문해능력이 부족한 분들, 한국어 배우고 싶어서 농성인들이 많이 오시고요, 한국어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부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홍보를 하게 된다면 아마 농어른들이 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늦게 수화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농성인들을 위한 교육, 예를 들어서 서울 농아인 협회를 보면 수화교육전문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교육원을 만들어 두고 저 같이 수화 쓰는 사람들은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수화는 못하고 한국어는 잘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교육원을 만들어 두면 기본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농인 B)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수정, 보완하여 양적, 질적으로 꾸준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수화통역사 보수교육처럼 며칠씩 워크샵 받고, 몇 년 하면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하고 또 교재가 있으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교재를 만들려면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청인 D)

현재에도 배움의 부족으로 문해 능력이 낮은 농인분이 계십니다. 농아인협회 곳곳에서 농성인을 위한 문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전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많아요, 농아인협회 산하 각 지부에서 일관성 있고 알찬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교재, 일정, 계획 등,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정 및 보완하여 양적, 질적으로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야 할 겁니다, 이러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자신감을 심어

주요 지식의 폭을 넓히어 일반 사회로 진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겁니다.  
(농인 G)

농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수화교육을 하는 곳이 많아질 필요가 있어요, 젊은 농인과 연륜 있는 농인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협회 차원에서 새로 나온 수화 단어를 심의하여 공식적인 수화 단어로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하고,.....(농인 F)

농인 평생 교육원이 제도적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체제 정립이 필요합니다, 농성인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교육기관 설립이요, 수화와 한국어 교육에 대해 다문화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합니다.(청인 F)

우선 전국 농아인협회 및 복지관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점은행제 등의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청인 H)

수화 중심의 교재를 개발하여 한국어 교육과 연계시켜 주어야 함.

수화 중심의 교재를 개발하여 한국어 교육과 연계하는 것이 좋아요, 농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도 하고, 농학교를 활용하여 농성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해요, 예를 들어 현재 서울농학교에서 초등부를 졸업한 농성인자들을 위한 중등부 교육 실시 중입니다.(농인 F)

다. 수화교원 양성 방안

자연 수화 사용자 및 수어학 과정 이수자에 관한 항목을 수화교원의 자격 조건에 추가해야 함. 수화 능력이 검증된 자가 대학의 수화 강좌를 맡아야 함.

자연 언어로서의 수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기본적인 수준의 수어학 과정 이수를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학, 협회 어디서 진행을 하던지, 교수 및 강사 자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학에서의 교

육은 어학 또는 관련 전공을 졸업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농인 E)

장애영역 중심의 교사 양성 체제로 회귀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처럼 대학원 수준에서 청각장애교사의 양성이 필요하겠죠, 대학의 수화 강사 섭외 시 수화 능력이 검증된 자로 강사 섭외해야 합니다.(청인 G)

수화교원 양성기관 선정, 교원 자격 부여 방법 및 수화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전문교육 연계해서 발전하면 좋겠고, 다른 지방 곳곳에서는 거기마다 하나씩 세운 다는 게 쉽지 않고,,,,,,,기본적으로 200개의 지부가 있으니까 지부 중심으로 회원들이나 교육,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방법을 잘 몰라요, 전문 강사도 없고, 교재도 없고, 다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청인 A)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세미나, 지역별 소규모의 세미나 및 토론회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유능한 수어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어교원 양성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습니다. 강사에게나 수강생에게나 크나큰 피해로 돌아오죠, 농아인협회 각 지부에서 수어교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수어교원 양성 이수 및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농인 G)

언제든 수화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먼저 구축되어야 하고, 언제 어디서든 수화를 교육받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해요, 특수교사 양성 시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과정에 수화를 전공필수로 지정하고 일정시간 이상 학점을 따게 하며 성적은 이수, 미이수로 처리하여 미이수 시 졸업이 안 되는 걸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사 자격증 보유자는 수화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요, 청인 H)

특수교육 관련학과에 수화 강좌를 6학점 정도 필수로 이수)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기초 강좌 3학점, 중급 강좌 3학점, 사립 청각장애학교 교사 선

발 시 수화능력 시험을 필수로 채택하게 하는 계획도 필요합니다.(농인 F)

수화전문, 수화전문이라고 하는데, 수화행정과, 수화특수교육과, 수화연구과, 수화미디어학과, 이렇게 세부적으로 학과가 생기면 더 좋지 않을까요.  
(농인 D)

라. 수화통역사 제도 개선 방안

수화통역에 대한 재정의와 문어를 반영한 통역이 필요함. 이를 위해 ‘쓰기-읽기’로도 통역이 확대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수화통역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언어에는 음성언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어 역시 언어인데, 그렇다면 통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수화통역을 ‘수화-음성언어’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쓰기-읽기’로도 통역의 영역 확대가 모색되어야 해요. 농인들이 현재 읽기-쓰기 통역이 필요한 분야에 취직해 있고, 또한 통역의 범위가 위와 같이 확대된다면 농인의 의견이 글로 기록되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농인 E)

수화통역사의 수화통역과 음성통역의 수준을 공개하여 농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

수화통역사의 수화통역과 음성통역의 수준을 공개하여 농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화를 잘 한다고 해서 수화통역을 잘 하는 것과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원텍스트와 수화통역 텍스트를 비교하여 수화통역의 실력을 공개해야 합니다. 음성통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농인의 알 권리 보장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화통역사를 선택하는 농인의 선택권 보장해야 합니다. 수화통역센터와 협회가 마구잡이로 수화통역사를 현장에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통역사 예약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농인들이 접속, 원하는 통역사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농인의 선택권 보장을 의미하고 투명성 역시 보장됩니다.(농인 E)

수화통역사를 선택하는 농인의 선택권 보장되어야 함.

수어통역사의 실력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수어통역사 제도 개선이 무척 시급하다. 수어라는 것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농인과의 만남 등 풍부한 경험은 정말 필수입니다. 준수어통역사, 수어통역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자격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준수어통역사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일정 점수를 취득한 사람에게 제공하고 수어통역사는 준수어통역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경험을 쌓은 후 시험에 참여하여 각 분야별로(학교, 병원, 법원 등) 일정 고른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한하여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수어통역사, 수어통역사의 보수 교육 및 세미나를 열어 자질함양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농인 G)

수준 높은 수요자 맞춤형 통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화통역사의 등급화가 필요함.

수화통역사를 여럿 만나 봐도 다 말이 안통하고 다 틀리고 수화통역사 제도가 조금 수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격증 따면 그게 끝이잖아요, 자격증을 수화교육, 의료관련, 법률관련,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수화통역사 자격증 하나로 모든 통역을 맡기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농인 D)

수화통역사의 등급이 4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미국처럼 실기시험의 단계 및 과목을 다양화해서 통역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화통역사 실기시험은 3과목을 한꺼번에 봐야하는데 2과목을 잘해서 그 분야에서 충분히 통역할 수 있어도, 1과목에서 과락하면 통역사 자격증 자체를 딸 수 없어서 인력과 재능의 낭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화통역사도 등급을 나누어 더 많은 사람이 쉽게 도전하고 도전한 후에는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해요. 농학교의 많은 교사들이 수화통역사 시험에 아예 도전도 안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등급화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청인 H)

시험실시 방법과 환경조성이 개선되어야 하고 수화통역사 배치가 늘어나야함.

최소 연 2회 실시했으면 하고, 필기를 서울, 대전 2곳에서 치는 것처럼, 실기도 서울, 대전 2곳 또는 더 여러 곳으로 나뉘어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해요. 현재 실기시험 장소 예를 들어, ○○의 시설이 노후한 것인지, 농아인협회에서 제작한 시험문제 동영상 파일의 음질이 나빠서인지, 소리가 울려서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시험 시작 전 안내 화면과 음성이 나올 때, 수험자들에게 적당한 볼륨 조절 시간을 주어야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데, 원천적으로 그런 시간이 없어서 소리의 울림이나 낮은 볼륨 때문에 힘들었죠. 저는 수능시험 감독을 5년째 했는데, 수능시험 듣기평가에서는 볼륨을 조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수화통역시험에서는 그런 안내도 없고 여유도 없었습니다.(청인 H)

병원, 관공서 등 수화통역사 배치가 필요하고, 공식 행사 시 수화통역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합니다.(농인 F)

제도의 전문화 및 세분화가 필요함.

미국처럼 등급제를 도입해서 명인통역사제도, 보건, 의료, 예술 등 전문영역별 통역사 제도가 마련되어야 해요. 수화통역사 학력이 신장되어야 하고, 수화 전문 교육 기관 지방에도 보급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화통역사의 고학력 필요하고 박사급 통역사 배출 장려되어야 합니다.(청인 G)

수화통역사 교육방법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보수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함. 학교뿐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준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함.

대학교, 농아인협회, 복지관, 종교단체, 및 개인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수화통역사 교육이 다 다르게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과제빵사 자격증을 따거나 공무원 시험을 본다면 시중에는 수많은 학원과 인터넷 강좌들이 있는데 반해, 수화교육기관은 드물고 수화통역사를 목표로 수화를 공부할 수 있

는 인터넷 강좌도 없어요, 그나마 수화교육기관에서도 수화통역사 과정이 1년에 1회 개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관에서 현실적으로 수화통역사반을 여러 번 개설하기가 어렵다면, 전국농아인협회 및 복지관 차원에서 인터넷 강의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보수교육 측면에서 보면 수화통역사 자격증 취득 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보수교육이 주기적이지 않고, 잘 실시되지 않아서 정작 수화통역이 필요한 농학교 교사들은 보수교육 시간을 맞출 수 없어, 많은 교사의 수화통역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보수교육 규정을 수정하거나, 보수교육 자체를 정비해야 합니다. 학교뿐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으로 함)에 따라 수화통역사가 꼭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지만, 개인이나 기관에서 수화통역사를 고용 또는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재정이 부족하거나 없다, 장차법이 제대로 실현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도 필요합니다.(청인 H)

(2) 수화의 인식 개선 및 보급

가. 일반인을 위한 수화교육 방안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수화' 선택 과목 개설이 필요함.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수화' 선택 과목 개설이 필요하고, 종업원 일정 수 이상 기업에 복지 담당자 또는 관리직원의 '수화' 연수가 의무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평생교육기관에 '수화', '수화통역사반' 개설 및 학점은행제, 평생학습계좌제 등의 인정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청인 H)

양적인 보급의 일환으로 일반초등학교 교육과정 안에 수화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군부대에 기본소양 과목에도 수화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청인 F)

기업에 복지 담당자 또는 관리직원의 '수화' 연수가 의무화 되어야 함.

종업원 일정 수 이상 기업에 복지 담당자 또는 관리직원의 '수화' 연수가 의무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청인 H)

포털 사이트 사전에 수화사전이 추가되어야 함.

포털 사이트에서 단어 검색을 하면 국어사전, 영어사전, 독어사전, 중어사전, 등 별의별 사전이 다 나오는데 수화사전은 국립국어원에 따로 되어 있어 나오지 않아요. 포털사이트 사전검색에서 수화사전을 추가하여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수화사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수화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청인 H)

전국 평생교육기관에 ‘수화’, ‘수화통역사반’ 개설 및 학점은행제, 평생학습계좌제 등의 인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대학 몇몇 곳에서 ‘연세한국어학당’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이 언어를 배우듯이, 10개 대학 정도만이라도 그런 어학당식으로 시작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화배우는 것과 연계가 되는데, 수화학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평생교육원도 있고, 수화학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교육원 이외에 다른 곳에 설립이 가능하다면, 수화와 관련된, 농인중에서도 전문수화어학원처럼, 영어학원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전문수화어학원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청인 A)

무엇보다 제일중요한 것은 일반학교에서 사범대학에 특수교육과가 있는데, 대부분 대학의 교양과목에 ‘수화’를 가르치는 대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농인 B)

전국 평생교육기관에 ‘수화’, ‘수화통역사반’ 개설 및 학점은행제, 평생학습계좌제 등의 인정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청인 H)

#### 나. 수화관련 서적 및 사전 편찬 방안

현재 개발된 전문분야별사전의 경우 그 활용도가 낮음.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조사한 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전문분야 별로 나와 있는 수화사전을 보면 의료, 법률, 너무 시시해요, 지금까지 활용도가 0%입니다. 다들 아무도 안보고, 그것과 별개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농인들이 법원을 다니거나 병원갔을 때 많이 쓰이는 단어들을 가지고 만들면 좋겠어요, 지금 책을 펴 보면 활용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너무 시시해요, 활용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열어보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솔직히 아까운 면이 있어요,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법률수화, 경찰수화, 병원수화를 이용해서 책을 편찬하면 어떨까,,,,,,,수화사전이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게 만든지 8년?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 책을 가지고 가끔 교육을 하는데 다시 해 달라고 질의가 들어 온 게 너무 많아요, 사전과 달라요, 선생님이 하시는 것을 따를까요? 사전을 따를까요? 물어보면 골치 아파요, 한국농아인 협회에서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되지만 이렇게 써도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히 어떻게 합니까? 한국수화사전의 개정판이 다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농인 A)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수화사전의 어휘 확충, 속어사전, 문장사전 등으로의 확장 및 어미 변형 형태 찾기 기능 보충이 요구됨.

수화사전의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어휘 확충이 필요하고, 현재 단어 중심의 사전을 속어사전, 문장사전 등으로 확장해야 하고 현재 단어 중심의 사전을 속어사전, 문장사전 등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수화 단어를 찾을 때 동사는 기본형만 인식돼서 어휘력이 약한 농학생들은 사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음. 찾기 기능에 기본형뿐만 아니라 어미가 변형된 형태로도 찾을 수 있도록 기능 보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다, 믿는, 믿어, 믿지, 믿으니까 처럼, 현재 인터넷 한국수화사전에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동음이의어 같은 경우, 해설과 수화동영상이 서로 바뀌어 있는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게시판 같은 것이 한국수화사전에 있어서 바로바로 신고하고 고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청인 H)

수화관련 사전 편찬 시, 다양한 표본층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수화 전문가들에 의한 체계적인 작업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수화 사전 제공방법이 고려되어야 함.

수화 관련 서적이 협회, 종교단체 또는 개인(교수, 연구자) 중심으로 소량으로 출판되다 보니, 시중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개인적으로 알음알음으로 구입해야 하므로 불편해요, 수화 관련 서적 출판 시 전자출판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e-book, app-book을 활용하면 더 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시도별 전문가(수화통역사 및 농학교 교사 대표 1인 이상)로 이루어진 전국 단위의 편찬위원회 구성해서 전국적으로 다른 수화를 표준수화로 제정하고 개정해야 합니다, 수화통역사와 교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실제로 사용되고 필요한 수화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농학교 교사는 최소 수화통역사 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학교에서 사용하려고 만든 '언어' 교과서는, 실제 농학교에서 일반학교와 같은 '공통교육과정'을 사용하느라 '언어' 교과서를 사용할 수업시간도 없긴 하지만, 그 '언어' 교과서를 만들고 심의할 때, 수화를 잘 모르는 교사가 참여하였고, 수화통역 가능한 교사는 참여하지 않아서 국어 능력은 있지만 수화 능력이 없는 교사가 '언어' 교과서를 심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언어 교과서는 현재 농학교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청인 H)

중급 이상의 수화관련 서적 편찬이 독려되어야 함.

기초 관련 서적만 많고 중급 단계의 책이 부족하므로 중급 이상의 수화관련 서적 편찬이 독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적 출판을 통해 6-70대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화 보존이 필요합니다.(청인 G)

대중성 있는 교재 편찬이 필요하고, 중급 이상의 교재도 개발되어야 합니다, (청인 F)

상식, 농문화, 농역사, 농사회 관련 서적 편찬이 요구됨.

수어와 관련된 상식, 농문화, 농역사, 농사회 등 서적을 많이 편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아인협회 각 지부별로 수어 관련 서적을 편찬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하고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어 관련 서적을 만들어야 합니다.(농인 G)

다. 수화능력시험 제도 마련 방안

교육용 수화에 초점을 둔 수화능력시험 도입, 수화 언어학에 근거한 수화능력시험 및 문제 제출자와 감독자 선정기준 방안이 필요함.

수화능력시험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수화통역사 등급화를 할 수 없다면, 한국어능력시험처럼 수화능력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 수화통역과가 있다는 것은 수화통역사가 하나의 전문직종이라는 뜻인데, 도가니 사건으로 농학교 교사에게 도중에 새로운 전문직종의 자격을 취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양의사에게 한의사 자격을 따지 않으면 의사자격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학교 교사로서 필요한 수화와 전문 통역사로서 필요한 수화는 어느 정도 다릅니다. 국어능력시험처럼 수화능력시험을 신설하여 급수를 획득하는 방법이 훨씬 더 실용적일 겁니다. 몇 급 이상이면 수화통역사 자격을 주고 또 몇 급 이상이면 미국처럼 명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주는 방법도 있겠죠.(청인 H)

현재의 수화통역사 시험 문제는 언어학에 근거한 측면이 전혀 없어요. 수화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험이면 언어학에 근거한 문제 출제가 더욱 중요하고, 수화능력시험 문제 제출자와 감독자 선정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농인 E)

수화 능력 평가를 위한 문항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검증확인 작업을 거쳐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공고화되어야 함.

수화통역사 시험은 지금 토익시험, 토플시험처럼 점수식으로 자기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급식 말고, 영어토익점수 몇이다 그러면 그 점수로 쓰이는 것처럼, 수화자격증이 있지만 그와 별도로 객관적인 점수가 있어야 해요, 일본은 수화능력등급평가가 있는데 11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처음에 지문자 아는 것은 11등급, 고급으로 올라가

는데 시험보기 전까지는 인터넷으로 자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직접 시험 봐라, 이런 식입니다,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이론시험은 그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실기시험일 때 시험문제수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이 평가라는 것을 개수를 늘이고, 문제는행식으로 만들어서 평가하면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이 개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직접 실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토익식으로 내 수화가 1000 점 만점 중에 내 수화는 700점, 800점이다, 이렇게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청인 E)

수화통역사 자격증 중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역 분야로 나뉘질 필요가 있음.

현재 농통역사와 수어통역사로 운영되고 있어요, 농통역사의 경우 시험 제도를 이론 및 실기 능력뿐만 아니라 전문 상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기존에 이론 및 실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완 및 추가하여 전문상담 능력을 평가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수어통역사의 경우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준수어통역사, 수어통역사로 수준별로 레벨을 두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농인 G)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수화능력시험 제도를 마련하여 급수제로 연 2회 이상 전국에서 실시되어야 함. 다양한 관련기관과 연계된 가산점 부여장치가 요구됨.

한자 능력 시험처럼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대중화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난이도도 높이고, 최소 연 2회 이상 시험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농인 F)

한국어능력시험 제도처럼, 수화능력시험 제도를 마련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급수제로 실시하고, 한국어능력시험 보다 급수를 더 다양화하여, 기초수화부터 통역사 수준까지 8~9급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처럼 전국에서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복지관, 농아인협회, 청각장애관련기관, 복지담당 공무원, 기업의 복지담당자, 등 다양한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인정점 및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 제도처럼, 수화능력시험 제도를 마련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실시되면 좋을 것 같은데,,,,,,, 급수제로 실시하고, 보다 급수를 더 다양화하여, 기초수화부터 통역사 수준까지 8~9급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복지관, 농아인협회, 청각장애관련기관, 복지담당 공무원, 기업의 복지담당자, 등 다양한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인정점 및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청인 H)

라. 홍보전략 구축 방안

수화와 농문화 보존을 위해서는 문화적인 수준 측면에서 수화 환경이 개선되어야함.

단순히 교육과 의사소통 수준에서 환경개선이 아니라 문화적인 수준까지 개선해야 합니다. 프랑스처럼 수화극장을 세우고 연극가를 양성하는 것도 있어요. 수화방송 고정 채널을 운영하고, 수어와 관련된 좋은 콘텐츠를 제공한 블로거를 정기적으로 선정하여 상을 주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화사용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 선정은 농아인협회가 맡아서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협회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는 폐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블로그에 올리면 협회가 찾아서 선정하는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가야합니다. 사인라이팅(문화적요소)지원 및 농학교 확대가 필요합니다.(농인 E)

다양한 홍보전략이 제안됨. 즉 지하철 스크린 도어 및 TV광고, 대중교통 버스 및 지하철 포스터 부착,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늘 TV를 켜두는 공공장소에 주기적인 홍보 동영상 방영, TV를 활용한 수화 관련 공익 광고, 온라인을 통한 광고, 신문 삽화를 활용 광고, MOU 체결을 활용한 지속적인 광고, 수화 관련 방송콘텐츠 제작 등이 필요함.

지하철에 스크린 도어, 지하철 안에도 TV 모니터 활용 광고 홍보로 하는 거 같습니다,,,,,,,좋은 거 같은데,,,,,(청인 A)

대중교통인 버스, 지하철에 포스터 붙여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랑합니

다,"와 같은 수화사진을 만들어서 붙이는 방법도 있고, 지자체에서 인터넷 방송을 활용해서 수화에 대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수화에 대한 홍보배너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활용해도 되고,,,,,,구청에서 한 달에 한번씩 매달 신문 나가는 것 있잖아요, 거기서 수화에 대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농인 B)

TV보면 '바른말, 우리말' 이런 식으로 3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바꿔서 '수화를 배웁시다.' 이런 식으로 3분 영상을 만들어서,,,,, 1인 1스마트폰 시대니까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을 이용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2000만명이니까 한번 터트리면 이게 무료니까 2천만명중에서 관심있는 사람이 100만명이라도 괜찮잖아요, 얼마의 숫자가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홍보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농인 A)

요즘 신문 보면 재미있는 삽화들이 많아요, 영어로 한 것도 있고, 한문도 있는데, 수화로 만든 삽화도 들어가면 농아인문화, 농아인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농인 D)

국가교육정보시스템, 나이스를 활용하여 전국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 월 1회 이상 기초수화 단어 2정도를 안내하고, TV광고 중에서 최소 공익광고 시에는 반드시 수화통역 화면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늘 TV를 켜두는 공공장소에 홍보 동영상을 주기적으로 방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청인 H)

교양강좌에 특활 부분에 교육과 연계해서 공문을 보내서 수화에 대한 홍보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한 달에 한번씩 매달 신문 나가는 것 있잖아요, 거기서 수화에 대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농아인협회에서는 스포츠신문이랑 MUI 맏어서 그걸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농인 B)

TV보면 '바른말, 우리말' 이런 식으로 3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바

꿔서 '수화를 배웁시다.' 이런 식으로 3분 영상을 만들어서..... 1인 1스마트폰 시대니까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을 이용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2000만명이니까 한번 터트리면 이게 무료니까 2천만명중에서 관심있는 사람이 100만명이라도 괜찮잖아요. 얼마의 숫자가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홍보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농인 A)

스마트폰 한국수화사전 무료 앱을 모든 통신사와 모든 기종에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화관련 사이트의 통폐합 및 수화포털 사이트 구축을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포털, 네이버, 다음, 유튜브, 등을 활용합니다. 포털의 한 코너에 수화포털 사이트가 연결되거나 게시판이 들어가도록 하고.....(청인 H)

청각장애종합정보센터(가칭) 같은 기관 또는 홈페이지가 필요함.

여러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수화 자료들, 예를 들어, 농아인방송의 수화 관련 뉴스 및 자료들, 국립국어원 제작 수화동화, 대구농아인협회 영상도서관 제작 수화 자료들, 서울농학교 홈페이지, 청음회관, 농문화원, 유튜브,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니면 다음의 카페 형식과 같은 기존의 농아인방송을 독립적인 포털로 바꿨으면 합니다. 현재 '한국수화사전 앱'은 아이폰(통신사 관계 없음)과 SK텔레콤의 T스토어(폰 종류 관계 없음)에서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수화사전을 다운받기 위해서 본인은 기존의 스마트폰을 버리고 통신사를 바꾸고 새 폰을 구입했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농학생과 농학교 교사에게 단지 수화사전 앱을 다운받기 위해 폰이나 통신사를 바꾸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무료 앱인 만큼, 모든 통신사와 모든 기종에서 다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청인 H)

실제 앱을 만들어도 수화를 싫어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게 있어서 바꿀 수 없지만 수화가 유익하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정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종합정보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우리 농사회 관련된 사람들 외에 다른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뭔가 구축해 봐야겠다. 그래서 '종합정보센터' 라는 이름으로 꼭 농아인 협회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종합정보센터라는 이름으로 정부 시도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청인 E)

인터넷방송, 뉴스,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것을 다 총 망라한 농교육이면 교육, 사회, 협회, 수화자격증 부분, 다 분류돼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망라한 홈페이지가 없어요. 방송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화방송국, 이런 것을 다 해 주는 수화방송국이 있어서 이런 게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농아방송국과 분리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가면 유아체육, 요즘에 체육에 열광하잖아요. 이런 것을 타고 가면 다 볼 수 있도록.(농인 C)

네, 그렇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관련된 기관에 링크해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카테고리에 따라서 인공와우수술, 수화교육, 아이부터 성인취업까지 다 관련시켜 놓으면 다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청인 E)

마. 이외에 수화의 인식 개선 및 보급을 위한 다른 방안

수화자 농인의 성공사례, 즉 전형적인 롤 모델(role model)이 필요함.

단순하게 정보를 보게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설득싸움에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도 나와 있지 않고, "수화 배워야 돼, 수화가 좋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설득력 있게 나와 있지 않아요,,,,,,,,,한국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롤 모델이 없어요,,,,,,,,, 대부분 농인이 성공한 케이스는 구화로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구화가 먹혀요. 부모들이 설득당할 수밖에 없고, 그게 안 되다가 나중에 수화로 하세요, 그렇게 하니깐 우리끼리 수화가 좋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설득할 수 있는 근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화도 성공하려면 수화로 성공한 케이스를 만들어야 합니다.(청인 B)

### (3) 수화 연구 활성화 방안

#### 가. 수화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농인이 코퍼스 연구에 적극적인 정보제공자로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함.

코퍼스 연구에 농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고, 연구한 내용을 농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국수화학회 학술지 원고를 폐이퍼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화영상으로도 등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농인 E)

나. 수화연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전국 단위의 편찬위원회 조직이 갖추어져야 함.

각 시도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수화연구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합니다. 수화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듣기로, 한국수화를 이끄는 주류 집단이 한국표준수화사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주류집단은 한글식(문법식)수화를 주장하는 집단이라 실제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화와는 거리가 있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만든 한국수화사전을 농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화연구에 있어 농인들이 반드시 참여하고 비중도 높여야 합니다. 수화연구 시 연구회 본회 및 지역연구회를 활성화해서, 정기적인 연구회를 개최하고 그 성과를 바로바로 한국수화사전(책, 인터넷, 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화연구 시 각 종교별 이질화된 종교용어 또한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청인 H)

수화 연구 방법과 수화 연구 체계의 효율성 강화 연구 및 장기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및 대학 등 재정지원 방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결국 수화연구가 한국농아인협회, 아니면 대학만으로는 연구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덕분에 기억났는데 미국을 보면 대학 안에서 커리큘럼 안에 과제 내주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수화연구가 발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례를 많이 봤어요.(청인 A)

○○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한국농아인협회안에 부설 수화연구소같은 것을 세워서, 아니면 나사렛대나 한국복지대학교와 MOU를 맺어두고 집중적으로 이것에 대한 연구하는 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수화통역과가 있는 대학이랑 한국농아인협회가 연계해서, 아니면 국립국어원이 협회랑

연계해서 문화관광부와 위탁을 맺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한국농아인 협회와 연계해서 일반대학교와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농인 B)

연구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농에 관련된 연구수가 굉장히 부족해요, 나중에 수화법이 만들어지면 그런 분야에 연구지원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학원 논문에 수화와 농에 관련된 연구를 한다면 지원금을 준다든지, 좋은 연구는 뽑아서 장려금을 준다든지, 그 자료를 모아서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면 어떨까요, 실은 10년, 20년짜리 연구가 절실한데 1년짜리 연구로는 도대체 만들 수가 없어요, 대형 연구과제도, 연구지원을 할 수 있는 뭔가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청인 E)

수어연구소(가칭)를 세워 다양한 전문 인력이 참여시켜 수어연구위원회 팀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함.

각 지역별로 수화연구소 설립이 필요합니다,,,,,,수어연구소(가칭)를 세우는 것이 시급합니다, 한국농아인협회 및 각 시도 협회 각 지부와 연결된 수어연구소(가칭)를 통하여 수어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을 마련하여야 하고, 수어연구 각 파트별로 협회를 통한 전국적인 규모의 자료 수집을 하여 연구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수어 관련 데이터 수집이 중요하다, 데이터 수집을 하여 수어 연구 각 파트별로 자료를 정리하고 검토하여야 합니다, 한국농아인협회(이하 중앙회) 및 각 시도 협회 산하 지부별로 수어연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회에서 수어연구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시도 협회 및 지부에서도 수어연구 위원회를 두어 체계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합니다.(농인 G)

너무 쉽게 수화연구 한다고 모여요, 모이지만 정말 정부 예산을 받으려면 그만큼 경력, 권위 있는 이력,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냥 농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화통역을 잘한다고 해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연구에 맞는 전문적인 커리어가 필요한데,,,,,, (청인 C)

연구소 채용 발굴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함.

협회 지부별 수어연구 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 수어연구자, 대학교수, 수어강사 등,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농통역사, 수어통역사, 국어언어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 인력으로 수어연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수어연구는 수어라는 또 다른 하나의 언어를 다루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각 시도 대표에 농인, 농학교 교사, 수화통역사를 반드시 포함하고, 자문위원으로 수화 관련 교수를 포함하고, 연구 위원의 활동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청인 H)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수화 전문 교육 기관의 지역적 확대가 필요함.

수어연구소(가칭) 등과 같은 것을 세워 수어 연구 그리고 수어 연수, 수어 교육, 수어 박물관, 수어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고, 수어연구소(가칭)를 세워 수어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팀을 만들어 조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농인 G)

수화연구소 구성은 농인, 통역사, 학자, 교육자 등으로 꾸려져야합니다. 수도권에는 현재 있는데, 경상권, 전라권, 강원권 등 크게 3-4군데라도 있어서 수화 연구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소 채용 등을 마련할 수 있게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인 F)

### 3. 공청회

#### 1) 연구 절차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안)은 4개의 중점과제와 12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계획하여 2014년 1월 21일에 공청회를 수행하였음.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안)을 간략하게 발표한 후 농전문가와 건청 전문가의 토론 의견을 경청하였음. 종합토론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정리함.

## 2) 의견 결과 정리

- 4대 중점 과제 중 수화 사용 환경의 정보접근과 수화코퍼스 구축 등은 농인의 정보접근으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함.
- 전체 과제 재배열 필요함.
- 수화와 수어 등 용어를 정의하고, 재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 「원활한 언어생활을 위한 농인의 수화 능력 향상」
  - 인식개선 부분 강화 필요.
  - 농 유아 부모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으로 변경.
  - 통합학생 고려를 위해 지원 사업 필요.
  - 평생교육 시스템 도입을 하나의 범주로 하고, 농인의 한국어 교육지원으로 하위로 재편성.
  - 부모교육이 매우 중요함.
- 「수화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정비」
  - 수화 사용 환경이 아닌 수화 사용 환경으로 용어 변경.
  - 수화통역사협회를 한국농아인협회 산하에 두는 것 고려.
  - 수화통역협회의 윤리 및 통역의 전문화 필요함.
  - 수화통역사관련 능력에 따른 처후 개선 문제 고려한 연구 필요함.
  - 인터넷 웹사이트 등 정보화 사업으로 변경.
  - 수화능력시험평가제도에 관련된 기초연구항목 추가.
  - 하위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는 것이 요구됨.
- 「수화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
  - 수화 및 농문화 보존에서 수화 제외.
  - 농문화에 대한 기본적 정의가 필요하므로 기초연구요구 및 연구지원 사업 강화.

### Ⅲ. 한국 수화 환경 실태 및 요구

- 농문화와 농정체성에 대한 교육 강화 내용 첨가.
- 문화예술공연 특성화 필요함. 특히 시와 이야기를 중심으로.
- 수화홍보 사업의 구체화 필요하고, 예술과 접목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음.
- 수화사용자의 역량강화사업이 추가 되어 문화경험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필요함.

#### ○ 「수화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전개」

- 표준이라는 용어에 대한 고민할 것. 즉 수화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하면 좋을 것으로 예상.
- 수화코퍼스사업은 정보화 사업으로 변경.
- 농당사자의 유능성 확보를 위한 사업들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함.
- 농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화연구사업이 필요함.



# IV

---

## 한국 수화 환경 개선 방향

1. 수화 지위 .....	69
2. 농인과 수화환경 .....	69
3. 농인과 수화교육 .....	70
4. 수화 연구 .....	70
5. 농인과 수화기반 정보 접근 .....	71



## VI. 한국 수화 환경 개선 방향

### 1. 수화 지위

- 지금까지 수화는 언어로서 보다는 서비스의 하나로서 인식되어왔음.
  - ▷ 청인들의 수화 지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화교육지원 및 홍보사업이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000년 이래로 언어 소외계층의 언어권 보장 및 언어 복지 실현을 위하여 한국 수화 연구 및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옴. 그러나 연령층 및 지역범위를 고려한 재개정이 요구됨. 또한 농인들의 고등교육 및 전문분야 진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전문 영역의 용어 사전이 요구됨.
  - ▷ 현 개발된 한국수화 사전이 정비되어야 하고, 맞춤형 수화사전의 개발 및 다양한 수화관련 서적이 필요함.
  
- 특히 60대, 70대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화 자료가 부족함.
  - ▷ 농문화 및 수화 보존을 위해 농노인들의 언어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작업이 요구됨. 이를 위한 예산지원이 필수적임.

### 2. 농인과 수화환경

- 농인들이 제공 받는 수화통역서비스의 빈도는 높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농인들이 기대하는 것에 비해 통역의 전문성이 불충분함.
  - ▷ 현재의 수화통역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화통역사 자격증 제도는 단일 종류의 자격증으로 전문 통역 영역이나 통역 수준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임.

- ▷ 이에 농인들이 보다 질 높은 수화통역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화 능력 평가 제도가 필요함.

### 3. 농인과 수화교육

- 농자녀를 둔 청인부모의 수화교육이 필요하나, 현재 이들이 수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농 유아가 수화를 습득해 나가는 환경이 매우 열악함.
  - ▷ 영아부터 체계적인 이중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현재 농학교에서는 농학생을 위한 수화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농 학교 교사들의 수화 능력이 교과지도를 할 만큼 충분하지 않음. 이로 인해 농 학생들의 문해능력과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농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수화교육이 필요하며, 교사의 수화능력향상이 요구 됨.
- 농성인들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직장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음. 또한 대부분의 농인은 수 화를 할 수는 있지만 수화를 이해하는데 제약적임.
  - ▷ 농성인들을 위한 수화교육 및 한국어 교육이 필요함.

### 4. 수화 연구

- 수화연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체계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함.
  - ▷ 수어연구소(가칭)를 세워 수어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화와 관련된 다양한 언어학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수화 및 관련 연구는 1983년에 처음으로 1편이 발표되었으며, 그 후 2009년 2월말까지 122편, 2009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61편이 발표됨. 최근에는

수화의 언어학적 측면과 이중언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한국사회에서는 한국어가 다수언어임. 소수언어와 문화는 소멸되기 쉬움. 소수언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데(Abdelilah-Bauer, Barbara, 2012), 한국 수화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소수언어이므로 소멸되기 쉬움.
  - ▷ 이에 한국 수화를 보전하는 사업 지원되어야 함. 또한 소수언어의 연구를 위해서는 소수 언어 당사자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당사자들이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5. 농인과 수화 기반 정보접근

- 수화는 지역적, 계층적으로 다양하므로 한국수화의 원형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농인의 수화를 수집하고 축적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 수화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임. 수화 코퍼스는 영국 수화, 네덜란드 수화, 독일 수화, 스웨덴 수화, 아일랜드 수화, 호주 수화, 미국 수화, 프랑스 수화, 폴란드 수화, 스위스독일 수화, 뉴질랜드 수화에서 찾아볼 수 있음.
  - ▷ 이에 수화 코퍼스 구축 사업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한국 수화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가 필요함.
-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농인들이 일상생활, 교육, 고용, 사회 참여, 문화 경험의 확장을 위해 지식 정보접근이 중요하다면 현재 수화영상 도서가 대상(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분야(요리, 요가, 음악, 미술, 응급처치 등) 등 수화기반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함.
- 더욱이 중요한 것은 다양한 정보를 집대성 할 수 있고, 수화동영상자료들을 농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 이에 수화 영상 도서 사업 지원, 수화 영상 자료 DB화 사업지원, 수화정보센터 설립 등을 통해 수화 정보 동영상 자료 구축 DB화가 필요함.

- 또한 농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음. 현재 농인을 위한 정보접근 사업들은 정보화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능력은 매우 좋아졌음. 자막기반의 웹 콘텐츠들은 많으나 수화기반의 웹 콘텐츠들이 상당히 부족하여 문해 능력이 낮은 농인들의 경우 충분한 정보를 받기 어려움.
  - ▷ 이에 수화기반의 웹 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되며, 한국 웹 콘텐츠 평가원에서 웹 접근성 수준을 구분하여 웹사이트를 평가하고 있는데, 농인들을 고려하여 수화 기반 웹 접근성이 강화되도록 평가지표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수화 웹 접근성 센터의 설립이 필요함.
  
- 수화는 널리 통용되는 문자체계가 없어서 농 사회의 규모가 작아지면 다음 세대로 수화를 전하는 것이 힘들어짐. 수화문자개발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음.
  
- 농인의 문해 능력 향상을 위한 한 방법으로 수화문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현재 자연수화를 표상할 수 있는 문자 상징체계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음(Flood, 2002). 현재 한국 수화는 자연수화를 표상할 수 있는 쓰기체계가 없음.
  - ▷ 이에 한국 수화를 기록할 수 있는 수화문자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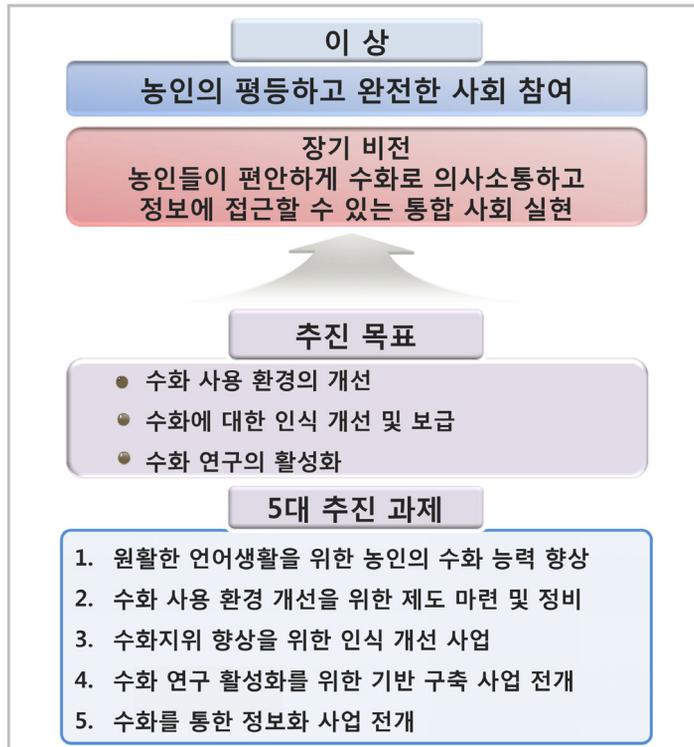
##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안

1. 이상과 추진 목표 .....	75
2. 추진 조직 체계 .....	76
3. 추진 과제 및 세부 과제 .....	76
4.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 장·중·단기 계획 .....	134
5.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의 예산안 .....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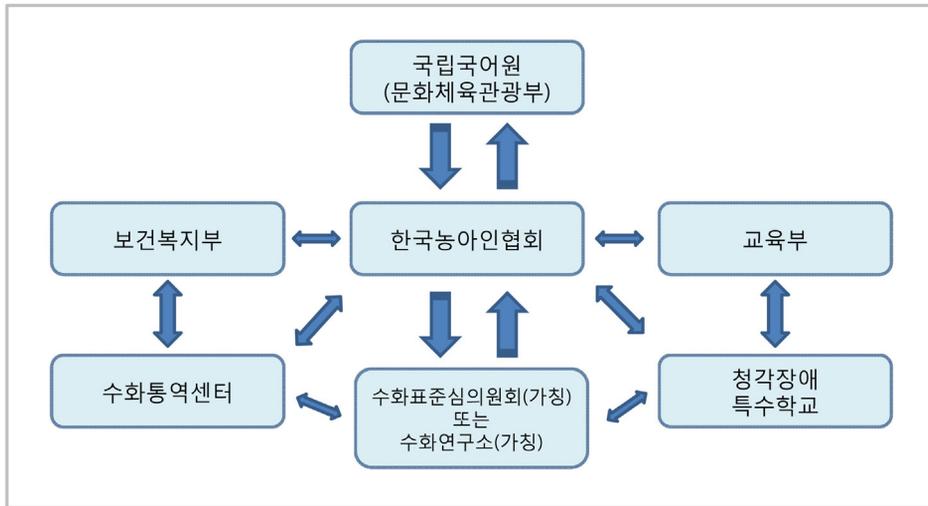
## V.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안

### 1. 이상과 추진 목표



〈그림 1〉 이상과 추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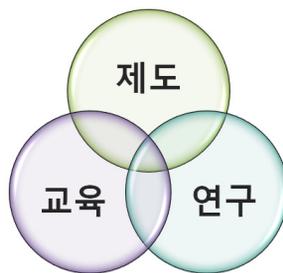
## 2. 추진 조직 체계



〈그림 2〉 추진 조직 체계

## 3. 추진 과제 및 세부 과제

□ 수화 발전을 위한 정책은 교육, 제도, 연구 세 분야로 나눔.



□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안은 5개 중점 추진과제와 1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함.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표 V-1>에 제시함. 각 세부과제는 현황과 문제점, 추진방향, 추진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함.

〈표 V-1〉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의 중장기 추진 목표 및 세부과제

추진목표	세부과제	주요내용
① 원활한 언어생활을 위한 농인의 수화 능력 향상	1-1 농유아를 위한 수화교육	- 농 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 농 유아를 위한 농성인 모델 및 교사 파견 - 농 유아를 위한 체계적인 수화교육 사례 연구 추진
	1-2 농학생을 위한 수화교육	- 농학교 교육과정에 수화 교과 설치 - 농학교에 농인 수화교원 배치 - 농학생의 수화 능력 향상을 위한 수화 교재 개발 - 농학교 교사의 수화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지원 - 수화 의사소통을 통한 농학생들의 학습권의 신장
	1-3 농성인을 위한 수화교육 및 수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	- 중도 청각장애 또는 난청 성인을 위한 수화교육 지원 - 평생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농인의 한국어 교육 지원
② 수화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정비	2-1 수화사용 실태 조사	- 다양한 수화 변이에 대한 연구 실시 - 한국수화 사용 실태 조사 실시
	2-2 수화능력 시험 평가제도 마련	- 수화능력 시험 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 실시 - 수화능력 시험 실시
	2-3 수화교원양성 제도 마련	- 수화교원 양성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 - 한국수화교원 양성 및 배치(파견)
	2-4 수화통역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화통역 제도의 개선	- 수화통역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 - 수화통역사의 전문성 확보 - 수화통역사 자격의 세분화 및 급수화
③ 수화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	3-1 청인을 위한 수화교육 지원	- 효과적인 수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학교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 시스템 안에서의 수화교육
	3-2 수화관련 서적 및 사전 편찬 사업 지원	- 표준한국수화 사전의 정비 및 보완 - 다양한 맞춤형 수화사전 편찬
	3-3 수화 및 농문화 보존 및 홍보 사업 지원	- 농문화 및 시대별 수화 자료 수집 - 수화와 농문화 보급을 위한 홍보 확대
④ 수화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 전개	4-1 수화연구소 설립 및 표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한국수화 표준화 작업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수화 교육 및 연구 등 전반적인 수화 관련 사업을 관장하는 수화 연구소 설립 및 운영
	4-2 농인 수화 연구자 양성	- 한국수화 보존을 위한 지원 사업 전개 - 한국수화 사용자인 농인들의 수화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 전개
	4-3 수화연구 지원 사업	- 수화연구자들의 수화 연구를 위한 지원 사업 전개
⑤	5-1 수화코퍼스 구축 사업	- 수화코퍼스 구축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 실시

수화를 통한 정보화 사업 전개	5-2 수화 정보 동영상 자료 구축 DB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관련 도서를 수화로 번역한 동영상 도서 제작 사업 확대</li> <li>- 수화동영상 자료의 DB화 사업</li> <li>- 다양한 정보를 수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수화정보 센터 설립</li> </ul>
	5-3 수화 기반 웹 접근성 사업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화를 통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li> <li>- 수화 웹 접근성 센터의 설립</li> </ul>
	5-4 수화문자 개발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수화를 기록할 수 있는 수화문자의 개발 및 보급</li> </ul>

**1      원활한 언어생활을 위한 농인의 수화 능력 향상**

- [세부 과제]**
- 1-1 농유아를 위한 수화교육
  - 1-2 농학생을 위한 수화교육
  - 1-3 농성인을 위한 수화교육 및 수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

**1-1      농유아를 위한 수화교육**

- [주요 내용]**
- 농 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 농 유아를 위한 농성인 모델 및 교사 파견
  - 농 유아를 위한 체계적인 수화교육 사례 연구 추진

**(1) 현황과 문제점**

- 농 유아의 열악한 언어습득 환경
  - 농아동의 90%가 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므로 부모로부터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지 못함.

- 청인 부모는 시각채널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고 농자녀는 청각 채널을 통해 완전하게 언어에 접근하기 어려움.
  - 농인이 가족구성원인 경우에 수화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 유무에 대한 조사 결과(권재일 등, 2009), 총 응답자(1,183명) 중 47.3%가 가족구성원 중 수화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게다가 수화를 사용할 줄 아는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응답자 대부분은 수화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준은 아니었음.
  - 이렇게 농자녀와 청인 부모간의 의사소통의 곤란은 농자녀의 정서적 교감과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갖게 하므로, 농자녀를 둔 청인부모의 수화교육이 필요하나, 현재 이들이 체계적으로 수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농자녀의 양육 및 수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부재
- 우리나라에서는 농으로 진단을 받은 후 보청기나 인공와우 시술 외에는 다른 선택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임.
  - 특히 일반유아들의 부모들은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부모들이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받고 있으나 농영유아들의 부모들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없어 힘들어 함.
  - 또한 농유아에게 수화를 가르치고자 하는 경우도 수화를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전무한 상태임.
- 외국의 경우, 농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Mom and Dad, Your Deaf Child is OK!’(1986)와 같은 청각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해 영상자료 및 책자를 제작하고, 정보를 지원하고 있음.
- 농아동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방법 등 효과적인 언어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함.
- 농영유아를 대상으로 그들이 제1언어에 능숙할 때 제2언어로 더 효과적인 전이가 나타난다는 것에 대한 성공사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덴마크 Kastelsvej 농학교에서 이루어진 성공적인 이중언어교육에 관한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제2언어인 덴마크어의 지도에서 수화를 덴마크어 지도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였음. 즉 알지 못하는 덴마크어 단어와 표현, 문법적 관계에 대한 설명, 과제의 지시 등에서 수화를 사용하였음 (Lewis, 1996).
  - 또한 농영유아들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화교육이외에 제2언어(국어)의 질 좋은 입력이 요구됨(Knoors & Marschark, 2012). 이에 취학전 국어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수화와 문자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동화책 및 교재개발이 권장됨(정운기, 김병하, 2005).
- 따라서 영아부터 체계적인 이중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건청부모의 농자녀인 경우 농유아가 수화를 자신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내면화시키기 위해서는 수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가족 특히 어머니부터 수화를 배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함.
  - 청각장애아동의 제1언어가 수화일 경우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그런 청각장애 아동의 경우 가정보다 학교의 친구들과 대화하기를 더 선호함. 가정에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이런 가정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최근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것처럼 원하는 부모들의 가정에 교사를 파견하여 수화를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국립국어원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의 바른 국어생활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의 농인들에게 바른 국어사용을 위하여 수화와 한국어를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임.
- 영아부터 체계적인 이중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취학전 국어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언어습득 시기를 고려할 때 농인에게 국어 학습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여야 함(윤석민, 2013).
  - 현재 도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어린이집중 거점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수화가 가능한 장애전담교사(농교사, 건청교사)를 배치하여 영아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요구됨.

**(2) 추진 방향**

- 부모가 자녀의 청각장애를 진단 받음과 동시에 자녀의 양육 및 언어발달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농유아와 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수화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 농유아의 언어 습득 환경 개선.
- 농유아의 제1언어를 수화로 선택한 경우, 보육정보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농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수화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 농유아의 제1언어인 수화를 통해 제2언어인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중언어교육 체계 마련 및 운영 기관 설립.

**(3) 추진 내용**

**□ 농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상담 및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마련(단기).**

-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통해 청각장애(농)로 진단받은 영유아의 부모를 위한 ‘청각장애(농) 자녀 양육을 위한 지침서’ 제작 및 보급.
  - 다양한 의사소통방법 선택 및 언어교육에 관한 전문 정보 제공.
  - 이비인후과 병원 및 복지관을 통해 배포.
  - 중앙 및 지역보육정보센터 등 자녀 양육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

**□ 농유아 및 부모를 위한 수화교육 지원(단기).**

-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통해 ‘농 유아의 가족을 위한 수화 교실’을 운영.
-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통해 ‘농 유아를 위한 수화 교실’을 운영.

□ **농유아가 재원하는 어린이집에 자격을 갖춘 농인 전담교사 파견(중단기).**

- 교육부의 지원을 통해 농인 보육교사 양성 체계 마련.
  - 한국복지대학 등 국립대학에 농인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지원.
-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통해 농유아가 재원하는 어린이집에 농인 보육교사 파견.
  - 농유아의 의사소통지원을 통해 교육 효과 높임.
  - 농유아의 수화 및 한국어 교육 지원을 통해 언어 발달을 지원함.

□ **농유아를 위한 이중언어교육 시범 운영을 위한 지원(중기).**

- 교육부 및 국립국어원의 지원을 통해 농유아를 위한 이중언어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성공사례를 개발함.
  - 수화연구소와 국립특수교육원이 연계하여 농유아를 위한 이중언어교육 프로젝트 실시.

□ **농유아를 위한 이중언어교육 기관 설립(장기)**

- 교육부의 지원을 통해 농유아 및 아동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기관 설립 운영.

1-2

**농학생을 위한 수화교육**

**[주요 내용]**

- 농학교 교육과정에 수화 교과 설치
- 농학교에 농인 수화교원 배치
- 농학생의 수화 능력 향상을 위한 수화 교재 개발
- 농학교 교사의 수화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 수화 의사소통을 통한 농학생들의 학습권 신장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농학교에서는 농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수화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현재 농학교에서는 일반학교와 동일한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청각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역별 내용 체계에서 언어 관련 과목인 국어와 영어교과에서만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교육과정에서 수화와 관련된 언급은 국어와 영어 교과안에서의 부분적인 수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어의 ‘듣기’는 ‘듣기·수화 읽기·말 읽기’로 ‘말하기’는 ‘말·수화하기’로 수정하였음.
  - 그리하여 성취 기준에서 ‘서로 다른 소리의 구형과 수화의 구도를 구분한다.’ ‘말·수화로 표현된 일상생활의 문장을 듣기·수화 읽기·말 읽기 하여 내용을 파악한다.’ ‘말·수화를 바르게 표현한다.’ 등 국어 교과 내에서 수화를 함께 지도하는 식으로 되어 있음.
  - 이것은 영어과 안에서 국어를 함께 지도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므로 수화를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수화를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도 없는 교육과정 형태임.
  - 따라서 농학교 교육과정에는 수화를 농인들의 제1언어로 인정함과 동시에 수화가 하나의 교과목으로 설치되어야 함.
  - 또한 농학생들의 효과적인 수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도 개발되어야 함.
- 이에 농학생들은 수화도 매우 부분적으로 접하게 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접하게 되어 1차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수화언어 습득에도 어려움을 갖게 됨.- 제1언어인 수화에 노출되는 시기가 늦으며, 체계적으로 자연스럽게 수화를 접할 기회가 적음.
- 수화를 배우기 시작한 연령은 대부분 5세에서 9세 사이였고, 그다음으로는 10세에서 14세 시기였으며, 30대 이후에 수화를 배우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음. 또한 수화를 배운 대상으로는 ‘친구’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수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부모’ 순이었음(권재일 등, 2009).
- 농학교 교사들의 수화 능력이 교과지도를 할 만큼 충분하지 않음.
- 농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2013)에 의하면 농학교 교사들의 수화 능

력은 교사 자신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중 정도의 수준)라고 답한 경우가 56.2%로 가장 많았음.

- 그러나 동 연구에서 농인 당사자들은 농학교 교사들의 수화 능력이 아주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하)라고 답한 경우가 40.9%로 가장 많았음.

○ 농학교 교사와 농학생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완전히 접근하지 못함.

- 청각장애학생들의 경우, 다른 건청학생들과는 다른 의사소통 방법과 청력 특성 때문에 수업 및 교재 등에 대한 정보접근에 큰 어려움이 있음.
- 더욱이 유치원 단계부터 고등학교, 고등교육까지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은 교수·학습상황으로 인해 학교장면뿐만 아니라 취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장면에서의 능력 함양 및 발휘에 어려움이 가중됨.
- 통합 환경에 있는 청각장애학생에게 다양한 의사소통 접근방법이 활용된다하더라도 말을 듣거나 이해함에 있어서 또는 제시된 제재를 통해 정보를 수용함에 있어서 여전히 제약적이며, 씌어 있지 않은 교육 과정(unwritten)은 교실에서의 형식적 교수 밖에서 일어나는 학습의 측면들과 관련된 정보 전달 및 수용에 있어서도 제한적임(박광자, 1996; Fuchs, & Fuchs, 1994; Garrison, Long, Stinson, 1994; Gregory & Bishop, 1988; Kluwin & Stinson, 1993; Patrie, 1993; Stinson & Lang, 1994).

○ 이러한 교사와 학생간의 의사소통 어려움과 교육과정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함으로 인해 농학생들은 문해능력과 학업 성취도가 낮음.

- 청각채널을 통해 정보 입수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학생에게 있어서 문해 능력은 다른 학습의 중요한 도구일 뿐 아니라, 정보를 얻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임. 그러나 청각장애학생들은 지체된 언어 발달(Mayne, Yoshinaga-Itano, & Sedey, 2000; Mayne, Yoshinaga-Itano, Sedey, Carey, 2000; Moeller, 2000; Volterra, Capirce, & Caselli, 2001), 제한적인 어휘와 구문능력(Blamey, et al., 2001; Luckner & Handley, 2008; Marschark, et al., 2002; Musselman & Szanto, 1998; Paul, 2003), 낮은 읽기수준(박주열, 1989; 최영주,

1990; Allen, 1986; Center for Assessment and Demographic Studies, 1991; Karchmer, Milone, & Wolk, 1979; Lewis, 1996; Marschark & Harris, 1996; Moog & Geers, 1985; Paul, 2001; Wauters, et al, 2008)으로 인해 학업성취에 어려움을 겪음.

- 농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관한 설문에서 부모, 교사, 농학생 모두 낮은 학업성취와 낮은 문해능력이라고 응답하였음(김경진 등, 2013).
- 특히 언어기반이 부족하고, 청각정보의 수용이 제약적이며, 사전경험과 언어 또는 사전지식과 언어 간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읽기학습이 어려움(Moore, 1987; McAnally, Rose, Quigley, 1994).

○ 이에 농학교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은 농학생의 특성 이해와 수화능력이었음.

- 농학교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결과, 농인응답자들은 수화능력 및 농인특성이해였음(김경진 등, 2013).
- 그런데 농인들은 농학교 교사들의 수화능력에 대해 아주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수준 하)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교사들의 수화능력이 교단에서 교과 지도를 할 정도의 수준 및 학생과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수화로 수업을 진행하는 농학교 선생님의 수업 내용 이해하기에 대한 조사 분석결과(권재일, 2009), 응답자 819명 중 49.5%가 이해하기 쉬웠다고 응답하였고, 50.5%는 어려웠다고 응답하였음.

○ 수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방안으로 교사의 수화능력향상, 현실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과 보급을 강조함.

- 교사와 부모들은 농학교 교사 대상의 체계적인 수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으며, 농인들은 수화 가능 교사의 우선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함.
- 교사들의 수화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방법으로는 부모와 농인은 국가 차원에서 수화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교사들은 수화연수를 위한 연수비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 그러나 우리나라 언어교육에서 수화적용 실태가 이중언어 접근 방법은 아니지만, 수화를 이용하여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김경진 등 2013).
  - 2009년에 발간한 「청각장애 언어」(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과서는 2000년에 발간한 교과서와 달리 수화를 부록으로 따로 제시하지 않고, 언어 표현 활동 안에 수화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2013년에 공통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발간한 「청각장애 언어」(교육과학기술부, 2013) 교과서는 국어과 지도를 위하여 한국수화를 활용하도록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교과서임. 이 교과서는 본문의 내용을 한국수화로 설명해 주는 동영상 자료와 본문의 주요 단어를 한국수화로 설명해 주는 동영상 사진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농학생을 위한 수화교육 관련 초점집단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교육과정에 수화 교과를 신설하고 농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 학년별 일정 시간 이상 수화를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수정해야 함.
  - 수화 구연가 교육(양성)과정을 수료한 수화 구연가를 배치해야함.
  - 수화 및 수화통역학과 관련 전공을 이수한 농인을 농학교의 교사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수화교육을 할 강사는 자연언어 소유자이거나 기본적인 수어학 과정을 이수한 농인이어야 함.
  - 수화강사를 농학교에 파견하는 것과 그에 따른 농학교내에서의 지위 보장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예를 들어, 수화 구연가는 보조교사의 직급으로, 관련 전공 이수 농인, 수어강사는 교사와 같은 직급 보장에 관한 방안이 필요함.
  - 특수학교의 기존교사에게는 의무적으로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각장애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순환근무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전국 농학교에 교원 외에 수화통역사를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함.
  - 전국 농학교 교사의 수화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수가 제공되어야 함.
  - 청각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일반학교에 FM증폭기 장착과 필기통역, 수화

통역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함.

- 병원 및 학교에서 동시에 청능훈련과 수화교육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 구축이 필요함.
- 이중언어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실험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수화교육에 있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

## (2) 추진 방향

- 농학교 교사들과 농학생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농학교 교사들의 수화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
- 농학생들의 수화 능력 향상을 위해 농학교 교육과정에 수화 교과를 개설함.
- 농학교에 수화를 가르치는 농인교사를 양성하여 배치함.
- 농학생들을 위한 수화교육과정 및 수화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함.
- 농학생들의 교육과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과서를 수화로 번역하여 제공함.
- 농학생의 한국어 문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이중언어교육 실험학교를 운영함.

## (3) 추진 내용

### □ 농학교 교사를 위한 수화교육 지원(단기).

- 교육부와 수화연구소의 지원을 통해 농학교의 교사들을 위한 수화 연수 실시.
  - 수화연수를 이수하고 일정 이상의 수화능력을 갖춘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공립학교 내신 등에서 우선권을 줌).

□ **농학교 교육과정에 수화 교과 개설(단기)**

- 교육부의 지원을 통해 현 농학교 교육과정 안에 수화 교과를 개설하도록 함.
  - 유치원 과정은 선택 과목으로, 초등학교 과정부터는 필수 과목으로 수화 과목을 신설함.

□ **농학생을 위한 수화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보급(중단기).**

- 교육부와 수화연구소의 지원을 통해 농학교의 수화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함.
- 수화연구소와 교육부의 지원을 통해 수화교육과정에 따른 수화 교과서를 개발하고 보급함.

□ **농학교에 농인 수화교육 교원 배치(중기).**

- 국립국어원과 교육부의 지원을 통해 농인 수화교육 교원 양성.
  - 수화연구소와 한국복지대학(국립)을 지정하여 농인 수화교원 양성 과정 개설.
- 농학교에 농인 수화교원 의무 배치.

□ **농학생을 위한 교과서의 수화 번역본 제작·보급(중기).**

- 교육부의 지원을 통해 농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수화로 번역하여 보급함.

□ **농학생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실험학교 운영(중단기).**

- 농학생의 문해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프로젝트를 지원함(단기).
- 농학생의 문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부와 국립국어원의 지원을 통해 농학생의 제1언어인 수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 실험학교를 운영(중기).

1-3

**농성인을 위한 수화교육 및 수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

**[주요 내용]**

- 중도 청각장애 또는 난청 성인을 위한 수화교육 지원
- 평생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농인의 한국어 교육 지원

**(1) 현황과 문제점**

- 농성인들은 직장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음(권재일 등, 2009).
  - 대부분의 경우 청인과의 소통을 위해 수화통역사, 수화사용 동료, 문자사용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음.
  - 농인들의 주된 교류대상자는 농인과 수화사용 건청인이었으며, 수화를 못하는 청인도 있었음.
  - 통신수단으로는 휴대전화의 문자 및 영상통화, 화상전화기를 주로 사용하고 수화통역 도움을 받아 전화를 하기도 하며,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활용하기도 함.
- 대부분의 농인은 수화를 할 수는 있지만 수화에 대한 이해가 제약적임.
  - 수화를 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조사 분석결과, 대부분의 청각장애인은 수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방송에 나오는 수화통역을 모두 이해한다고 답한 경우가 응답자 중 16.5%였음(권재일 등, 2009).
- 그런데 대부분의 농인들은 수화를 배우는 것이 한국어 습득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함.
-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현재 수화교육을 200개의 지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 강사와 교재, 교육과정 등이 없기 때문에 방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함. 즉 전문 강사 훈련 및 파견, 연수, 연구 및 도서 발간 등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필요함.

- 수화교육은 단순한 어학 차원이 아니라 문화적 수준으로 전환하여 접근하여야 함.
- 젊은 농인과 연륜 있는 농인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함. 50대와 60대, 20대와 30대의 수화사용은 단어뿐만 아니라 문법 등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므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수화교육이 필요함.
- 수화와 한국어가 능통한 강사 배출이 필요함.
- 농성인을 가르치는 자는 수화교육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요구됨.
  - 수화도 잘하고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이 있는 농인에게 한국수화로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수화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농 어르신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음. 차라리 그런 분들에게는 한국수화와 그와 관련된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현재 많은 곳에서 한국수화와 한국어를 모르는 농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없고, 단순한 흉내내기에 불과함.
  - 스마트폰 한국수화사전 무료 앱을 모든 통신사와 모든 기종에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화관련 사이트의 통합 및 수화포털 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한국어를 잘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지만 한국어 능력이 낮음.

- 대부분의 농인들은 기회가 된다면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싶어 했고, 한국어 학습 시 조사와 어미, 단어, 어순 순으로 어려워하고 있었음(권재일 등, 2009).

○ 농인들은 주로 텔레비전, 농인단체, 컴퓨터 및 주변 사람들을 통해 생활정보를 얻으며, 자막방송과 수화통역 방송 전면 실시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 매체에서 제공되는 정보내용 이해도는 낮았음(권재일 등, 2009).

- 실제 농인들은 자막방송 이해정도가 낮았는데 그들은 이러한 이유를 한국어 문장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농인들의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이해는 낮은 수준이었는데 그들은 이러한 이유를 전문적인 용어(외래어, 외국어) 이해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함.
- 농인에게는 취학 전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이 필요함.

○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현재 서울에서는 25개중에서 문해교육반을 운영하는 곳이 3~4곳 정도 있으나 비전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많음. 이에 농아인협회 산하 각 지부에서 일관성 있고 알찬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예를 들면, 수화는 잘하는데 문해능력이 부족한 분들, 한국어 배우고 싶은 농성인들이 많이 찾아옴. 한국어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음. 지부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홍보를 하게 된다면 아마 농 어르신들이 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 분들이 많다고 생각함.
-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교재, 일정, 계획 등)을 개발하고 수정 및 보완하여 양적, 질적으로 꾸준한 발전이 이어지도록 해야 함.
- 농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이러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자신감을 심어주고 지식의 폭을 넓히어 일반 사회로 진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농인 평생 교육원’이 제도적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체제 정립이 요구됨.
  - 전국 농아인협회 및 복지관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점은행제 등의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함.
  - 언제든 수화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만들어져야 하며 언제 어디서든 수화를 교육받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 시스템도 개발되어야 함.
- 수화 중심의 교재를 개발하여 한국어 교육과 연계시켜 주어야 함.

**(2) 추진 방향**

- 중도에 실청하거나 인공와우 등의 보청기기를 착용했으나, 청각 채널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수화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화 교육 지원.
- 평생교육 시스템을 통해 문해에 어려움이 있는 수화 사용 농인을 위한 한국어 문해 교육 지원.

**(3) 추진 내용**

**□ 중도 실청자나 난청인을 위한 수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단기).**

- 수화연구소의 지원으로 성인 난청자를 위한 수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 수화연구소의 지원으로 성인 난청자를 위한 수화교육 강좌 운영 모델 개발.
  - 수화교육 강좌 시범 운영을 통해 운영 모델 개발하여 보급.

**□ 중도 실청자나 난청인을 위한 수화교육 교재 개발 및 강사 연수 실시 (단기).**

- 성인 난청자를 위한 수화교육 교재 개발.
  - 단계별 교재 개발하여 보급.
- 성인 난청자를 위한 수화교육 강사 연수회 실시.

**□ 수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 전개 (단기).**

- 수화 사용 농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단계별 교재 개발하여 보급.
- 수화 사용 농인을 위한 한국어 강사 연수회 실시
- 수화 사용 농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 실시
  - 농아인 협회와 농학교의 연계를 통한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 실시

2

수화언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정비

[세부 과제]

- 2-1 수화사용 실태조사
- 2-2 수화능력 시험 평가제도 마련
- 2-3 수화교원양성 제도 마련
- 2-4 수화통역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화통역 제도의 개선

2-1

수화사용 실태조사

[주요 내용]

- 다양한 수화 변이에 대한 연구 실시
- 한국 수화 사용 실태 조사 실시

(1) 현황과 문제점

-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은 수화와 함께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 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다양한 수화의 변이형태가 존재함.
- 한국 수화 사용 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매우 부족함.
  - 10대에서 60대까지의 청각장애인 1,300명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함(권재일 등, 2009).
- 다양한 수화 변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 한국 수화소와 수형소를 중심으로 연구됨.
  - 미국과 영국에서는 다양한 수화소 연구를 토대로 현재는 수화소에 기반을 둔 수화언어 사전을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렀음(British Deaf Association, 1992, Tennant & Brown, 2010, 재인용).

- 우리나라에서는 김승국(1983), 석동일(1989)의 연구에서 한국수화언어(KSL: Korea Sign Language)의 수화소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연구가 실시된 지 오래 되었고 후속 연구가 부족하며, 분석에 사용한 수화단어수가 제한적이어서 아직 수화소에 기반을 둔 수화언어 사전 개발은 어려운 실정임
- 최상배(2012, 2013)는 한국수화언어의 수형소와 수위소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 한국수화언어의 수형소에서는 한국수화언어의 무표수형 정의의 기준에 출현 빈도뿐만 아니라, 농유아의 초기 습득 수형, 수화언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 조동의 편리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후 한국수화언어의 수형소 연구에서는 생성음운론적 수형 연구가 필요하며, 수화소에 기반을 둔 한국수화언어 사전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형의 배열순서와 표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 한국수화언어의 수위소에서는 중립공간을 포함한 수위와 신체와의 거리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고, 공간 변화를 통한 형태론적, 구문론적 특성 연구도 필요하며, 수화소 중에서 시각적인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큰 수형소와 수위소뿐만 아니라 수향소, 수동소, 비수지신호에 대한 추후 연구도 필요함.

## (2) 추진 방향

-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은 수화와 함께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 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다양한 수화의 변이형태가 존재함
- 이에 다양한 수화의 변이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초 연구 실시
- 또한 이러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농인들의 한국수화 사용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연구 실시

## (3) 추진 내용

### 한국수화 변이 형태에 대한 연구 지원 사업 (단기).

- 한국수화 사용자 특성에 따른 한국수화의 다양한 변이에 대한 조사 연구 지원

- 한국수화의 표준 및 기준 형태 및 문법 제시

□ 한국수화 사용 실태 조사 실시 (단기).

- 한국수화 사용자 특성에 따른 한국수화 사용 실태 조사

2-2

수화능력 평가제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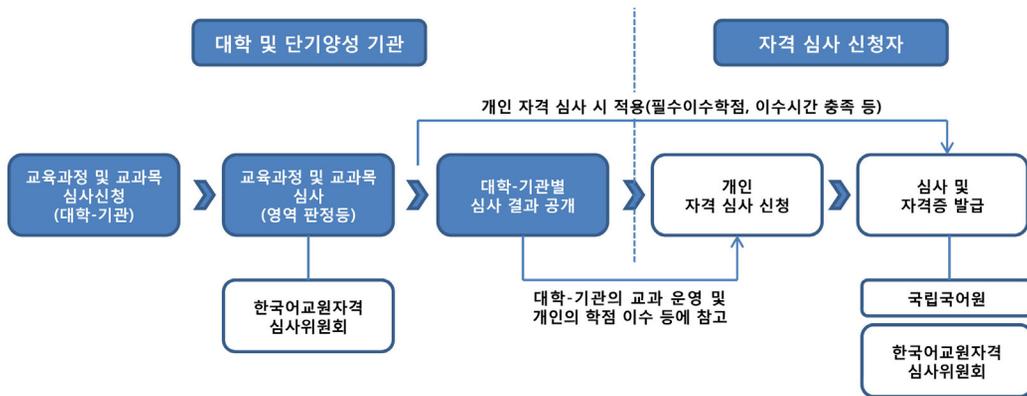
[주요 내용]

- 수화능력 시험 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 실시
- 수화능력 시험 실시

(1) 현황과 문제점

- 수화 능력 평가 제도의 필요성 제기
  -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화통역사 자격증 제도는 단일 종류의 자격증으로 전문 통역 영역이나 통역 수준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임.
  - 농인들의 수화통역 수요는 많지만 실제 수화통역사들이 제공하는 수화통역의 질이 낮음. 특히 의료분야는 농인들이 빈번하게 요구하는 수화통역 영역이었지만 수화통역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영역이었음(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 수화기본법을 바탕으로 한국수화교원자격제도 관련 법규(시행령, 시행규칙 등)가 마련되어야 함.
  - 한국어교원자격제도와 유사하게 한국수화교육자격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현 한국어교원자격제도는 다음과 같음(법제처, 2014).
    -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4조,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종에 근거함.
    - 2005년 7월 28일 ('06년부터 부여, 연 3회 심사)부터 제도가 시행됨.
    - 자격부여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주관)에서 관리함.

-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참고.
  - 한국어교원자격부여,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한국어능력 검정시험 실시 등이 관련법에 포함되어 있음.
- 전문적인 수화통역사의 양성을 위해 현재 한국수화능력시험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기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농인들이 법률, 의료, 교육, 직업 등과 같은 전문통역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수화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함.
-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현재의 수화통역사 시험문제는 수화 언어학에 근거한 측면이 전혀 없으므로 수화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험이면 수화 언어학에 근거한 문제 출제가 더욱 중요함.
  - 수화능력시험 문제 제출자와 감독자 선정기준을 만들어야 함.
  - 수화통역사 자격증 중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역 분야로 나뉘질 필요가 있음. 즉 음성통역사 자격증, 수화통역사 자격증, 이외 전문적 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 변화가 필요함. 이를 통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수화통역사 능력시험제도를 마련했으면 함. 교육, 법률, 의료 등 전문적 통역자격증 기회부여 제공.
  - 한국어능력시험 제도처럼, 수화능력시험 제도를 마련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급수제로 실시해야 함.
  - 한국어능력시험처럼 전국에서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할 것임.
  - 다양한 관련기관(복지관, 농아인협회, 청각장애관련기관, 복지담당 공무원, 기업의 복지담당자, 등)과 연계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장치가 고려되어야 함.
  - 수화 통역능력과 수화 능력은 별개의 능력임. 이에 교육현장에서 수화언어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용 수화에 초점을 둔 수화 능력시험 도입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수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 검증확인 작업을 거쳐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공고화되어야 함.



〈그림 3〉 한국어교원자격심사체계

- 자격부여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주관)에서 관리함.
-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도구가 마련된다면 이를 토대로 수화능력 평가를 통해 수화통역사 및 수화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음.

(2) 추진 방향

- 수화사용 능력 및 학습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수화능력 시험 실시를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함.
- 수화능력 시험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화 능력을 평가하고, 수화통역사 및 수화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함.

(3) 추진 내용

□ 수화능력 시험을 위한 기초 연구(단기).

- 신뢰롭고 타당한 수화 능력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실시.

□ 수화능력 시험 제도 실시(중장기).

- 국립국어원과 수화연구소의 지원을 통해 수화능력 시험 제도 실시.
  - 농학교 교사, 수화통역사 등 수화능력 평가가 필요한 사람들의 수화 능력 평가.
  - 수화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농학교 교사 임용이나 내신에 인센티브 부여.
  - 수화통역사 및 수화교원 자격 제도와의 연계.

2-3 수화교원양성 제도 마련

[주요 내용]

- 수화교원 양성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
- 한국수화교원 양성 및 배치(파견)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한국수화교원 양성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기에 수화교원 양성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수화교원 양성과 관련 기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한국수화교원 자격제도 관련 법령 및 시행 틀을 마련해야 함.
  - 한국수화교원 자격 취득에 관한 기준 설정(취득 과목 예시, 교과목 운영 현황, 한국수화교원 자격 요건, 비학위과정의 운영 및 관리 등).
-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수화교원의 자격 조건으로는 자연 언어로서의 수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기본적인 수준의 수어학 과정 이수한 사람이어야 할 것임.
  - 대학의 수화 강사 섭외 시 수화 능력이 검증된 자료 강사 섭외
  - 수화교원 양성기관(예, 대학, 협회 등의 주관) 선정에 대해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함. 또한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학에서의 교육은 어학 또는 관련 전

공을 졸업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 수화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고 수화교원의 자질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보수교육 및 연구가 요구되며, 농문화의 이해와 수화 교수법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2) 추진 방향

- 수화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화교육 교원 양성 제도 및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함.
- 수화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수화교원을 양성하고 배치하여 수화교육 환경을 개선함.

## (3) 추진 내용

### 수화 교원 양성을 위한 기초 연구(단기)

- 수화교원 양성 제도 마련을 위해 ‘수화 교원 양성 모형에 관한 연구’ 실시

### 수화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단기)

- 수화 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수화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 연구’ 실시

### 수화 교원 양성 및 배치(중장기)

- 수화 교원 양성과 관련한 연구 결과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등을 지정하여 수화 교원 양성 배출(중장기)
- 양성된 수화교원을 농학교 등에 배치함(장기)

2-4

수화통역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화통역 제도의 개선

[주요 내용]

- 수화통역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
- 수화통역사의 전문성 확보
- 수화통역사 자격의 세분화 및 급수화

(1) 현황과 문제점

- 수화통역센터에서 제공하는 수화통역서비스가 상당히 많음.
  - 청각장애인이 요청한 수화통역 요청건수는 연평균 4,401회로 나타났고, 실제 수화통역 제공건수는 연평균 2,642회로 나타남. 대상기관이 요청한 수화통역 요청건수는 연평균 256회로, 제공건수는 연평균 143회로 나타남(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 농인들이 수화통역을 받은 평균 횟수는 월 평균 7회 이상인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대다수의 경우 수화통역사의 통역을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주로 집안일, 민원문제, 회사 및 학교일 등으로 수화통역을 받음(권재일 등, 2009).
- 지역별 수화통역서비스의 편차가 큼.
  - 대도시의 경우 수화통역센터 직원이 5명인 경우가 17개소(17%)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 또한 직원이 5명인 경우가 20개소(20%)로 가장 많은 반면, 농어촌 및 도농복합도시의 경우는 수화통역센터 직원이 4명 이하인 경우가 25개소(25%)로 가장 많았음.
  - 대도시일수록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을 제공한 건수가 더 많았음.
- 농인들은 수화통역 서비스 전달체계의 불편함을 호소함.
  - 현재 수화통역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청각장애인의 경우, 자신이 선호하는 수화통역사를 지속적으로 대동할 수 없는 점, 수화통역서비스의 질, 해당지역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불편해함(한국장애인

개발원, 2012). 또한 자신의 수화통역이 제공되는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을 불편해함(권재일 등, 2009).

- 특히 전문수화통역의 수요는 증가하나 수화통역사의 전문성이 부족함(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및 도농복합도시 모두 의료영역에서 수화통역을 가장 많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 수화통역사가 주로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분야는 의료영역의 수화통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수화통역을 제공하기 부담스러운 분야로는 사법영역, 의료영역 순이었음.
  
- 그런데 현재 수화통역의 수준이 농인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함(김연신, 이준우, 2013).
  - 청각장애인의 역할 기대수준은 정보제공 역할을 넘어 어느 정도 조정의 역할 까지 기대하고 있는데 반해 수화통역인지수준은 정보제공역할에 못 미치는 의미전달 역할 수준의 수화통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또한 청각장애인의 영역별 기대수준은 법률, 의료, 일상생활, 교육, 직업통역 순으로 나타난 반면 수화통역사들은 일상생활, 의료, 교육, 직업, 법률 통역 순으로 나타남.
  
- 전문수화통역과 관련된 해결방안으로 수화통역사의 체계적 양성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권재일 등, 2009; 김연신 등 2013;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 수화통역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 수화통역사 양성기관 설립 및 교육과정 개설, 수화통역사 자격증의 세분화, 수화통역사협회 설립을 통한 수화통역사 양성제도의 질 향상 및 수화통역 보수 교육 및 연수가 요구됨.
  -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독일의 경우, 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가 다양함.
  
- 수화통역사 제도 개선과 관련된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수화통역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데, 언어에는 음성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문어를 반영한 통역이 필요함. 이를 위해 수화통역을 ‘수화-음성언어’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쓰기-읽기’로도 통역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농인들이 현재 읽기-쓰기 통역이 필요한 분야에 취직해 있음. 또한 통역의 범위가 위와 같이 확대된다면 농인의 의견이 글로 기록되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음.
- 수화통역사의 수화통역과 음성통역의 수준을 공개하여 농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 단순히 수화를 잘하는 것과 수화통역을 잘하는 것은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원 텍스트와 수화통역 텍스트를 비교하여 수화통역의 실력을 공개해야 함. 음성통역 역시 마찬가지 임. 이것은 농인의 알 권리 보장을 의미함.
- 수화통역사를 선택하는 농인의 선택권 보장되어야 함. 수화통역센터와 협회가 마구잡이로 수화통역사를 현장에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통역사 예약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농인들이 접속, 원하는 통역사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이것은 농인의 선택권 보장을 의미하고 투명성 역시 보장됨.
- 병원, 관공서 등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야하며, 국내 공식행사 시에도 반드시 수화통역사 가 배치되어할 것임.
- 수화통역사 자격시험 실시 방법 및 내용에 관한 개선이 필요함
  - 최소 연 2회 실시가 권장되고 필기시험이 서울, 대전 2곳에서 치는 것과 동일하게 실기시험도 서울, 대전 2곳 또는 더 여러 곳으로 나뉘서 시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소음제거 및 영상물 제시 등에 대한 시험장 환경 개선이 필요함.
  - 미국처럼 실기시험의 단계 및 과목을 다양화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수화통역사 시험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예를 들어, 미국처럼 등급제 제도 도입 및 명인통역사, 전문영역별 통역사(보건, 의료, 예술) 등과 같은 전문화 및 세분화.
- 수화통역사 자격증 취득 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보수교육이

주기적이지 않고, 잘 실시되지 않아서 정작 수화통역이 필요한 농학교 교사들은 보수교육 시간을 맞출 수 없어, 많은 교사의 수화통역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임. 이에 보수교육 규정을 수정하거나, 보수교육 자체를 정비해야 함. 만약 수화통역사 등급화를 할 수 없다면, 한국어능력시험처럼 수화능력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음.

- 학교뿐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으로 함)에 따라 수화통역사가 꼭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지만, 개인이나 기관에서 수화통역사를 고용 또는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재정이 부족하거나 없는 실정임. 이에 장차법이 제대로 실현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함.

**(2) 추진 방향**

- 현행 수화통역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 농인의 실질적인 정보 접근권 및 의사소통권 실현.
- 수화통역사의 통역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수화통역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수화통역사 자격 제도의 개선을 통한 수화통역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으로 농인의 삶의 질 개선

**(3) 추진 내용**

**현 수화통역센터 중심의 수화통역 제도 보완 및 개선(중단기).**

- 현 수화통역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실시(단기).
- 수화통역센터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 외 수화통역 바우처 등을 통한 다양한 수화통역 서비스 실시(중기).

□ 수화통역사의 통역 수행 기준 마련 연구(단기).

- 농인의 다양한 통역 요구에 따른 수화통역사 수행 기준 마련 연구.
  - 교육, 의료, 법률 등 통역 내용 영역에 따라 수화통역사가 갖추어야 할 통역 수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실시.
  - 수화통역사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 개선 방향 최소 기준 제시.
  - 수화통역사 자격 인정 시험 개선 방향 최소 기준 제시.

□ 수화통역사의 통역 핵심 영역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및 전문가 인력풀 구축(단기).

- 수화통역 핵심 영역(수화통역, 음성통역, 필기통역 등) 신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인력풀 구축.
  - 수화통역 핵심 영역 신장을 위한 연수 과정 개설 및 운영.
  - 수화통역 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 시 지원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 인력풀 구축.

□ 수화통역사 자격 제도의 개선(중단기).

- 수화통역 경력과 통역 수행 역량에 따라 수화통역사 자격 개선 방안 연구 실시(단기).
  - 수화통역사의 양적 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수화통역사 자격을 급수화 하여 세분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수화통역 자격 급수 기준 마련.
- 수화통역사 자격 급수 기준에 따라 수화통역사 시험 제도 개선(중기).

**3 수화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

- [세부 과제]**
- 3-1 청인을 위한 수화교육 지원
  - 3-2 수화관련 서적 및 사전 편찬 사업 지원
  - 3-3 수화 및 농문화 보존 및 홍보 사업 지원

**3-1 청인을 위한 수화교육 지원**

- [주요 내용]**
- 효과적인 수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학교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 시스템 안에서의 수화 교육

**(1) 현황과 문제점**

- 청인들의 수화지위에 대한 인식은 일반인들과 전문가들 간 의견 차이를 보임.
  - 대부분의 청인응답자들(82.2%)은 수화를 언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화 사용 농인응답자들은 수화를 사용하여 가정생활(81.0%), 학교생활(85.1%) 및 직장생활(80.1%)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81.0%)고 여기고 있었음. 또한 ‘청인 교육에서 한국수화를 제2외국어로 개설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청인의 인식 및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그렇다’가 62.4%, ‘아니다’는 12.4% ‘모르겠다’는 25.2%로 나타남(권재일 등, 2009).
  -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수화의 지위는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지금까지 수화는 언어로서 보다는 서비스의 하나로서 인식되어왔음.
    - 국내의 다수는 농인이 아니고 청인이며, 또한 언어학에서도 수화를 언어로 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함으로 지위를 높게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음.

- 수화지위가 낮은 이유는 농인에 대한 이해의 부재와 홍보의 미흡이라고 생각함.
  - 우리나라에서 수화의 지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예전에 비하여 급속도로 그 위상이 높아졌지만,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함.
- 수화통역에 대한 청인들의 인식은 농인들이 수화통역을 원하는 곳에서 제공받아야 한다(94.9%)고 응답하였고, 농인 정보접근성에 대한 청인들의 인식은 문자나 수화 메시지를 가정전화나 휴대전화로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하고(91.4%), 모든 TV방송 프로그램을 수화로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해야 하며(85.8%), 수화로 된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공해야 한다(88.9%)고 응답하였음(권재일 등, 2009).
- 청인들의 수화지위 인식 개선을 위해 농인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농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화교육이 확대되어야 함.
- 기초적인 수화교육만으로도 농인과의 의사소통이 크게 개선될 수 있고, 농인과 농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윤민석, 2013).
- 청인들을 위한 수화교육의 체계 마련.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미국에서 교육과정에 제2언어로 수화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수화강좌확대.
    - 농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 교육 기관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원 등에서 수화교육 강좌 개설 및 확대.
  - 수화학습에 필요한 수화교육과정 및 수화교재개발이 요구됨. 현재 수화교육을 할 때 농인들의 이해나 농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수화단어만을 기계적으로 가르침. 이에 배운 수화를 농인과 만난 장면에서 활용하기 어려움.
  - 이를 위해 수화통역강사 양성체계, 수화교육과정 및 수화교재개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수화’ 선택 과목 개설이 필요함.
  - 종업원 일정 수 이상 기업에 복지 담당자 또는 관리직원의 ‘수화’ 연수가 의무화 되어야 함.
  - 포털 사이트 사전에 수화사전이 추가되어야 함.
  - 전국 평생교육기관에 ‘수화’, ‘수화통역사반’ 개설 및 학점은행제, 평생학습계좌제 등의 인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일반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수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군부대에 기본소양 과목에 들어갔으면 좋겠음.

## (2) 추진 방향

- 청인들을 위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수화교육을 위해 수화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함.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 시스템 안에서의 수화 교육 실시를 통해 언어로서의 수화의 지위를 확보함.

## (3) 추진 내용

### 수화교육과정 개발 연구(단기).

- 청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수화교육을 위한 ‘수화교육과정 개발 연구’ 실시.

### 수화교육과정에 따른 수화교재 개발·보급(단기).

- 단계별 수화교재를 개발하여 보급.

### 초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의 수화 교육 실시(중장기)

- 교육부의 지원을 통해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 활동의 하나로 수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 지정하는 범교과 학습 주제에 ‘수화’ 삽입.

□ **중학교 교육과정 안에서의 수화 교육 실시(중장기).**

- 교육부의 지원을 통해 중학교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중 생활 외국어 과목의 하나로 수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 지정하는 생활 외국어 과목에 ‘수화’ 삽입.

□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의 수화 교육 실시(중장기).**

- 교육부의 지원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 영역에서 제2외국어 과목의 하나로 수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 지정하는 제2외국어 과목에 ‘수화’ 삽입.

□ **대학이나 평생교육 시스템 안에서의 수화 교육 실시(중장기).**

- 대학의 제2언어나 교양 강좌 그리고 평생교육 기관에 ‘수화’ 과목 개설.

3-2 수화관련 서적 및 사전 편찬 사업 지원

[주요 내용]

- 표준한국수화 사전의 정비 및 보완
- 다양한 맞춤형 수화사전 편찬

(1) **현황과 문제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000년 이래로 언어 소외계층의 언어권 보장 및 언어 복지 실현을 위하여 한국 수화 연구 및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 옴.

- 한국수화 표준화 사업 내용은 김아영(2013)의 자료에 근거함.
  - 한국수화사전은 2005년에 초판이 발간되었고 2007년에 개정판이 발간됨. 연령층 및 지역범위를 고려한 재개정이 요구됨.
  - 전문용어 수화집(사전별책) 5권, 전문용어 수화집(사전별책) 10권(법률, 교통, 정보통신, 의학, 천주교, 불교, 기독교, 국어교과 용어의 수화표준화 연구, 경제 용어의 수화표준화 연구, 정치 용어의 수화표준화 연구)이 발간됨.
  - 기타 수화관련 사전이 발간됨. 즉 외국수화사전(일본어 수화 사전, 한국어-스페인 수화사전, 한국어-미국 수화사전)과 기타 사전(한국 수화 어원 사전, 한국 수화 문형 사전)이 포함됨.
  - 수화교육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는 한국 수화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표준 수화 교재 총 5권이 편찬됨. 기타 교재로는 수화로 하는 애국가, 국기에 대한 맹세 및 한글날 노래가 제작되었고, 한국 수화 한국어 교재로는 한국 수화에 의한 한국어 문장 지도, 한국 수화에 의한 한국어 문법 교육이 제작됨. 또한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함께 배우는 한국 수화가 제작되어 30주 동안 60편이 방영됨.
  - 수화정보화를 위하여 2009년도에 한국수화사전을 동영상 웹사전으로 개발함.
  
- 수화관련 서적 및 수화사전 편찬과 관련하여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현재 개발된 전문분야별사전의 경우 그 활용도가 낮음.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조사한 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개발된 표준수화사전도 개정판이 필요함.
    -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어휘 확충이 필요함.
    - 현재 단어 중심의 사전을 숙어사전, 문장사전 등으로 확장해야 함.
    - 인터넷 한국수화사전에 잘못된 것들이 있음. 예를 들어 동음이의어 같은 경우, 해설과 수화동영상이 서로 바뀌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알려서 수정할 수 있는 게시판이 활용되었으면 함.
    - 수화 단어를 찾을 때 동사는 기본형만 인식돼서 어휘력이 약한 농학생들은 사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음. 이에 찾기 기능에 기본형뿐만 아니라

어미가 변형된 형태로도 찾을 수 있도록 기능이 보충(예: 믿다, 믿는, 믿어, 믿지, 믿으니까)되어야 함.

- 수화관련 사전을 편찬할 때는 연령층, 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함.
  - 수화 관련 서적이 협회, 종교단체 또는 개인(교수, 연구자) 중심으로 소량으로 출판되다 보니, 시중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편함.
  - 수화 관련 서적 출판 시 전자출판도 동시에 해야 함. e-book, app-book을 활용하여 더 싸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함.
  - 수화기초 관련 서적만 많고 중급 단계의 책이 부족하므로 중급 이상의 수화관련 서적 편찬이 독려되어야 함.
  - 수어와 관련된 상식, 농문화, 농역사, 농사회 등 서적을 많이 편찬하는 것이 중요함.
- 농아인협회 각 지부별로 수어 관련 서적을 편찬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필요함.

○ 기존 한국어-수화 사전의 문제점은 윤점룡 등(2008)자료에 기초함.

- 한국어 단어에 대응하는 수화 단어만을 규정하고 있음.
  - 어휘를 표준화하겠다는 의도에서 제작됨.
  - 특정 한국어 단어에 대응하는 수화 단어를 모아, 수화하는 법을 글로 설명하거나 그림 혹은 사진으로 제시됨.
  - 단방향이고(한국어→수화), 두 언어(한국어와 수화)를 사용했으며, 한국어 표제어에 상응하는 수화 단어를 제시함.
  - 수화 사용 농인들이 한국어 단어의 뜻과 용례 등에 대해 수화로 정보 제시 받을 수 있는 사전 제작이 필요함(Crabtree & Powers, 2000).
- 지역마다 계층마다 서로 다른 수화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 대부분의 한국어-수화 사전들은 지역 간 계층 간 출신학교별 차이(서준환, 2003; Lucas, 2003; Schermer, 2003)를 어휘 수준에서든, 화용 수준에서든 반영한 경우가 전무함.
  - 특히 청각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어-수화 사전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과 계층, 출신학교에 속한 청각장애인이 해당 한국어 단어나 표현에 대한 수화 설명을 하는지 고려해야 함.

- 수화사용농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충분하게 담겨 있지 않음.
  - 수화에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Johnston, 2003), 기존 수화 사전들은 한국어 단어에 대응하는 수화 단어를 그림이나 사진, 간단한 동영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존 수화 사전들은 한국어 단어의 뜻과 용례 등을 수화 사용 농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 다양한 수화 사용 공동체의 참여가 부족했음.
  - 대부분의 수화 사용자 공동체 내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수화가 존재하지 않지만(Lucas & Valli, 1989), 문어에서 강조하는 수화 형태가 선호됨(Johnston, 2003).
  - 수화사용자 공동체 내 지역 간 차이뿐만 아니라 세대 간 차이, 개인 간 차이도 크기 때문에 누구를 표집 하여, 어떤 수화를 촬영하거나 기록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수화사전 제작 시 고려되어야 함.
  - 기존 한국어-수화 사전들의 제작 시 수화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수화의 선택과 보급, 유지, 성문화, 규범 제정 과정들이 진행되었음. 이 과정들은 문자가 없이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청각장애학생들이 교육 장면에서 해당 수화를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수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헌들이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되었음.
  - 기존 한국어-수화 사전들은 수화 모델이나 정보 제공자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모화자인가? 농인 가족 구성원인가? 농인 가족과 함께 수화로 의사소통하면서 자라난 사람인가? 수화자가 참여하는 수화 공동체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지역적인 기반이 있는가? 주기적으로 만나는가? 만남의 목적이 다양하고 분명한가? 등의 하는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여 가급적이면 보다 큰 권위를 갖는 수화를 표집해야 함.
  - 수화 선택 기준뿐만 아니라 배제 기준을 마련하여 수화를 수집해야함.

- 독일의 경우, 함부르크의 ‘수화와 농인의 의사소통 연구소’에서 만든 수화 전문 용어 사전은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독일어 한 단어에 대해 수화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화 기호들을 보여줌(홍성은, 2013).

## (2) 추진 방향

- 표준수화사전의 지속적인 보완·수정을 통해 표준수화사전의 완성도를 높이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함.
- 전문용어 사전의 보완·수정 및 다양한 영역의 전문용어 사전 편찬 사업을 지원하므로 전문수화용어를 정비함.

## (3) 추진 내용

### 표준수화사전의 지속적인 보완 및 수정(단중장기).

- 표준수화심의 위원회를 통해 표준수화사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함.
- 표준수화사전을 주요 기관 웹사이트의 텍스트 자료와 연결(링크)하여 한국어 단어에 해당하는 수화 단어를 제공함(중기).

### 전문용어 사전의 보완·수정 및 다양한 전문 용어 사전 편찬(중장기).

- 표준수화심의 위원회를 통해 현재 나와 있는 전문용어 사전을 보완하고 수정함.
- 농인들의 고등교육기회와 다양한 분야로의 사회진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전문분야 용어가 필요해짐. 이에 요구조사를 통해 전문 영역의 용어 사전을 발간함.

### 수화-수화 사전의 개발 및 편찬(장기).

- 한국수화 단어를 한국수화로 설명하는 사전을 편찬함.
  - 표제어를 수위소(수형-> 수위)에 기초하여 수화 단어로 제시하고 그 수화단어

에 대한 설명을 수화로 하는 수-수 사전의 편찬.

□ 한국어-수화 사전의 보완 및 수정(단기).

- 현재 한국어 단어 표제어를 수화로 설명하는 동영상 사전을 보완하고 수정함.
  - 현 한국어-수화 동영상 사전의 어휘 수를 확대 및 보완하고 수화 사용자의 모니터링을 통한 수정 작업

3-3

수화와 농문화 보존 사업 지원

[주요 내용]

- 농문화 및 시대별 수화 자료 수집
- 수화와 농문화 보급을 위한 홍보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농인들에게 어린시기부터 이중 언어와 이중문화에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함.
- 미국에서는 농인이 사용하는 수화가 언어로서 인식되며, 농인 사회를 언어적 소수파이자 문화적 집단으로서 인식함. 농 문화란 농인의 언어, 농인의 행동 규범, 가치관 등으로 농인의 언어인 수화와 그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임(민은주, 2011, 박경란, 2010).
- 이중 언어의 긍정적인 측면이 연구 보고됨(Abdelilah-Bauer, Barbara, 2012).
  -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창의적이고, ‘확산적 사고’를 하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놓을 수 있는 해결방법에서 ‘수렴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보다 다양함을 보여줌.
  - 또한 언어를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해줌. 메타언어적 인식은 단일 언어

아이들보다 이중 언어 아이들에게 일찍 나타나므로, 이른 나이에 두 개의 다른 언어 시스템을 작동시킴으로써 아이들은 단어의 자의성을 이해하게 되고 단어와 의미를 분리해 생각할 줄 알게 됨. 이중 언어 아이들은 읽기에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능력을 보다 빨리 습득함.

- 이중 언어 아이들은 보다 풍부한 소통감수성을 지니게 됨. 이중 언어 아이들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 아니라 대상 상대의 요구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언어적, 비언어적 지시 내용도 더 섬세하게 포착해냄.
- 이중 언어와 이중문화를 가진 아이들은 두 나라, 두 문화집단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장착하고 중재가라는 특성도 함께 지니게 됨. 이에 이중 언어 아이들은 다른 집단 사람들보다 훨씬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짐. 이중 언어와 이중문화를 가진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적 차이에 대해 훨씬 개방적이고 관대한 태도를 가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음.

○ 이에 수화와 농문화를 보존하는 사업이 지원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수화와 농문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함.

○ 수화 및 농문화 보존 사업 지원과 관련된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수화극장(프랑스처럼)을 세우고 연극가를 양성함.
- 수화방송 고정 채널 운영.
- 수어와 관련된 좋은 콘텐츠를 제공한 블로거를 정기적으로 선정하여 상을 주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화 사용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블로거 선정은 농아인협회가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다만, 협회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는 폐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 협회가 찾아서 선정하는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가야됨.

○ 다양한 홍보 전략과 관련된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하철 스크린 도어 및 TV광고, 대중교통 버스 및 지하철 포스터 부착,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늘 TV를 켜두는 공공장소에 홍보 동영상을 주기적으로 방영하는 것이 필요함.

- TV를 통한 수화 관련 공익 광고가 필요하며, TV광고 중에서 최소 공익광고 시에는 반드시 수화통역 화면을 포함하도록 함.
- 포털(네이버, 다음, 유튜브 등) 및 삽화제작을 통한 온라인 광고가 필요하며 포털 한 코너에 수화포털 사이트가 연결되거나 게시판이 들어가도록 함. 기본적인 부분을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하여 지정된 홈페이지에 꾸준히 업데이트 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함.
- 국가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을 활용하여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월 1회 이상 기초수화 단어를 2개 정도를 제공해 줌.
- 수화 관련 방송콘텐츠 제작(현재 한국어 바른말 사용과 관련하여 방송하고 있는 '바른말 고운말' 3분 프로그램처럼 수화도 프로그램 제작)
- 농아인협회가 신문사와 MOU를 맺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법.

## (2) 추진 방향

- 수화와 농문화의 보존을 위해 농문화 관련 자료 및 시대별·지역별 수화 자료를 수집하여 보급함.
- 다양한 홍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화 및 농문화를 홍보함.

## (3) 추진 내용

### 농문화 관련 서적 및 동영상 보급(중기).

- 농당사자, 농인 가족, 농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농문화의 형태를 수집하여 서적 및 동영상 자료로 발간하여 보급함.

### 수화 시와 수화 이야기 등 수화 예술 공연 지원

- 수화 시 및 수화 이야기 대회 등 정기적인 예술 공연 개최
  - 농아인 협회 및 농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수화 예술 공연 대회 개최
- 수화 예술단 지원 사업 전개

□ ‘한국수화의 날’ 지정(중기).

- 한국수화의 언어적 지위를 확보하고 일반국민들의 수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수화의 날’을 지정함.

□ 수화관련 방송 및 웹 콘텐츠 제작 사업 지원(중기).

- 수화연구소와 국립국어원이 연계하여 수화 관련 방송 콘텐츠 제작함  
- ‘바른 수화 고운 수화’ 프로그램 제작.
- 수화연구소와 문화관광부, 그리고 방송국이 연계하여 수화로 동화를 읽어주는 사이트를 만듦(영국의 ITV Signed Stories, [www.signedstories.com](http://www.signedstories.com) 참조).

□ 수화방송국 지원 사업(중기).

- 현 한국농아인협회 산하의 수화방송국을 지원함.

4

수화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 전개

[세부 과제]

- 4-1 수화연구소 설립 및 수화표준화심의위원회 운영
- 4-2 농인 수화 연구자 양성
- 4-3 수화연구 지원 사업

4-1

수화연구소 설립 및 수화표준화심의위원회 운영

[주요 내용]

- 한국수화 표준화 작업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수화 교육 및 연구 등 전반적인 수화 관련 사업을 관장하는 수화 연구소 설립 및 운영

(1) 현황과 문제점

-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각 시도별 전문가(수화통역사 및 농학교 교사 대표 1인 이상)로 이루어진 전국 단위의 편찬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다양한 언어학분야의 연구 주제들은 주로 유럽과 미국에 있는 여러 수화연구소에서 주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짐(홍성은, 2013).
  - 수화를 연구하는 기관은 열거에 열거한 것보다 많지만 세계 우수 수화언어학 연구소들을 나라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독일(함부르크 대학교 수화와 농인의 의사소통 연구소), 영국(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농 인지와 언어 연구소, 맨체스터 대학교), 네덜란드(네이메헌 라드바우드 대학교, 암스테르담 대학교, 네이메헌 막스플랑크 심리 언어학 연구소), 오스트리아(클라겐푸르트 대학교, 그라츠 칼프란첸 대학교), 스위스(바젤 수화 연구 센터), 프랑스(파리 8대학교), 스웨덴(스톡홀름 대학교), 미국(워싱턴 겔러멧 대학교, 인디애나 퍼듀 대학교, 코네티컷 대학교, 뉴멕시코 대학교, 텍사스오스틴 대학교,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주립 대학교), 호주(매쿼리 대학교), 이스라엘(하이파 대학교), 홍콩(홍콩 중문 대학교), 브라질(산타카타리나 대학교)
  - 위에 열거한 기관들은 수화의 구조를 분석할 때 기술적 방법을 제공하며, 이 기관들에서는 언어학자가 수화의 구조, 규칙, 패턴을 실제 사용자가 쓰는 대로 기술함. 또한 다양한 방언과 변이형에서 볼 수 있는 언어의 다양성은 그 자체로 기록함(예, 독일 함부르크의 ‘수화와 농인의 의사소통연구소’에서 만든 수화전문용어사전).
  
- 홍성은(2013)은 수화 연구 역사가 매우 짧거나 비언어학자(주로 농학교 특수교사)가 연구를 주도하는 나라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나열함.
  - 첫째, 수화 연구가 어휘적 수준에서 시작됨. 즉, 수화 기호를 수집하고 목록을 만드는 활동을 주로 하고, 수집된 수화 기호들의 목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방대해지며, 대부분 수화를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전 편찬으

로 이어짐.

- 둘째, 연구자가 수화를 분석할 때 구어에서 출발하거나, 농사회의 자연 수화보다 구어를 시각화한 형태를 분석하기도 함.

○ 수화연구소설립과 관련된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수화연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체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수화연구는 단기연구보다 장기연구들이 많을 수 있으므로 국가 및 대학 등 재정지원과 관련된 연구도 선행되어야 함.
- 수어연구소(가칭)를 세워 수어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팀을 만들어 조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수화연구소 구성원으로는 농인, 수화통역사, 학자, 농학교 교사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각 시도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수화연구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 수어 연수, 수어 교육, 수어 박물관, 수어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함.
  - 연구소 재원 등을 마련할 수 있게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 수화 전문 교육 기관을 지방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한국농아인협회(이하 중앙회) 및 각 시도 협회 산하 지부별로 수어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
  - 중앙회에서 수어연구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시도 협회 및 지부에서도 수어연구 위원회를 두어 체계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 (2) 추진 방향

- 수화표준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화 관련 사전 및 서적 편찬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심의를 하므로 수화의 표준화와 올바른 수화 사용에 힘씀.
- 수화 연구의 활성화 및 체계화를 위해 수화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함.

(3) 추진 내용

□ 수화표준화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장기).

- 농사회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화표준화심의위원회 운영하여 수화 관련 사전 및 서적 편찬에 대한 심의 및 전문적인 자문 제공.

□ 수화연구소 설립(장기).

- 수화연구의 활성화와 체계화를 위해 수화 관련 교육 및 연구 사업을 관장하는 수화 연구소 설립.

4-2

농인 수화 연구자 양성

[주요 내용]

- 한국 수화 보존을 위한 지원 사업 전개
- 한국 수화 사용자인 농인들의 수화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 전개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사회에서는 한국어가 다수언어임. 소수언어와 문화는 소멸되기 쉬움. 이에 소수언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함(Abdelilah-Bauer, Barbara, 2012).
- 한국 수화는 한국사회에서 소수언어이므로 소멸되기 쉬움. 한국 수화 보존을 위한 지원 사업이 요구됨.
- 소수언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수 언어 당사자들의 참여가 유도되어야 함. 특히 농당사자의 전문성을 확보되어야 함.

- 농인 수화 연구자 양성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 및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농언어학자 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함.
  - 농인이 코퍼스 연구에 적극적인 정보제공자로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함.

## (2) 추진 방향

- 한국어와 한국수화 이중 언어 환경에서 유실되고 오염되어 가고 있는 한국수화를 보존하기 위해 한국어에 오염되지 않은 수화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사업 지원
- 수화를 모어로 사용하는 농인 수화연구자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사업 전개

## (3) 추진 내용

### □ 한국 수화 보존을 위한 지원 사업

- 한국수화 사용자들의 수화 수집 및 기록 사업 지원

### □ 농인 수화 연구자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 농인 수화 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농인 수화 연구자 해외 연수 지원 사업 전개

4-3

## 수화연구 지원 사업

### [주요 내용]

- 수화연구자들의 수화 연구를 위한 지원 사업 전개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수화 및 관련 연구는 1983년에 처음으로 1편이 발표되었으며, 그 후 2009년 2월말까지 모두 122편이 발표됨. 이 중에는 석·박사학위 논문이 72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50편이었음(한국청각장애교육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9).
  - 122편의 논문은 수화문법에 관한 논문 23편(한국수화 단어의 구성 등에 관한 연구, 한국 수화의 비수지 신호에 관한 연구, 한글식 수화 표준화 연구, 한국 수화 문형 연구), 수화습득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12편(대체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수화 습득), 수화통신 등에 관한 연구 47편, 수화와 관련된 비교 연구 9편, 수화통역 및 관련 연구 1편, 수화에 대한 태도 연구 2편, 기타 수화 관련 연구 9편이 포함됨.
  
- 한국수화 및 관련 연구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모두 61편이 발표됨. 이 중에는 석·박사학위 논문이 28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33편이었음.
  - 61편의 논문은 수화문법에 관한 논문 15편, 수화습득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15편, 수화통신 등에 관한 연구 6편, 수화와 관련된 비교 연구 12편, 수화통역 및 관련 연구 1편, 수화에 대한 태도 연구 1편, 이중 언어와 관련된 연구 3편, 기타 수화 관련 연구 4편이 포함됨.
  
- 홍성은(2013)에 의하면, 수화 언어학의 최근 동향은 다음과 같음.
  - 수화 언어학에는 아직 연구되지 않은 영역이 많으나 최근 다양한 주제를 다룬 수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짐.
  - 미국이나 유럽, 호주의 초기 수화 연구들은 소위 분류사나 일치동사 등 형태론적 주제에 대한 기술이 많았음.
  - 최근 ‘수화 연구의 이론적 이슈(Theoretical Issues in Sign Language Research, TISLR)’라는 국제 학술 대회에서는 사회 언어학, 운율학, 비수지 신호, 심리 언어학, 토착 수화와 이중 언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짐.
    - 사회 언어학자들은 수화의 변이를 연구 분석함(Schembri & Johnston, 2013):

영국 수화(BSL) 연구(Fenlon, et al., 2013), 미국 수화(ASL) 연구(McCaskill, et al., 2001).

- 시각 언어인 수화의 운율 체계는 구어의 운율 요소인 강세(prominence cues)나 억양(intonation)(Wilbur, 2000; Sandler, 2012)과 같은 유사한 자질들을 연구됨.
- 비수지 기호 분야에서는 시선 추적 기술(eye tracking technology)이 수화에서 시선과 눈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음(cf. Thompson, Emmorey & Kluender, 2009).
- 심리 언어학에서는 fMRI와 같은 기술의 사용이 수화 정보 처리 과정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함(Newman et al., 2010).
- 많은 수화 언어학자들은 전 세계 곳곳의 토착 수화를 기록함: 알리푸르(Alipur) 수화(Sibaji 2012), 이스라엘 내 알제리 유대인 수화(Lanesman & Meir, 2012), 카타 콜록(Kata Kolok, 인도네시아 발리 수화(de Vos, 2012))
- 이중 언어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는 코드 블렌딩(code-blending)이 문어(written language)의 인지에 주는 영향뿐만 아니라 이중 언어 구사의 발달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함(Morford et al., 2011).

○ 윤석민(2013)은 수화 코퍼스 구축 및 한국 수화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현재 한국 수화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임.
- 수화는 지역적, 계층적으로 다양하므로 한국수화의 원형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농인의 수화를 수집하고 축적해야 함.

○ 수화연구지원사업 관련 초점집단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코퍼스 연구에 농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
- 연구한 내용을 농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
- 한국수화학회 학술지 원고를 페이퍼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화영상으로도 등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농인들이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야 됨.

(2) 추진 방향

- 수화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수화학회 및 소연구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함.
- 수화연구에 농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수화문자 및 수화영상을 통한 연구 사업을 지원함.

(3) 추진 내용

□ 수화학회 및 소연구회 활동 지원 사업(중장기).

- 수화를 연구하는 학회 및 소연구회 활동을 지원하는 ‘풀뿌리 수화 연구 지원 사업’을 전개함.

□ 수화문자 및 수화영상으로 발간한 수화연구물 지원 사업(중장기).

- 수화문자로 발간하는 수화연구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전개함.
- 수화영상으로 발간하는 수화연구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전개함.

5

수화를 통한 정보화 사업 전개

[세부 과제]

- 5-1 수화코퍼스 구축 사업
- 5-2 수화 정보 동영상 자료 구축 DB화
- 5-3 수화기반 웹 접근성 사업 전개
- 5-4 수화문자 개발 및 보급

5-1

수화코퍼스 구축 사업

[주요 내용]

- 수화코퍼스 구축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 실시

### (1) 현황과 문제점

- 코퍼스는 특정 언어의 말들을 모아서 과학적으로 편집한 것(말뭉치)임. 일반 코퍼스 언어학에서 코퍼스 구축을 정당화하는 이유 외에, 수화에서 특별히 코퍼스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홍성은, 2013).
  - 수화는 널리 통용되는 문자체계가 없어서 농 사회의 규모가 작아지면 다음 세대로 수화를 전하는 것이 힘들어짐. 수화 코퍼스 구축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음. 즉 국가의 수화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의 농인과 청인들을 위해 수화 자료를 저장하는 것에 도움이 됨.
  - 수화에 대한 연구는 구어 연구에 비해 역사가 짧기 때문에, 수화 어휘와 수화의 문법화에 관련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상황임. 이는 수화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많은 경우 수화 구조의 문법적 측면은 주어진 맥락에서 발화를 관찰하고 나서야 정확하게 해석 가능함. 이에 코퍼스는 상황 맥락 파악이 필요한 주제에 접근할 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수화에는 수많은 지역어와 방언이 있으므로 코퍼스는 이런 변이들의 패턴과 역할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이 자료들을 기록하고 기술하는데 도움이 됨. 즉 현존하는 수화의 다양한 변이들, 지역 수화와 수화 방언의 지리적 분포를 지도로 작성할 수 있음.
  - 코퍼스에 기반을 둔 연구 결과들은 수화를 제2 언어로 배우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교재 및 수화를 제1 언어, 모어로 사용할 다음 세대 농아동들의 수화 습득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음.
  - 수화 코퍼스는 영국 수화, 네덜란드 수화, 독일 수화, 스웨덴 수화, 아일랜드 수화, 호주 수화, 미국 수화, 프랑스 수화, 폴란드 수화, 스위스독일 수화, 뉴질랜드 수화에서 찾아볼 수 있음. 유럽에서 코퍼스에 대한 요구는 수화 언어 학자 간의 과학적 토론과 협동의 필요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09년에는 수화 코퍼스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지식을 수집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화코퍼스네트워크(SLCN, A Sign Linguistics Corpora Network)가 설립되었음.
  
-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 코퍼스 연구에 농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음.

(2) 추진 방향

- 수화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화코퍼스 구축 사업을 지원함.

(3) 추진 내용

□ 수화코퍼스 구축 사업 전개(장기).

- 장기프로젝트를 통해 수화코퍼스 구축 사업을 전개함.

□ 북한 수화 및 노인들이 사용하는 수화 수집·보급.

- 북한 수화를 수집하여 서적 및 동영상 자료로 발간하여 보급함.
- 노인들이 사용하는 수화를 수집하여 서적 및 동영상 자료로 발간하여 보급함.

5-2 수화 정보 동영상 자료 구축 및 DB화

[주요 내용]

- 농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관련 도서를 수화로 번역한 동영상 도서 제작 및 사업 확대
- 수화동영상 자료의 DB화 사업
- 다양한 정보를 수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수화정보센터 설립

(1) 현황과 문제점

- 농인들은 도서 및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정보를 충분하게 얻지 못함. 동영상에 자막만을 넣는다고 해서 농인들이 모든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움. 이에 다양한 자료들을 수화로 번역하는 작업이 요구됨.
- 미국 내쉬빌 도서관에는 농문화, 농정체성, 요리, 요가, 응급처치 등 생활에 필수적인 도서 및 자료들을 수화로 번역하여 영상도서 및 DVD 로 제공하고 있음([www.library.nashville.org](http://www.library.nashville.org)).

요리	요가	화재 예방	음악	응급처치

- 국립장애인 도서관은 2007년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로 시작되어 2012년 개정 도서관법의 시행과 더불어 설립됨(nlid.nl.go.kr).
  -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교육, 고용, 사회 참여, 문화 향유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균등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식정보 접근과 이용 능력이 중요하여 설립되게 됨.
  - 2012년 현재 수화영상 도서 169권을 보유하고 있음.
- 한국복지대학교는 대학 교재를 수화로 번역하여 영상교재로 제작하여 수업에 활용하고 있음.
- 수화동영상자료들은 농인들이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초점집단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수화 관련 서적이 협회, 종교단체 또는 개인(교수, 연구자) 중심으로 소량으로 출판됨.
    - 시중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개인적으로 수소문해서 구입해야 하므로 불편함.
    - 수화 관련 서적 출판 시 전자출판도 동시 출판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e-book, app-book을 활용하면 더 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이에 수화로 된 영상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수화영상 자료의 DB화 사업을 지원해야 함.
  - 농인들이 실생활에서 수화에 대한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수화 사용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즉 농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이에 수화정보센터가 요구됨.
  
- 수화정보센터(가칭) 설립 관련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수화에 대한 자료, 농인들이 전국의 시도에 수화통역센터들이 있지만 종합적인 정보를 받는데 한계가 있음. 생활 전반에 관련된 정보를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한다면 농사회 관련된 사람들 외에 다른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임.
  - 인터넷 방송, 뉴스, 농교육, 농사회, 농아인협회, 수화자격증, 직업, 수화교육, 청각장애관련 정보 등 각 정보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함께 제공되는 곳이 필요함.
  - 하나의 홈페이지 안에 범주를 만들어 현재 개발된 사이트들을 링크해서 집대성하는 것이 필요함.

## (2) 추진 방향

- 수화 사용 농인의 지식정보 접근을 확대·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어로 된 다양한 도서를 수화로 번역하여 제공함
  
- 수화로 된 영상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수화영상 자료의 DB화 사업을 지원함
  
- 수화로 정보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주관할 수 있는 수화정보센터를 설립함

(3) 추진 내용

수화 영상 도서 제작 사업 지원

○ 아동을 위한 수화 영상 도서 제작 사업 지원

- 아동용 필독 도서를 선정하여 수화로 번역·촬영하여 제작한 수화 영상도서 제작 사업

○ 청소년을 위한 수화 영상 도서 제작 사업 지원

- 청소년용 필독 도서를 선정하여 수화로 번역·촬영하여 제작한 수화 영상도서 제작 사업

○ 성인을 위한 수화 영상 도서 제작 사업 지원

- 성인을 위한 도서를 선정하여 수화로 번역·촬영하여 제작한 수화 영상도서 제작 사업

수화 영상 자료의 DB 구축 사업 지원

- 이미 제작된 수화 영상자료를 수집하여 DB 구축 사업을 전개함

수화정보센터 설립

- 수화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관장하는 수화정보센터 설립

5-3

**수화 기반 웹 접근성 사업 전개**

**[주요 내용]**

- 수화를 통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
- 수화 웹 접근성 평가 센터의 설립

**(1) 현황과 문제점**

- 웹 접근성이란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만드는 것임(웹 접근성 연구소 참조, [www.wah.or.kr](http://www.wah.or.kr)).
- 웹이란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함.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함.
- 웹 접근성이 있다는 것은 장애인들이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인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perceivable)하고, 운영하고(operable), 이해하고(understandable), 기술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견고(robust)하게 웹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함(웹 접근성 이니셔티브, WAI: Web Accessibility Initiative).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에 대한 실질적인 웹 접근성 준수 및 사용성 평가를 위한 표준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2009년 한국웹접근성평가원이 설립되었음. 장애유형별 웹 접근성 준수 요구기능들을 정리해 놓았는데,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웹 접근성 요소(인식의 접근성)로 음성, 동영상 자막 제공으로 제시됨.
- 2008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를 개소함. 본 센터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확보를 위해 웹 접근성 평가와 기술자문, 모바일 앱 평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www.kbuwel.or.kr](http://www.kbuwel.or.kr)).
- 본 센터는 웹과 모바일로 구분함.

- 웹에서는 KWCAG와 센터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로 진행하고 있으며, 웹사이트 제작시에 KWCAG 적용 방법 등 웹 접근성 실제에 대한 기술 상담과 웹 접근성 개선 이후 관리자들이 관리소홀로 인하여 웹사이트의 접근성이 낮아지는 사례들이 있어 이에 대한 사용자 중심의 모니터링 진행하고 있음.
  - 모바일 앱에서는 장애인이 접근 이용가능한 모바일 단말기 중심으로 모바일 앱에 대한 접근성 사용자 평가와 모바일 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발 방법론을 연구 및 보급함.
  - 청각장애유형에 대한 지침이 평가원가 유사했음.
- 농인들이 자막이 제공되었을 때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지침은 없었음. 농인을 위한 웹 접근성 평가지침을 수정 및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농인을 위한 웹 정보접근 평가들은 동영상에 자막이 잘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됨.
  - 현재 정보화교육이 활성화되어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능력은 매우 좋아졌으나 현재에도 문해 능력이 낮은 농인들의 웹 접근성은 매우 낮음.
  - 이에 농인들의 정보접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평가지침의 수정이 요구됨.
- 수화 기반의 다양한 정보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수화 기반 웹 콘텐츠 제작 및 보급이 필요함.
- 웹 콘텐츠의 제작이 시급함. 의사소통의 한계와 문해 능력이 낮은 농인들에게 사회참여를 위한 수화기반의 웹 콘텐츠 제작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웹 접근성이 있다는 것은 장애인들이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인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perceivable)하고, 운영하고(operable), 이해하고(understandable), 기술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견고(robust)하게 웹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함.
  -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날로 성장하는 요즘 장애인의 모바일 정보 접근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요

함(평혜선, 이지훈, 조재윤, 2012).

- 수화번역 어플리케이션은 입력된 문자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원 사이의 관계-의미 정보를 파악하여 3D 모바일 환경에 출력하여 문자 정보의 수화 번역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기술임.
- 청각 장애인이 모바일 기기에서 볼 수 있는 동영상(영화, 드라마, 강의) 수화 통역 컨버전스 영상 제작 사업, 청각 장애인 모바일 디지털 북 제작 사업, 청각 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자막 생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음.

○ 농인을 위한 웹 접근성 평가시스템의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화 웹 접근성 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수화 웹 접근성 센터의 설립이 요구됨.

○ 초점 집단 인터뷰에서는 수화 및 농문화 보존과 관련지어 수화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 수화극장(프랑스처럼)을 세우고 연극가를 양성함.
- 수화방송 고정 채널 운영.
- 수어와 관련된 좋은 콘텐츠를 제공한 블로거를 정기적으로 선정하여 상을 주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화 사용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블로거 선정은 농아인협회가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다만, 협회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는 폐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 협회가 찾아서 선정하는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가야됨.

## (2) 추진 방향

○ 농인의 웹 접근성을 확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인터넷 웹사이트의 음성 및 텍스트로 된 주요 정보에 대한 수화 번역을 제공함.

○ 농인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 및 웹상에서 수화로 제작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

- 농인들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수화접근성 센터의 설립
- 농인들의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을 위해 수화방송국 설립

### (3) 추진 내용

#### □ 인터넷 웹사이트의 주요 정보에 대한 수화번역 제공(중단기).

- 정부 주요 기관 웹사이트의 주요 공지 내용에 대한 수화 번역 제공(단기).
- 주요 웹사이트의 텍스트 정보에 대한 수화 단어 연결 제공(중기).
  - 웹사이트의 텍스트 정보에서 단어를 클릭하면 국립국어원의 한국표준수화사전과 연결하여 수화로 단어에 대한 해석을 제공함.

#### □ 수화관련 방송 및 웹 콘텐츠 제작 사업 지원(중기).

- 수화연구소와 국립국어원이 연계하여 수화 관련 방송 콘텐츠 제작함
  - ‘바른 수화 고운 수화’ 프로그램 제작.
- 수화연구소와 문화관광부, 그리고 방송국이 연계하여 수화로 동화를 읽어주는 사이트를 만듦(영국의 ITV Signed Stories, [www.signedstories.com](http://www.signedstories.com) 참조).
- 다양한 형태의 수화사전의 웹 버전 제작 사업 지원
  - 기 제작된 수화 사전을 웹상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 웹 버전 수화 사전 제작

#### □ 수화 웹 접근성 센터 설립

-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화 웹 접근성 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수화 웹 접근성 센터의 설립

□ 수화방송국 지원 사업(중기).

- 현 한국농아인협회 산하의 수화방송국을 지원함.

5-4

수화문자 개발 및 보급

[주요 내용]

- 한국수화를 기록할 수 있는 수화 문자의 개발 및 보급

(1) 현황과 문제점

- 수화문자란 수화의 쓰기 체계로 수화를 손모양, 동작, 얼굴표정으로 나타내는 시각적 상징임(www.SignWriting.org).
  - 수화문자는 1974년 무용가인 Sutton에 의해 DanceWriting으로 개발되었음.
- 농인의 문해 능력 향상을 위한 한 방법으로 수화문자의 필요성이 강조됨(Flood, 2002).
  - 일상생활에서는 대인간 의사소통 기술(어휘, 문법, 사용 기술)과 학교에서는 인지 학업적 언어 기술(읽기, 쓰기, 학습, 추론 기술)이 필요함.
  - 농인들에게 이중언어교육은 매우 중요한 반면 그들의 문해 능력은 매우 낮음 (Knors & Marschark, 2012).
  - 현재 자연수화를 표상할 수 있는 문자 상징체계에 대한 연구들이 많으며, 미국수화문자가 개발되어 있음(Flood, 2002).
- 한국 수화는 자연수화를 표상할 수 있는 쓰기체계가 없고, 수화문자 개발이 요구됨.
- 초점집단인터뷰결과, 수화 문자(문화적 요소) 연구 지원이 필요하고, 한국 수화

문자 체계를 개발하여 농학교에 확대 보급하는 것이 필요함.

**(2) 추진 방향**

- 한국수화 발전을 위해 수화를 기록할 수 있는 수화 문자에 대한 연구 개발 사업 지원
- 수화 문자를 보급하기 위한 교육 및 홈페이지 제작 사업과 수화 문자 서적 발간 사업 지원

**(3) 추진 내용**

**한국수화 기반 수화문자 개발 연구(단기)**

- 한국수화 문자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 실시
  - 미국수화의 수화문자와 비교 분석하여 한국수화를 기록할 수 있는 부호 체계 마련

**수화문자(Sign Writing)의 보급 및 수화문자 서적의 발간(단기중기).**

- 수화문자(Sign Writing) 교육 실시(단기).
- 한국수화 문자의 보급 및 세계화를 위한 수화문자 홈페이지 제작 사업 지원
- 수화문자 서적 발간 사업 지원(중기)

**4.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안 장·중·단기 계획**

-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안 실행을 위해 세부 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함. 구체적인 내용은 <표 V-2>에 제시하였음.



〈표 V-2〉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의 장·중·단기 계획

(2)

추진과제	세부과제	주요내용	추진 내용	단기	중기	장기
				2016년 ~2018년	2017년 ~2020년	2020년 ~2025년
2.1 수화사용 실태 조사	수화사용 실태 조사	□ 다양한 수화 편이에 대한 연구 실시 □ 한국 수화 사용 실태 조사 실시	■ 한국수화 편이 형태에 대한 연구 지원 사업 ■ 한국수화 사용 실태 조사 실시	▶▶▶▶▶	▶▶▶▶▶	▶▶▶▶▶
	2.2 수화능력 시험 평가제도 마련	□ 수화능력 시험 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 실시 □ 수화능력 시험 실시 취학을 위한 기준 마련	■ 수화능력 시험을 위한 기초 연구 ■ 수화능력 시험 제도 실시	▶▶▶▶▶	▶▶▶▶▶	▶▶▶▶▶
	2.3 수화교원 양성 제도 마련	□ 수화교원 양성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 □ 한국수화교원 양성 및 비리(아견),	■ 수화 교원 양성을 위한 기초 연구 ■ 수화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 수화 교원 양성 및 비리	▶▶▶▶▶	▶▶▶▶▶	▶▶▶▶▶
2.4 수화통역사 제도의 개선	수화통역사 제도의 개선	□ 수화통역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 □ 수화통역사의 전문성 확보 □ 수화통역사 자격의 세분화 및 등수화	■ 수화통역사의 종역 수행 기준 마련 연구 ■ 수화통역사의 종역 핵심 영역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실시 및 전문가 인력률 구축 ■ 원 수화통역센터 중심의 수화통역 제도 보완 및 개선	▶▶▶▶▶	▶▶▶▶▶	▶▶▶▶▶
	수화통역사 자격 제도의 개선	□ 수화통역사 자격 제도의 개선	■ 수화통역사 자격 제도의 개선	▶▶▶▶▶	▶▶▶▶▶	▶▶▶▶▶

(3) <표 V-2> 한국 수학 발전 기본 계획의 장·중·단기 계획

추진과제	세부과제	주요내용	추진 내용		장기
			단기	중기	
B 수학지위 향상을 위한 인력 개선 사업	3.1 정인용 위한 수학교육지원	<input type="checkbox"/> 효과적인 수학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수학교육과정에서 다른 수학교재 개발·보급	→	→
		<input type="checkbox"/> 학교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 시스템 인력서의 수학교육	초등학교 교육과정 인력서의 수학 교육 실시 중학교 교육과정 인력서의 수학 교육 실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인력서의 수학 교육 실시	→	→
	3.2 수학관련 사례 및 사전 권한 사업 지원	<input type="checkbox"/> 표준한국수학 사건의 정비 및 보완 <input type="checkbox"/> 다양한 맞춤형 수학사전 권한	대학이나 평생교육 시스템 인력서의 수학 교육 실시 표준수학사건의 지속적인 보완 및 수정 전문용어 사전의 보완·수정 및 다양한 전문용 어 사전 권한 수학수학 사건의 개발 및 권한	→	→
		3.3 수학과 동문화 보존 및 홍보사업 지원	<input type="checkbox"/> 동문화 및 시대별 수학 자료 수집 <input type="checkbox"/> 수학과 동문화 보증을 위한 홍보 학 대	한국어 수학 사전의 보완 및 수정 동문화 관련 사례 및 동영상 보급 수학 시의 수학 이야기 등 수화 예술 공연 지원 '한국수학의 날' 지정	→

(4) <표 V-2> 한국 수학 발전 기본 계획의 장·중·단기 계획

추진과제	세부과제	주요내용	추진 내용	단기	중기	장기
	4.1 수학연구소 설립 및 수학상위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수학 표준화 작업을 위한 상이위원회 구성 및 운영</li> <li>□ 수학 교육 및 연구 동향분석인 수학 관련 사업을 관장하는 수학 연구소 설립 및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표준화상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li> </ul>	2016년~2017년	2017년~2021년	2022년~2026년
④ 수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구축 사업 전개	4.2 농인 수학 연구자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수학 표준을 위한 지원 사업 전개</li> <li>□ 한국수학 시용지인 농인용의 수학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 전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수학 표준을 위한 지원 사업</li> <li>■ 농인 수학 연구자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li> </ul>			*** **
	4.3 수학연구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학연구자들의 수학 연구를 위한 지원 사업 전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학과회 및 연구소 연구회 활동 지원 사업</li> <li>■ 수학논문 및 수학영향으로 발간한 수학연구를 지원 사업</li> </ul>			*** **

(5) <표 V-2> 한국 수학 발전 기본 계획의 장·중·단기 계획

추진과제	세부과제	주요내용	추진 내용		장기
			단기	중기	
5-1 수학코퍼스 구축 사업	수학코퍼스 구축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 실시	<input type="checkbox"/> 동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관련 도서를 수화로 번역한 동영상과 서적 제작 사업 확대 <input type="checkbox"/> 수학 동영상 자료의 DR화 사업 <input type="checkbox"/> 다양한 정보를 수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수화정보센터 설립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학코퍼스 구축 사업 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북한 수화 및 노인들이 사용하는 수화 수필 연구 지원	2014년 ~2016년 2017년 ~2021년	2022년 ~2026년
			<input type="checkbox"/> 동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관련 도서를 수화로 번역한 동영상과 서적 제작 사업 확대 <input type="checkbox"/> 수학 동영상 자료의 DR화 사업 <input type="checkbox"/> 다양한 정보를 수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수화정보센터 설립	2017년 ~2021년 2022년 ~2026년	2022년 ~2026년
			<input type="checkbox"/> 동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관련 도서를 수화로 번역한 동영상과 서적 제작 사업 확대 <input type="checkbox"/> 수학 동영상 자료의 DR화 사업 <input type="checkbox"/> 다양한 정보를 수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수화정보센터 설립	2022년 ~2026년	2022년 ~2026년
5-2 수화 정보 동영상 자료 구축 DR화	수화 정보 동영상 자료 구축 DR화	<input type="checkbox"/> 수화를 통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 <input type="checkbox"/> 수화 웹 접근성 센터의 설립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화 관련 방송 및 웹 콘텐츠 제작 사업 지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터넷 웹사이트 등의 주요 정보에 대한 수화언어 제공	2017년 ~2021년 2022년 ~2026년	2022년 ~2026년
			<input type="checkbox"/> 수화를 통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 <input type="checkbox"/> 수화 웹 접근성 센터의 설립	2022년 ~2026년	2022년 ~2026년
			<input type="checkbox"/> 수화를 통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 <input type="checkbox"/> 수화 웹 접근성 센터의 설립	2022년 ~2026년	2022년 ~2026년
5-3 수화 기반 웹 접근성 사업 전기	수화 기반 웹 접근성 사업 전기	<input type="checkbox"/> 한국수화를 기복할 수 있는 수화문자 보급 및 보급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국수화 기반 수화문자(KSign Writing) 개발 연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화문자(KSign Writing)의 보급 및 수화문자 서적의 발간	2017년 ~2021년 2022년 ~2026년	2022년 ~2026년
			<input type="checkbox"/> 한국수화를 기복할 수 있는 수화문자 보급 및 보급	2022년 ~2026년	2022년 ~2026년
			<input type="checkbox"/> 한국수화를 기복할 수 있는 수화문자 보급 및 보급	2022년 ~2026년	2022년 ~2026년

### 5.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의 예산

〈표 V-3〉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의 총예산(안)

(단위: 만원)

추진 과제	기간별	재원	단기	중기	장기	계	
			2014년~2016년	2017년~2021년	2022년~2026년		
중점 추진 과제	1. 원활한 언어생활을 위한 농인의 수화 능력 향상	국고	25,000	20,000	30,000	75,000	
	2. 수화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정비	국고	16,000	10,000	10,000	36,000	
	3. 수화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	국고	15,000	30,000	30,000	75,000	
	4. 수화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 전개	국고	25,000	20,000	30,000	75,000	
	5. 수화를 통한 정보화 사업 전개	국고	60,000	95,000	75,000	230,000	
소 계			141,000	175,000	175,000	491,000	
세부 추진 과제	1-1 농유아를 위한 수화교육	국고	5,000	10,000	15,000	30,000	
	1-2 농학생을 위한 수화교육	국고	10,000	10,000	15,000	35,000	
	1-3 농성인을 위한 수화교육 및 수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	국고	10,000	0	0	10,000	
	2-1 수화사용 실태 조사	국고	4,000	0	0	4,000	
	2-2 수화능력 시험 평가제도 마련	국고	4,000	0	5,000	9,000	
	2-3 수화교원양성 제도 마련	국고	4,000	5,000	5,000	14,000	
	2-4 수화통역사 제도의 개선	국고	4,000	5,000	0	9,000	
	3-1 청인을 위한 수화교육 지원	국고	5,000	10,000	15,000	30,000	
	3-2 수화관련 서적 및 사전 편찬 사업 지원	국고	5,000	10,000	15,000	30,000	
	3-3 농문화 보존 및 홍보 사업 지원	국고	5,000	10,000	0	15,000	
	4-1 수화연구소 설립 및 수화심의위원회 구성	국고	8,000	0	30,000	38,000	
	4-2 농인 수화 연구자 양성	국고	10,000	0	0	10,000	
	4-3 수화연구 지원 사업	국고	7,000	20,000	0	27,000	
	5-1 수화코퍼스 구축 사업	국고	20,000	25,000	25,000	70,000	
	5-2 수화 정보 동영상 자료 구축 DB화	국고	10,000	25,000	25,000	60,000	
	5-3 수화 기반 웹 접근성 사업 전개	국고	20,000	25,000	25,000	70,000	
	5-4 수화문자 개발 및 보급	국고	10,000	20,000	0	30,000	
	소 계			141,000	175,000	175,000	491,000

V.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안

〈표 V-4〉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의 단기 예산(안)

(단위: 만원)

추진 과제	기간별	재원	단기		
			2014년~2016년		
중점추진과제	1. 원활한 언어생활을 위한 농인의 수화 능력 향상	국고	25,000		
	2. 수화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정비	국고	16,000		
	3. 수화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	국고	15,000		
	4. 수화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 전개	국고	25,000		
	5. 수화를 통한 정보화 사업 전개	국고	60,000		
소 계			56,000		
세부추진과제	1-1 농유아를 위한 수화교육	■ 농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상담 및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마련	국고	3,000	5,000
		■ 농유아 및 부모를 위한 수화교육 지원		2,000	
	1-2 농학생을 위한 수화교육	■ 농학교 교사를 위한 수화교육 지원	국고	3,000	10,000
		■ 농학생을 위한 교과서의 수화 번역본 제작·급		7,000	
	1-3 농성인을 위한 수화교육 및 수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	■ 중도 실청자나 난청인을 위한 수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000	10,000
		■ 중도 실청자나 난청인을 위한 수화교육 교재 개발 및 강사 연수 실시	국고	2,000	
		■ 수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 전개		5,000	
	2-1 수화사용 실태 조사	■ 한국수화 변이 형태에 대한 연구 지원 사업	국고	2,000	4,000
		■ 한국수화 사용 실태 조사 실시		2,000	
	2-2 수화능력 시험 평가제도 마련	■ 수화능력 시험을 위한 기초 연구	국고	4,000	4,000
		■ 수화 교원 양성을 위한 기초 연구	국고	4,000	
	2-3 수화교원양성 제도 마련	■ 수화통역사의 통역 수행 기준 마련 연구		1,000	4,000
		■ 수화통역사의 통역 핵심 영역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및 전문가 인력풀 구축	국고	3,000	
	3-1 청인을 위한 수화교육 지원	■ 수화교육과정 개발 연구	국고	2,500	5,000
		■ 대학이나 평생교육 시스템 안에서의 수화 교육 실시		2,500	
	3-2 수화관련 서적 및 사전 편찬 사업 지원	■ 표준수화사전의 지속적인 보완 및 수정	국고	2,500	5,000
		■ 한국어-수화 사전의 보완 및 수정		2,500	
	3-3 농문화 보존 및 홍보 사업 지원	■ 수화 시와 수화 이야기 등 수화 예술 공연 지원	국고	4,000	5,000
		■ '한국수화의 날' 지정		1,000	
	4-1 수화연구소 설립 및 수화심의위원회 구성	■ 수화표준화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고	8,000	8,000
4-2 농인 수화 연구자 양성	■ 한국수화 보존을 위한 지원 사업	국고	5,000	10,000	
	■ 농인 수화 연구자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5,000		
4-3 수화연구 지원 사업	■ 수화학회 및 연구소 연구회 활동 지원 사업	국고	7,000	7,000	
	■ 수화코퍼스 구축 사업 전개		15,000		
5-1 수화코퍼스 구축 사업	■ 북한 수화 및 노인들이 사용하는 수화 수집 연구 지원	국고	5,000	20,000	
	■ 수화 영상 도서사업 지원		2,000		
	■ 수화 영상 자료 DB화 사업 지원	국고	2,000		
5-2 수화 정보 동영상 자료 구축 DB화	■ 수화정보센터 설립		6,000	10,000	
	■ 수화관련 방송 및 웹 콘텐츠 제작 사업 지원		2,500		
5-3 수화 기반 웹 접근성 사업 전개	■ 인터넷 웹사이트의 주요 정보에 대한 수화번역 제공	국고	2,500	20,000	
	■ 수화방송국 지원 사업		5,000		
	■ 수화 웹 접근성 센터 설립		10,000		
5-4 수화문자 개발 및 보급	■ 한국수화 기반 수화문자(Sign Writing) 개발 연구	국고	5,000	10,000	
	■ 수화문자(Sign Writing)의 보급 및 수화문자 서적의 발간		5,000		
소 계			141,000	141,000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연구

〈표 V-5〉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의 중기 예산(안)

(단위: 만원)

추진 과제	기간별	재원	중기		
			2017년~2021년		
중점추진과제	1. 원활한 언어생활을 위한 농인의 수화 능력 향상	국고	20,000		
	2. 수화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정비	국고	10,000		
	3. 수화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	국고	30,000		
	4. 수화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 전개	국고	20,000		
	5. 수화를 통한 정보화 사업 전개	국고	95,000		
소 계			175,000		
세부추진과제	1-1 농유아를 위한 수화 교육	■ 농유아가 재원하는 어린이집에 자격을 갖춘 농인 진담교사 파견	국고	5,000	10,000
		■ 농유아를 위한 이중언어교육 시범 운영을 위한 지원		5,000	
	1-2 농학생을 위한 수화 교육	■ 농학교 교육과정에 수화 교과 개설		5,000	10,000
		■ 농학교에 농인 수화교육 교원 배치	국고	2,500	
		■ 농학생을 위한 수화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보급		2,500	
	2-3 수화교원양성 제도 마련	■ 수화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국고	5,000	5,000
	2-4 수화통역사 제도의 개선	■ 현 수화통역센터 중심의 수화통역 제도 보완 및 개선	국고	2,500	5,000
		■ 수화통역사 자격 제도의 개선		2,500	
	3-1 청인을 위한 수화교육 지원	■ 수화교육과정에 따른 수화교재 개발·보급	국고	10,000	10,000
	3-2 수화관련 서적 및 사전 편찬 사업 지원	■ 표준수화사전의 지속적인 보완 및 수정		5,000	10,000
■ 전문용어 사전의 보완·수정 및 다양한 전문 용어 사전 편찬		국고	5,000		
3-3 농문화 보존 및 홍보 사업 지원	■ 농문화 관련 서적 및 동영상 보급	국고	6,000	10,000	
	■ 수화 시와 수화 이야기 등 수화 예술 공연 지원		4,000		
4-3 수화연구 지원 사업	■ 수화문자 및 수화영상으로 발간한 수화연구물 지원 사업	국고	20,000	20,000	
5-1 수화코퍼스 구축 사업	■ 수화코퍼스 구축 사업 전개	국고	25,000	25,000	
5-2 수화 정보 동영상 자료 구축 DB화	■ 수화 영상 도서사업 지원	국고	15,000	25,000	
	■ 수화 영상 자료 DB화 사업 지원		10,000		
5-3 수화 기반 웹 접근성 사업 전개	■ 수화관련 방송 및 웹 콘텐츠 제작 사업 지원	국고	15,000	25,000	
	■ 수화방송국 지원 사업		10,000		
5-4 수화문자 개발 및 보급	■ 수화문자(Sign Writing)의 보급 및 수화문자 서적의 발간	국고	20,000	20,000	
소 계			175,000	175,000	

V.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안

〈표 V-6〉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의 장기 예산(안)

(단위: 만원)

추진 과제	기간별	재원	장기		
			2022년~2026년		
중 점 추 진 과 제	1. 원활한 언어생활을 위한 농인의 수화 능력 향상	국고	30,000		
	2. 수화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정비	국고	10,000		
	3. 수화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	국고	30,000		
	4. 수화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 전개	국고	30,000		
	5. 수화를 통한 정보화 사업 전개	국고	75,000		
소 계			175,000		
세 부 추 진 과 제	1-1 농유아를 위한 수화교육	■ 농유아를 위한 이중언어교육 기관 설립	국고	15,000	15,000
	1-2 농학생을 위한 수화교육	■ 농학생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실험학교 운영	국고	15,000	15,000
	2-2 수화능력 시험 평가제도 마련	■ 수화능력 시험 제도 실시	국고	5,000	5,000
	2-3 수화교원양성 제도 마련	■ 수화 교원 양성 및 배치	국고	5,000	5,000
	3-1 청인을 위한 수화교육 지원	■ 초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의 수화 교육 실시		5,000	
		■ 중학교 교육과정 안에서의 수화 교육 실시	국고	5,000	15,000
		■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의 수화 교육 실시		5,000	
	3-2 수화관련 서적 및 사전 편찬 사업 지원	■ 표준수화사전의 지속적인 보완 및 수정		5,000	
		■ 전문용어 사전의 보완·수정 및 다양한 전문 용어 사전 편찬	국고	5,000	15,000
	과 제	4-1 수화연구소 설립 및 수화심의위원회 구성	■ 수화연구소 설립	국고	30,000
■ 수화코퍼스 구축 사업			국고	25,000	25,000
5-2 수화 정보 동영상 자료 구축 DB화		■ 수화 영상 도서사업 지원	국고	15,000	25,000
		■ 수화 영상 자료 DB화 사업 지원		10,000	
5-3 수화 기반 웹 접근성 사업 전개		■ 수화관련 방송 및 웹 콘텐츠 제작 사업 지원	국고	15,000	25,000
	■ 수화방송국 지원 사업		10,000		
소 계			175,000	175,000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청각장애 언어**.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과학기술부 (2013). **청각장애 언어**. 서울: 미래엔.
- 김경진, 이미혜, 원성옥, 허 일, 남기현, 성은실 (2013). **농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수화 사용 및 농학교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
- 김아영 (2013). 한국 수화 표준화 사업의 성과와 전망. **새국어생활**, 23(2), 3-18.
- 김연신, 이준우 (2013). 수화통역의 영역과 수화통역사의 역할수준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7(1), 107-136.
- 권재일, 윤병천, 김응범, 이미혜 (2009). **청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실태 연구: 언어 사용 실태와 수화에 대한 청인의 인식**. 국립국어원 · 한국농아인협회, 서울.
- 민은주 (2011). 제2언어로서의 수화가 농청년의 정체성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3), 41-60.
- 박광자 (1996). **일반학급에 통합된 청각장애아동의 언어능력과 적응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대학원, 서울.
- 박주열 (1989). **청각장애 학생의 읽기 능력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대학원, 서울.
- 서준환 (2003). **한국 수화의 지역 차에 관한 조사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대구.
- 윤석민 (2013). 농인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제언. **새국어생활**, 23(2), 66-87.
- 이수희, 유태명 (2008).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교육과정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0(3), 107-129.
- 정운기, 김병하 (2005). 농아동의 이중언어접근법에 관련된 제반요소 탐색.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4), 405-424.
- 최상배 (2012). 한국수화언어의 수형소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1), 233-256.
- 최상배 (2013). 한국수화언어의 수위소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4(2), 1-20.
- 최영주 (1990). **청각장애 학생의 독해력 분석**. 미간행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대학

- 원, 대구.
- 최현성, 정윤수, 남기법, 김은수 (2001). FGI 방법을 이용한 스마트워크 정책의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129-153.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수화통역 실태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 한국청각장애교육100년사 편찬위원회 (2009). **한국청각장애교육 100년사**. 서울: 성광문화사.
- 홍성은 (2013). 국외 수화 언어학 연구 동향. **새국어생활**, 23(2), 88-99.
- Abdelilah-Bauer, Barbara (2012). **이중언어 아이들의 도전**(박찬규 역). 서울: 구름서재.(2006)
- Allen, T. (1986). Patterns of academic achievement among hearing impaired students: 1974 and 1983. In A. Schildorth & M. Karchmer(Eds.), *Deaf children in America*(pp. 161-206). Sandiego: Little Brown.
- Bailes, C., Erting, L. C., Thumann-Prezioso, C., & Erting, C. J. (2009). Language and literacy acquisition through parental mediation in American Sign Language. *Sign Language Studies*, 9(4), 417-456.
- Blamey, P. J., Sarant, J. Z., Paatsch, L. E., Barry, J. G., Bow, C. P., Wales, R. J., Wright, M., Psarros, C., Rattigan, K., & Tooher, R. (2001). Relationships among speech perception, production, language, hearing loss, and age in children with impaired hearing.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4(2), 264-285.
- Center for Assessment and Demographic Studies (1991). *Stanford achievement test, eight edition: Hearing-Impaired norms booklet*. Washinton, DC: Gallaudet Research Institute, Gallaudet University.
- Chamberlain C, Mayberry R. (2008). American Sign Language syntactic and narrative comprehension in skilled and less skilled readers: Bilingual and bimodal evidence for the linguistic basis of reading. *Psycholinguistics*, 29(3), 367-388.
- Cummins, J. (1979). Linguistic interdependence and the educational development of bilingual childre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9(2), 222-51.
- De Vos, C. (2012). *Sign-spatiality in Kata Kolok: How a village sign language in Bali inscribes its signing spa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Radboud University Nijmegen, Nijmegen.

- Debevc, M., Kosec, P., Holzinger, A. (2011). Improving multimodal web accessibility for deaf people: sign language interpreter module. *Multimedia Tools and Applications*, 54(1), 181-199.
- Fels, D., Richards, J., & Lee, D. G. (2006). Sign language web pages.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51(4), 423-433.
- Fenlon, J., Schembri, A., Rentelis, R., & Cormier, K. (2013). Variation in handshape and orientation in British Sign Language: The case of the '1' hand configuration. *Language and Communication* 33(1), 69-91.
- Flood, C. M. (2002). *How do deaf and hard of hearing students experience learning to write using signwriting, a way to read and write sig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w Mexico, Albuquerque.
- Freel, B., Clark, M., Anderson, M., Gilbert, G., Musyoka, M., & Hauser, P. (2011). Deaf individuals' bilingual abilities: American Sign Language proficiency, reading skills, and family characteristics. *Psychology*, 2(1), 18-23.
- Fuchs, D., & Fuchs, L. S. (1994). Inclusive schools movement and the radicalization of special education reform. *Exceptional Children*, 60, 294-309.
- Garrison, W., Long, G., & Stinson, M. S. (1994). The classroom communication ease scale: Development of a self-report questionnaire for mainstreamed deaf students.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39, 132-140.
- Giezen, M. R., Baker, A. E., Escudero, P. (2014). Relationships between spoken word and sign processing in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19(1), 107-125.
- Greenbaum, T. L. (2001). **포커스 그룹 리서치**(이광숙 옮김). 서울: 박영률.
- Gregory, S., & Bishop, J. (1988). The integration of the deaf children into ordinary schools: A research report. *Journal of British Association of Teachers of Deaf*, 17, 169-183.
- Johnston, T. (2003). Language standardization and sign language dictionaries. *Sign Language Studies*, 3(4), 431-468.
- Karchmer, M. A., Milone, M. N., & Wolk, S. (1979). Educational significance of hearing loss at three level of severity.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24, 97-109.
- Kluwin, T. N., & Stinson, M. S. (1993). *Deaf students in local public high schools: Background,*

- experiences, and outcomes*.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Knoors, H., Marschark, M. (2012). Language planning: Revisiting bilingual language policy for deaf children.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17(3), 291-305.
- Krashen, S.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learning*. Oxford: Pergamon.
- Krausneker, V. (2000). Sign language and the minority language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In M. Metzger(Ed.), *Bilingualism and identity in deaf communities*(pp.142-58).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Krueger, R. A. (1998). *Developing questions for focus group results*. Thousand Oaks, CA: Sage.
- Lanesman, S., & Meir, I. (2012), The survival of algerian Jewish sign language alongside Israeli sign language in Israel. In U. Zeshan, & C. de Vos (Eds.), *Sign Languages in village communities: Anthropological and linguistic insights*(*Sign language typology*)(pp. 153-179). Bosten/Berlin: De Gruyter Mouton & Nijmegen: Ishara Press.
- Lewis, S. (1996). The reading achievements of a group of severely and profoundly hearing-impaired school leavers educated within a natural aural approach. *Journal of British Association of Teachers of the Deaf*, 20(1), 1-7.
- Lewis, W. (1996). 덴마크 농아동의 이중 언어능력 지도: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조성희 역). 인천: 인천성동학교.
- Lucas, C. (2003). The role of variation in lexicography. *Sign Language Studies*, 3(3), 322-340.
- Lucas, C., & Valli, C. (1989). *Sociolinguistics of the deaf community*. San Diego: Academic.
- Luckner, J. L., & Handley, C. M. (2008). A summary of the reading comprehension research undertaken. with students who are deaf or hard of hearing.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53(1), 6-36.
- Marschark, M., & Harris, M. (1996). Success and failure in learning to read: The special case of deaf children. In J. Oakhill & C. Cornoldi(Eds.), *Children's reading comprehension disabilities: Processes and intervention* (pp. 279-300). Mahwah, NJ: Erlbaum.
- Marschark, M., Lang, H. G., & Albertini, J. A. (2002). *Educating deaf students: From research to practic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 Mayberry, R., Lock, E. & H. Kazmi (2002). Linguistic ability and early language exposure, *Nature*, 417, 38.

- Mayne, A. M., Yoshinaga-Itano, C., & Sedey, A. (2000). Receptive vocabulary development of infants and toddlers who are deaf or hard of hearing. *Volta Review*, 100, 29-52.
- Mayne, A. M., Yoshinaga-Itano, C., Sedey, A., & Carey, A. (2000). Expressive vocabulary development of infants and toddlers who are deaf or hard of hearing. *Volta Review*, 100, 1-28.
- McAnally, P. L., Rose, S., & Quigley, S. P. (1994). *Reading practices with deaf learners*. Austin, TX: PRO-ED.
- McCaskill, C., Lucas, C., Bayley, R., & Hill, J. (2011). *The hidden treasure of Black ASL: It's history and structure*.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Möbus, L. (2010). Making web content accessible for the deaf via sign language. *Library Hi Tech*, 28(4), 569-576.
- Moeller, M. P. (2000). Early intervention and language development in children who are deaf and hard of hearing. *Pediatrics*, 106, 43-51.
- Moog, J. S., & Geers, A. E. (1985). EPIC: A program to accelerate academic progress in profoundly hearing-impaired children. *The Volta Review*, 87(6), 259-277.
- Moore, D. (1987). *Educating the deaf: Psychology, principles, and practices*(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Morford, J., Wilkinson, E., Villwock, A., Pin-ar, P., & Kroll, J. (2011). When deaf signers read English: Do written words activate their sign translations? *Cognition*, 118(2), 286-292.
- Musselman, C., & Szanto, G. (1998). The written performance of deaf adolescents: Patterns of performance.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3(3), 245-257.
- Newman, A., Supalla, T., Hauser, P., Newport, E., & Bavelier, D. (2010). Prosodic and narrative processing in American Sign Language: An fMRI study. *NeuroImage*, 52, 669-676.
- Patrie, C. J. (1993). *A confluence of diverse relationships: Interpreter education and educational interpreting*. Paper presented at the Convention of the Registry of Interpreter of the Deaf, Evansville, Indiana.
- Paul, P. (2001). *Language and deafness*(3rd ed.). San Diego, CA: Singular.

- Paul, P. (2003). Processes and components of reading. In M. Marschark & P. Spencer(Eds.), *Handbook of deaf studies, language, and education*(pp. 97-109). New York: Oxford University.
- Pribanikj, L., & Milkkovkj, M. (2009). The benefit of early exposure to sign languag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10(3-4) 28-39.
- Reading, S., & Padgett, R. J. (2011). Communication connections: Service learning and American Sign Language. *American Journal of Audiology*, 20(2), 197-202.
- Rosen, R. (2010). American Sign Language curricula: A review. *Sign Language Studies*, 10(3), 348-381.
- Regan, T. G. (2010). *Language policy and planning for sign languages*.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Schermer, T. (2003). From variant to standard: An overview of the standardization process of the lexicon of sign language of the Netherlands over two decades. *Sign Language Studies*, 3(4), 469-486.
- Schembri, A. & Johnston, T. (2013). Sociolinguistic variation and change in sign languages. In: R. Bayley, R. Cameron & C. Lucas(Eds.), *The Oxford Handbook of Sociolinguistics*(pp. 503-52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polsky, B. (2004). *Language policy*.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mpson, R., Emmorey, K., & Kluender, R. (2009). Learning to look: The acquisition of eye gaze agreement during the production of ASL verbs. *Bilingualism: Language and Cognition*, 12(4), 393-409.
- Trovato, S. (2013). A stronger reason for the right to sign languages. *Sign Language Studies*, 13(3), 401-422.
- Volterra V., Capirci O., & Caselli M. C. (2001). What atypical populations can reveal about language development: the contrast between deafness and Williams syndrome.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16, 219-239.
- Wauters, L. N., Tellings, A. E. J. M., & Van Bon, W. H. J. (2008). Mode of Acquisition as a factor in Deaf Children's Reading Comprehension.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13(2), 175-192.

Wilbur, R. (2000). Phonological and prosodic layering of nonmanuals in American Sign Language, In: K. Emmorey & H. Lane(Eds.), *The Signs of Language Revisited: An anthology in honor of Ursula Bellugi and Edward Klima*(pp. 215-244).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참고사이트

국립장애인도서관: [nlid.nl.go.kr](http://nlid.nl.go.kr)

미국 내쉬빌 도서관: [www.library.nashville.org](http://www.library.nashville.org)

법제처: [www.moleg.go.kr](http://www.moleg.go.kr)

수화 문자: [www.SignWriting.org](http://www.SignWriting.org)

영국의 ITV Signed Stories: [www.signedstories.com](http://www.signedstories.com)

한국 웹 접근성 연구소: [www.wah.or.kr](http://www.wah.or.kr).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www.kbuwel.or.kr](http://www.kbuwel.or.kr)



연구책임자 원성옥 (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공동연구원 권순우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김지숙 (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연구보조원 김선영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연구

---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14년 3월 26일

발행일: 2014년 3월 27일

제 작: 도서출판 책과공간

---

※ “이 보고서는 국립국어원의 국고 보조금으로 수행한 ‘한국 수화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